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2019.11.04.(월) 13:00 - 16:00

서울대학교 인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4동 30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2019.11.04.(월)

13:00 - 16:00

서울대학교 인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4동 302호)

개회사 13:00-13:10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제1부 조사결과 발표 |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       |      |                                       |
|-------|------|---------------------------------------|
| 13:10 | 발표 1 | 조사개요<br>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     |      |                                       |
| 14:40 | 발표 2 |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br>정은미 (통일연구원)      |
|       | 발표 3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br>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 발표 4 | 북한 보건의료<br>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
|       | 발표 5 | 통일인식<br>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
|       | 발표 6 | 대남인식<br>문인철 (서울연구원)                   |
|       | 발표 7 | 북한실태인식<br>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 발표 8 | 주변국 관계인식<br>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       | 발표 9 | 남한적응실태<br>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휴식 | 14:40-15:00

## 제2부 패널토론 | 자력갱생의 명암(明暗)

- |       |    |  |
|-------|----|--|
| 15:00 | 사회 | 안동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 -     |    |  |
| 16:00 | 토론 | 이혜원 (서울의료원)    조은희 (송실대학교)<br>차문석 (통일교육원)    홍순직 (국민대학교) |



## 목차

조사개요	1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13
정은미 (통일연구원)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35
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보건의료	55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인식	67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대남인식	83
문인철 (서울연구원)	
북한실태인식	97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변국 관계인식	113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남한적응실태	123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 조사개요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주민의식, 북한사회변동 조사결과 발표

# 2019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자력갱생의 명암(明暗)

- 조사연구 개요 -



## 조사방법,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사기간	4/15-6/4	4/6-6/2	6/13-7/16	5/28-6/30	5/22-7/6	6/10-8/8	6/8-8/6	7/20-8/31	8/9-9/6
탈북연도									
2010	104								
2011	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132		
2017								85	
2018								2	114
2019									2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 2019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일지

시 기	내 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국무위원장 새해 신년사 발표(1.1)</li> <li>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시진핑 주석 연담(1.7~1.10)</li> <li>트럼프 대통령, 김영철 연담(1.18, 백악관)</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북미정상회담(2.27~28, 베트남 하노이)</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3.22)</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정상회담(4.11, 워싱턴)</li> <li>폼페이오 미국무부장관, 비핵화 협상 실패시 “경로변경” 언급(4.24)</li> <li>최설희 北외무성 부상, 美 국무장관의 “경로변경” 발언 비난(4.30)</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 발사(5.4)</li> <li>北, 단거리 미사일 추정 불상 발사체 2발 동쪽 방향 발사(5.9)</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앞 친서 전달(6.10)</li> <li>시진핑 중국주석 방북, 북중정상회담(6.20~21)</li> <li>한미정상회담, 남북미 회동(6.30, 관문점 자유의 집)</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7.25)</li> <li>北, 함남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7.31)</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황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8.2)</li> <li>北, 외무성 대변인 당화 한미연합훈련 비난(8.6)</li> <li>北, 황경남도 황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8.10)</li> <li>北, 강원도 동천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8.16)</li> <li>北, 함남 선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8.24)</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北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 미사일 2회 발사(9.10)</li> <li>한미정상회담(9.23)</li> </ul>

###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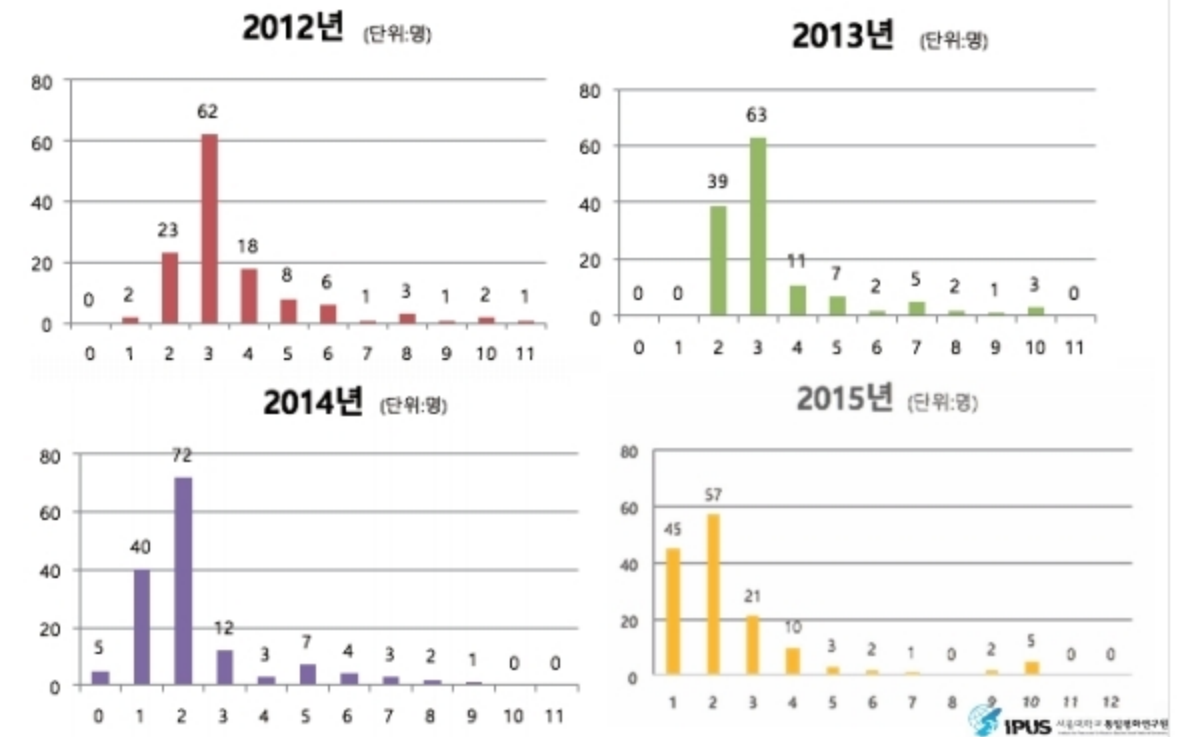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대	0	0	0	0	1	2	2	1	0	1	0	0	0	0	3	1	0	3
20대	13	19	22	21	24	22	17	31	16	29	14	38	24	23	14	19	20	17
30대	12	17	11	12	17	12	13	15	20	25	16	16	24	15	11	10	9	17
40대	6	10	10	21	11	27	12	27	13	24	15	19	16	11	5	5	7	17
50대	1	14	6	11	7	9	6	13	6	10	7	9	5	12	5	14	5	15
60대 이상	4	9	7	6	0	4	2	13	2	1	1	3	1	1	0	0	0	6
합계	36	69	56	71	60	76	50	99	57	89	53	85	70	62	38	49	41	75
(성비, %)	34.3	65.7	44.1	55.9	43.9	56.1	33.6	66.4	39.0	61.0	38.4	61.6	53.0	47.0	43.7	56.3	35.3	64.7

- 2018년 조사에는 10대가 4명 이었고 2019년 조사에서는 10대가 3명 이었음
- 20대 31.9%, 30대 22.4%, 40대 20.7%, 50대 17.2%, 60대 이상 5.2%로 2017년 연령대 비율과 비교하여 40대 비율이 크게 높아짐.
- 남성은 35.3% 여성은 64.7% 로 2018년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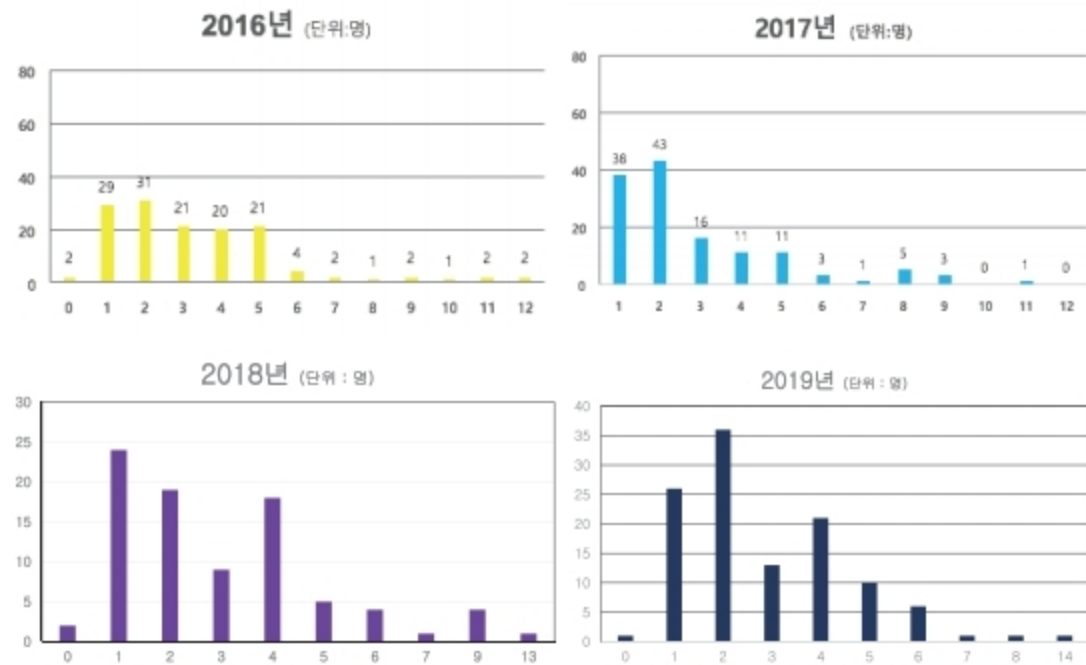
### 조사내용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사내용	북한 주민의식								
통일의식	○	○	○	○	○	○	○	○	○
대남의식	○	○	○	○	○	○	○	○	○
북한실태	○	○	○	○	○	○	○	○	○
남한적응	○	○	○	○	○	○	○	○	○
조사내용	북한 사회변동								
주민생활 (의식주 등)	--	○	○	○	○	○	○	○	○
정보화	--	--	--	--	○	○	○	○	○
사회보장	--	--	--	--	--	○	○	○	--
보건의료	--	--	--	--	--	--	--	--	○
사적 경제활동	--	○	○	○	○	○	○	○	○
경제개혁인식	--	--	--	○	○	○	○	○	○

###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육수준\_탈북 전 최종학력 수준 (단위: %)

교육수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학교	11.4	10.4	16.5	13.6	19.9	13.0	7.6	5.7	6.9	
전문학교	21.0	18.4	11.3	21.8	16.4	11.6	17.4	13.8	22.4	
고등중학교	66.7	66.4	71.4	62.6	61.0	74.6	72.0	73.6	70.7	
인민학교	1.0	3.2	0.0	2.0	2.1	0.7	2.3	6.9	0.0	
무학	0.0	1.6	0.8	0.0	0.7	0.0	0.8	0.0	0.0	
합계(빈도)	105	125	133	147	146	138	132	87	116	

- 전문학교 이상 북한 학력자: 29.3%
- 고등중학교 북한 학력자: 70.7%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양	0	0	1	3	3	5	2	2	0	
남포	0	1	0	2	1	2	1	0	1	
개성	0	0	0	0	0	0	1	1	0	
평안남도	5	0	2	4	3	2	0	2	0	
평안북도	0	1	6	0	3	1	1	5	0	
함경남도	4	14	11	9	5	4	6	4	5	
함경북도	55	65	51	53	64	58	33	20	18	
자강도	0	0	0	1	0	0	0	0	0	
양강도	40	39	58	72	60	63	84	52	87	
황해남도	0	3	0	1	1	0	4	1	0	
황해북도	1	3	1	2	4	0	0	0	2	
강원도	0	1	2	2	2	3	0	0	2	
합계	105	127	132	149	146	138	132	87	116 (무응답 1명)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직업분포\_북한에서의 직업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자	29.3	37.6	31.6	31.1	26.2	22.5	43.9	32.2	26.7	
농민	9.1	8.8	3.8	7.4	4.8	9.4	3.8	11.5	3.4	
사무원	13.1	4.8	9.8	12.2	9.0	10.9	6.1	6.9	8.6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8.1	7.2	8.3	3.4	5.5	7.2	7.6	0.0	1.7	
학생	7.1	6.4	6.0	7.4	4.8	4.3	2.3	13.8	7.8	
군인	6.1	4.0	4.5	4.7	4.8	8.0	5.3	3.4	3.4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3.8	0.0	1.7	
장사	11.1	11.2	13.5	4.7	20.7	12.3	9.8	0.0	8.6	
주부	11.1	11.2	16.5	18.9	11.7	13.0	10.6	21.8	21.6	
무직 및 기타	4.0	6.4	3.8	10.1	8.3	9.4	6.8	10.3	16.4	
합계(빈도)	99	125	133	148	145	138	132	87	116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당원여부 (단위: %)

당원여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원	9.9	14.4	14.3	13.5	17.9	18.8	18.3	13.8	11.2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0.0	0.9
비당원	89.1	85.6	85.7	85.8	81.4	81.2	80.9	83.9	87.1
합계(빈도)	101	125	133	147	145	138	132	87	116

비공식 소득 수준 (단위: 명)

비공식 수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원	18	21	32	33	24	32	18	18	26
1000원 이하	6	0	3	4	0	2	1	0	0
5000원 이하	7	2	0	2	0	1	4	1	1
1만원 이하	2	2	3	2	0	1	0	1	0
10만원 이하	18	25	9	26	9	11	11	14	8
50만원 이하	19	44	52	43	43	37	45	27	38
100만원 이하	6	8	10	17	36	33	18	12	16
100만원 초과	6	7	19	15	34	22	35	13	27
무응답	23	18	2	2	-	-	-	1	-
합계	105	127	133	144	146	138	132	87	116

공식 소득 (공식 월급) 수준 (단위: 명)

공식월급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원	27	32	69	91	80	80	62	45	77
1000원 이하	7	10	2	13	7	7	8	8	5
5000원 이하	37	46	49	39	52	37	54	18	23
1만원 이하	2	4	5	2	1	4	0	0	2
10만원 이하	6	9	0	3	4	5	2	9	2
50만원 이하	2	5	4	0	0	3	3	5	6
100만원 이하	1	0	2	0	1	2	2	1	1
100만원 초과	0	0	0	1	1	0	1	0	0
무응답	23	21	2	-	-	-	-	1	0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 공식월급이 "없었다 (0원)" 라고 응답한 비율 증가함.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경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있다	71.3	69.8	74.4	69.8	76.7	68.8	69.7	60.9	64.7
없다	28.7	30.2	25.6	30.2	23.3	31.2	30.3	39.1	35.3
합계 (빈도)	101	126	133	149	146	138	132	87	116



탈북 후 북한 소식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7	19.7	22.6	24.8	19.3	26.1	20.5	19.5	22.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6.9	59.1	57.1	57.8	55.2	50.7	56.1	63.2	55.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4	21.3	20.3	17.5	25.5	23.2	23.5	17.2	21.6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5	138	132	87	116

현재의 결혼 상태 (단위: %)

결혼상태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혼	55.6	46.0	37.6	30.9	39.3	42.0	40.5	50.6	33.6
결혼 (동거포함)	44.4	44.4	53.4	55.0	42.8	47.1	45.8	41.4	52.6
이혼	0.0	9.5	9.0	14.9	17.9	10.9	13.7	5.7	13.8
합계 (빈도)	99	126	133	149	146	138	131	87	116

탈북 전 남한 내 친척 유무 (단위: %)

남한친척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없다	40.2	37.8	34.6	30.9	41.8	60.9	51.5	49.4	70.7
있다	59.8	62.2	65.4	69.1	58.2	39.1	48.5	50.6	29.3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현재의 자녀 수 (단위: %)

자녀 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명	29.6	30.4	38.4	34.2	39.7	43.5	43.2	52.9	43.1
1명	35.8	34.3	32.3	27.5	35.6	33.3	36.4	24.1	39.7
2명	22.2	24.5	24.1	29.5	21.2	18.8	18.9	19.5	12.1
3명	7.4	8.8	4.5	6.7	2.1	4.3	0.8	3.4	0.9
4명	4.9	2.0	0.8	1.3	1.4	0.0	0.8	0.0	2.6
5명	0.0	0.0	0.0	0.7	0.0	0.0	0.0	0.0	0.0
합계(빈도)	81	102	133	149	146	138	132	87	116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  
(통일연구원)



#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발표2: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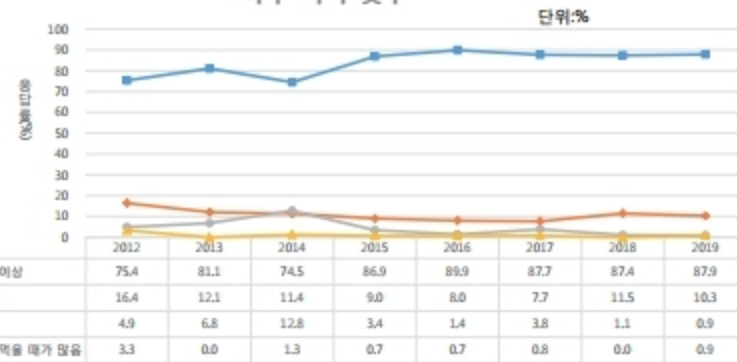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차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2. 가구 내구재 보유 현황과 비교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6. 시사점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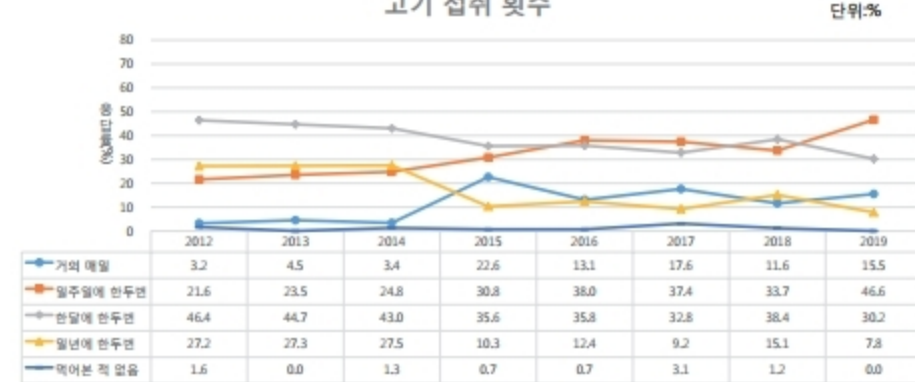
하루 식사 횟수



- 2015년 이후 하루 식사 횟수 안정적 추세
- 2015년 이후 결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 한국은행 자료('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의하면, 2018년 농림어업 생산량 전년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량가격 안정(kg당 5,000원 안팎)으로 식생활에 큰 어려움 없는 것으로 파악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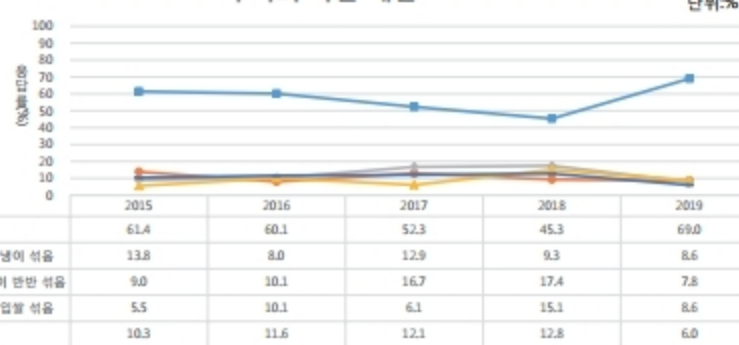
고기 섭취 횟수



- 일주일 한두 번 고기 섭취 응답률 전년 대비 크게 증가(33.7%→46.6%), "거의 매일 섭취" 응답률 역시 전년 대비 증가(11.6%→15.5%)
- 돼지고기의 시장가격 안정세(kg당 15,000원 안팎) 유지,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로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개선 기대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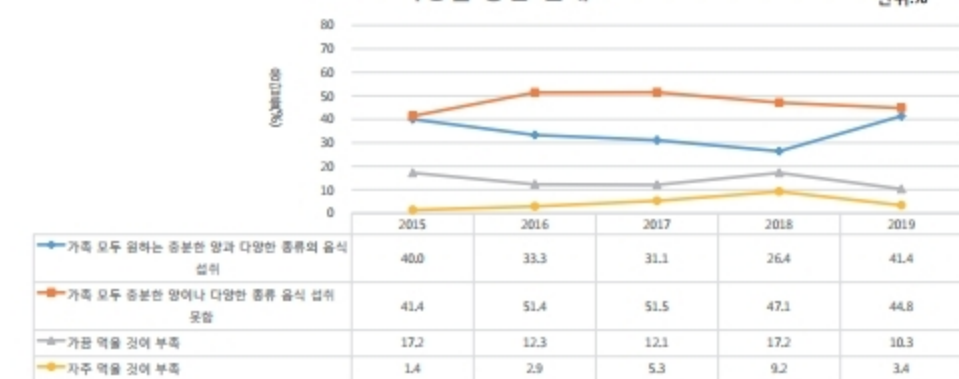
주식의 곡물 배율



- 전년 대비 2019년 조사에서 "거의 입쌀" 식사 비중 크게 증가(45.3%→69.0%), 쌀 시장가격 안정과 곡물수입 증가로 식생활의 질 수준 유지
- 경제제재 국면이지만 2018년 대중(對中) 식료품 수입액이 증가하여 식생활에 큰 타격 없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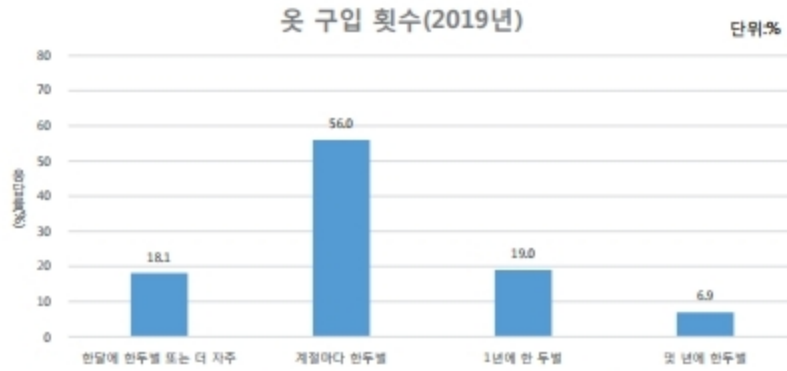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식생활

식생활 종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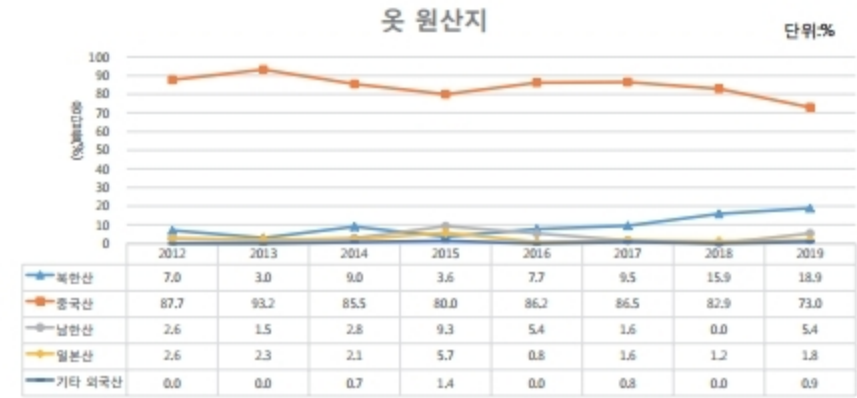
- "가족 모두 충분한 양과 질의 식사했다"는 응답률 지난 3년 동안 감소세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 (26.4%→41.4%)
- 식생활이 취약했던 응답자("가끔 부족"& "자주 부족")는 10명 중 1명 정도로 비중이 작은 편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의생활



- 2019년 조사에서 옷 구입 횟수 선택 범주 변경(※ 2012~2018년 조사 선택 범주='계절마다 한두 벌', '일년에 한두 벌', '몇 년에 한두 벌', '남에게 얻어 입음', '살 필요 없음')
-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선택 항목 추가, '남에게 얻어 입음'과 '살 필요 없음' 항목 삭제, 예년 조사에서 삭제한 항목들의 비중이 2~3%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듯
- 2019년 조사에서는 '계절마다 한두 벌 구입' 항목의 비중이 56.0%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예년 조사에서도 '계절마다 한두 벌' 항목이 과반 이상의 응답률 차지)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의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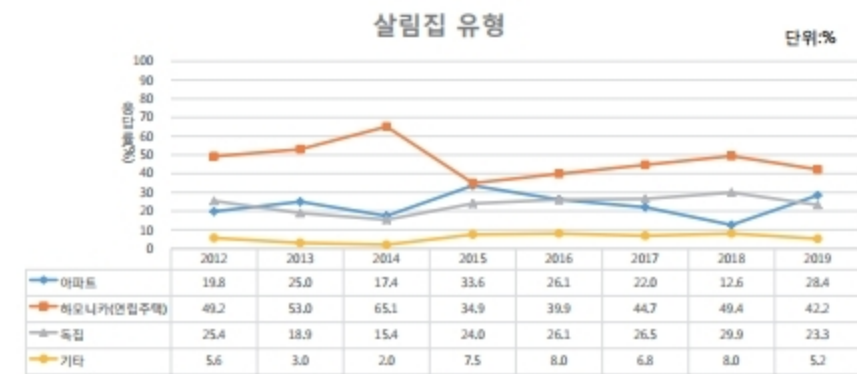
- 지난 3년 동안 북한산 비중은 증가세(9.5%→15.9%→18.9%), 반면 중국산 비중은 감소세 뚜렷(86.5%→82.9%→73.0%)
- 경공업 부문의 국산화 정책으로 인한 소비품의 국산 비중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의생활



- 2018년 조사까지 선택항목이 시장(장마당), 국영상점, 직매점, 백화점, 해외 직구, 무상배급으로 제시
- 2019년 조사에서는 국영상점과 직매점을 통합, 백화점과 외화상점을 통합하여 제시, 해외직구나 무상배급 항목은 삭제함
- 전년대비 시장(장마당)의 비중 감소(90.8%→88.8%), 유통부문의 다변화로 시장 비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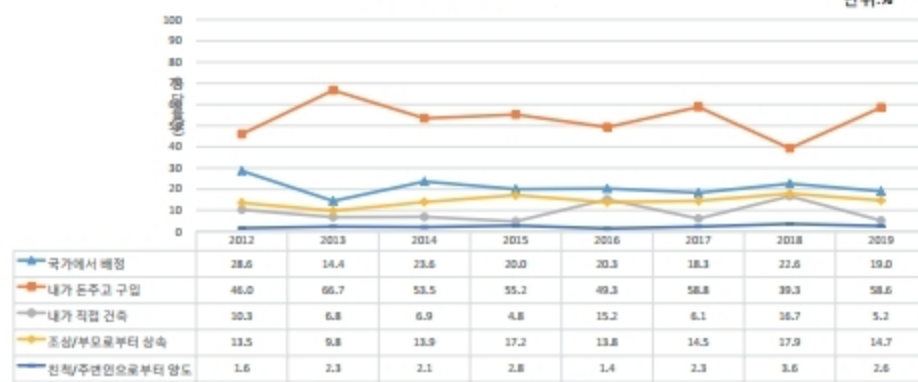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주거생활



- 전년 대비 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증가(12.6%→28.4%),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중 전년 대비 감소
- 여전히 연립주택의 비중이 가장 큼

## 1. 食·衣·住 실태와 변화: 주생활

살림집 장만 방법



- 전년대비 '돈 주고 구입'한 응답률 크게 증가(39.3%→58.6%), 사적 거래에 의한 주택 마련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된 상태
- '직접 건축' 응답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16.7%→5.2%),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건축자재 수입 위축 효과 반영된 결과

## 2.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과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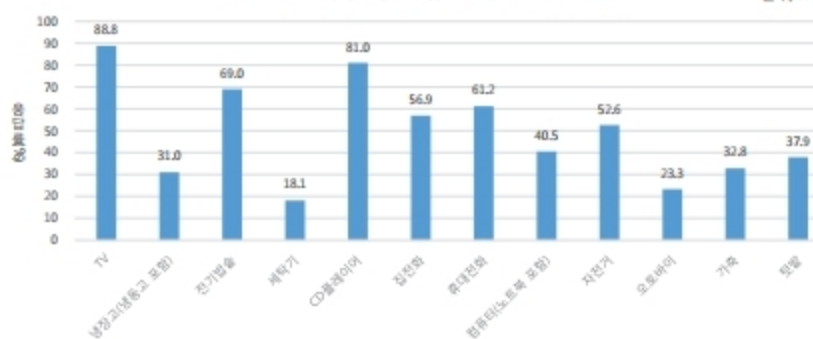
내구재 항목	IPUS 조사(2019)	MICS(2018)
TV	88.8	98.2
냉장고	31.0	30.3
전기밥솥	69.0	62.6
세탁기	18.1	15.5
CD플레이어	81.0	75.5
덧발	37.9	53.7
가축	32.8	53.9
자전거	52.6	83.1
오토바이	23.3	5.2
컴퓨터	40.5	18.7
집전화(유선)	56.9	미포함
이동전화	61.2	66.4

MICS(2018)란?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한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

- MICS와 비교해 IPUS에서 자전거 보유 응답률은 낮게, 오토바이 보유 응답률은 높게 나타남(최근 탈북민 조사, 오토바이 보유 가구 급증. 부유층 혼수 품목)
- 가축과 덧발의 보유 응답률도 MICS 보다 낮게 조사
- 컴퓨터의 경우 MICS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CD플레이어, 휴대전화의 가구별 보유 응답률은 MICS 조사와 비슷한 수준

## 2.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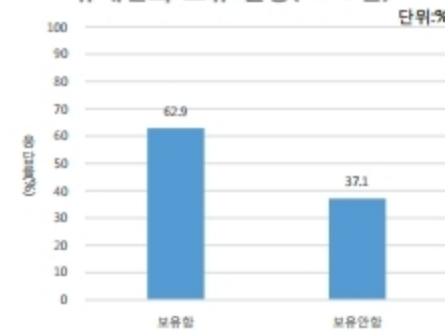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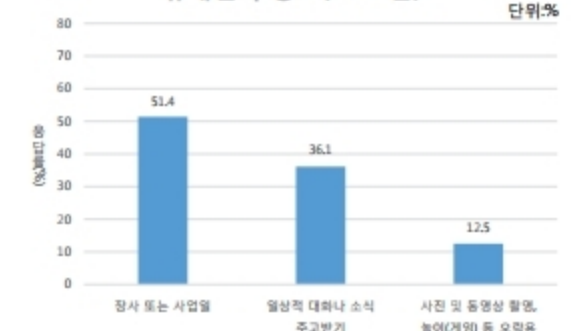
- 살림집 내구재 항목이 유엔기구 조사(Unicef's MICS, 2018) 항목과 일치
- 전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전기제품 보유율 높은 편임. 자가발전체계(태양광+축전지) 구축, 전력소비가 작은 내구재 보유율이 높음. 전력소비가 높은 전기밥솥은 아침, 저녁 전력공급 시간 이용하여 사용.
- 상수도 인프라 낙후로 세탁기 보유율은 낮은 편(하지만 탈수기는 대중 보급), 안정적 전력공급이 안돼 냉장고 보유율은 낮은 편

##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보유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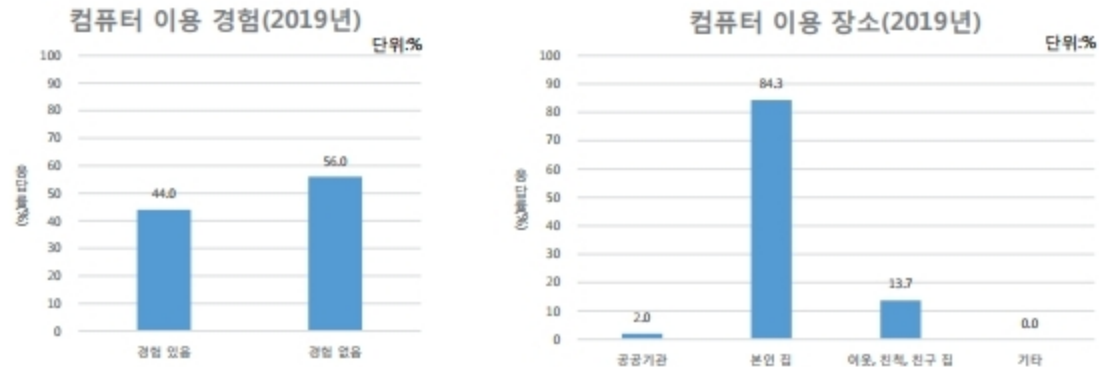


휴대전화 용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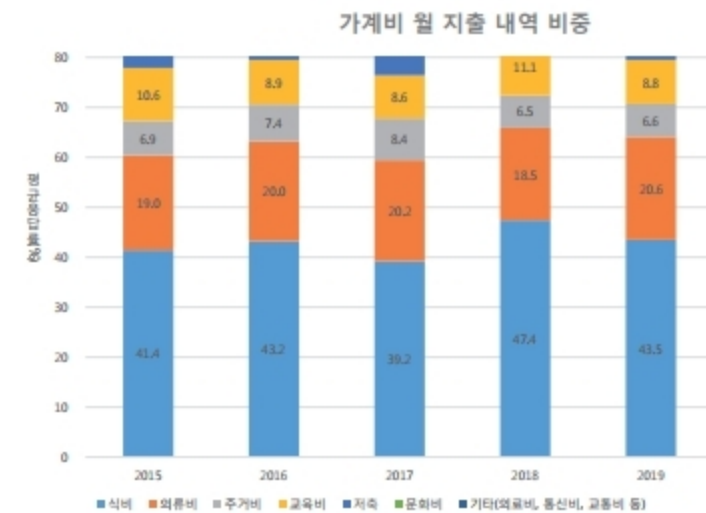
- 재북 시 휴대전화 보유 응답률 62.9% (※ field survey인 MICS의 66.4%와 근접 결과)
- 휴대전화 사용의 주요 용도는 '장사 또는 사업' 응답이 절반 이상 차지
- 연령대별 휴대전화 용도 차이: 연령 높을수록 '장사 또는 사업' 용도 비중 높고, 젊은 층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과 오락 용도 비중 높음

###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 컴퓨터



- 김정은 정권 내내 현대화, 정보화 정책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컴퓨터 이용 경험 및 공공기관 접근성은 낮은 수준
-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 이용 경험 비율 높고, 50대 이상의 경우는 매우 낮아 세대간 정보격차가 매우 큼
- 단속과 휴대에 용이한 노트북 자가 보유 증가로 컴퓨터 이용 장소는 공공기관보다는 본인 집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월 지출 내역



- 가계지출 중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경제 구조 지속
- 저개발국가의 가구 소비 지출 구조
- 의류비, 문화비, 기타비용(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어 소비생활이 다변화
- 교육비는 전년대비 감소

###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 인트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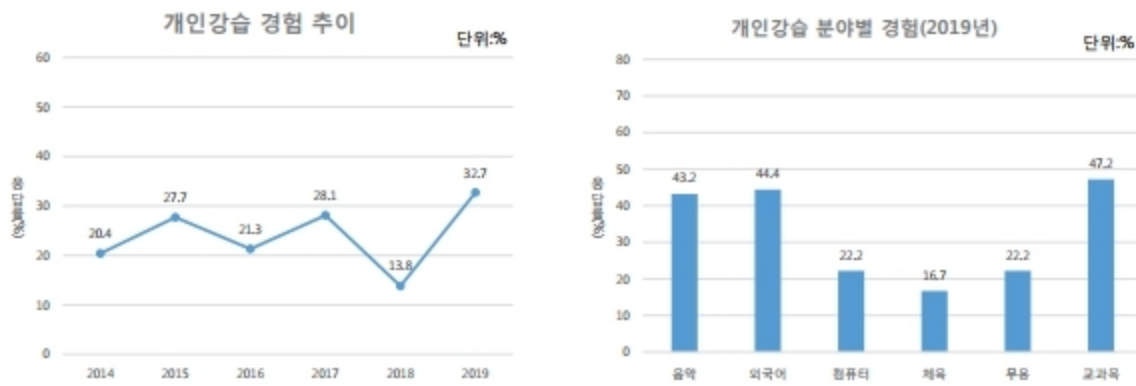
- 정보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일상적 정보 접근은 매우 낮은 수준
- 국가망(광명)의 전국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전국의 전자도서관 및 과학기술보급실 등 인트라넷 연결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 경우 인트라넷 실제 경험 거의 부재
- 이용 장소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응답함. 정보화가 평양 및 대도시, 정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특정 산업 부문 등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

###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남한 물건 사용 경험



- 지난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 크게 증가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와 소비가 다시 상승
- 남한상품 중 의류 경험 비율이 가장 높고, 식품, 잡화(신발, 화장품, 액세서리 등), 전자제품 순으로 응답

###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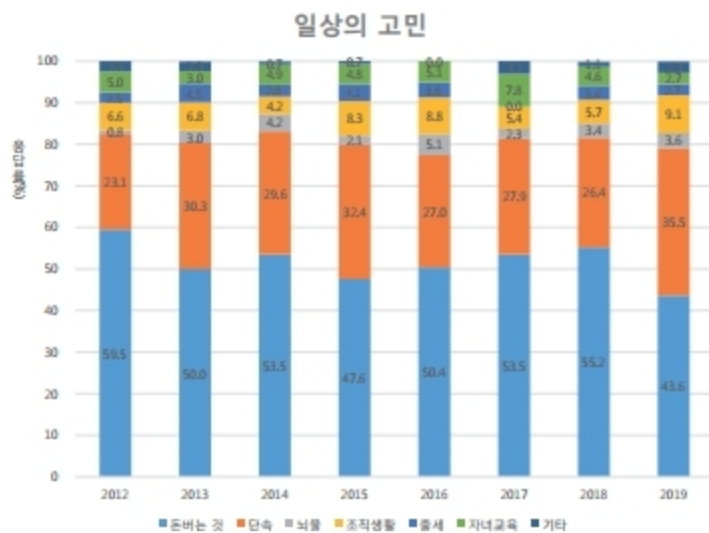


- 자녀의 개인강습(사교육) 경험 비율 전년대비 크게 올라 32.7%로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 수학, 물리, 화학 등과 같은 교과목의 개인강습 응답률이 가장 높게 조사
- 김정은 정권에서 '국제화' 강조로 외국어 개인강습 응답률이 두번째로 높음
- 음악, 컴퓨터, 무용, 체육 순으로 응답

###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 계층(주관적 계층의식)의 구성과 특징
  - 탈북 직전 기준으로 주관적 계층 상층 14.8%, 중층 60.9%, 하층 24.3%
  - 전년대비 상층과 중층의 비중 높아짐 (2018년 상층 12.6%, 중층 55.2%, 하층 32.2%)
  - 2018년 제외하면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상층의 비중은 증가, 중층과 하층 비중은 감소 추세
  - 비공식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구간 (월소득 백만 원 초과)에서 계층 간 격차 크게 발생
  - 월 비공식 소득 100만원 초과외 비중이 상층 35.3%, 중층 24.3%, 하층 14.3%
- 교육수준과 직업은 소득 및 계층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

###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일상의 고민



- 돈 버는 것(소득)이 일상적 고민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구조 지속
- 그러나, 2019년 조사에서는 돈버는 것(소득)의 응답률이 전년대비 11.6%p 감소
- 전년대비 단속에 대한 고민이 크게 증가, 단속은 보안원, 보위부의 각종 단속(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 의미
-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필수 활동이 증가한 가운데 단속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 뇌물의 일상화로 인해 의식적인 부담감이 크지 않은 듯.
- 조직생활에 대한 응답률이 전년대비 증가, 사교육 증가 추세에 비해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 비중은 크지 않음

###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식생활

	상층	중층	하층
가족 모두 원하는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 섭취	64.7	47.1	14.3
가족 모두 충분한 양이나 다양한 종류 음식 섭취 못함	35.3	45.7	46.4
가끔 먹을 것이 부족	0.0	7.1	25.0
자주 먹을 것이 부족	0.0	0.0	14.3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 계층간 식생활의 양과 질 모두 확연한 차이 발생
- 상층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 모두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 섭취
- 하층은 10명 중 4명이 먹을 것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
- 공공배급제 중단 이후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식생활 수준에 큰 영향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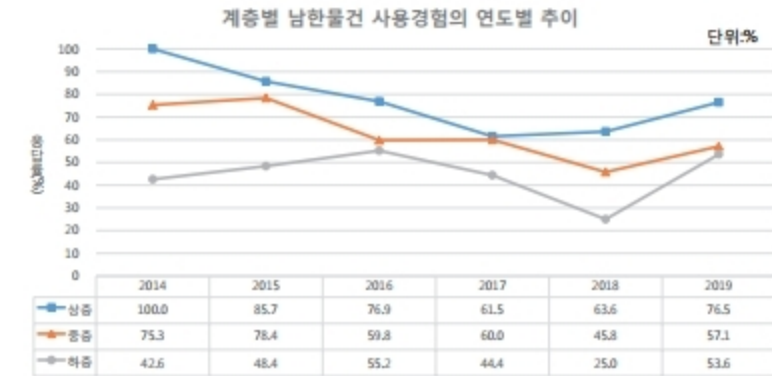


###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살림집

	상층	중층	하층
아파트	35.3	32.9	14.3
연립주택	29.4	35.7	64.3
단독주택	23.5	27.1	14.3
기타	11.8	4.3	7.2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 하층의 경우 연립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아파트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남
- 아파트의 경우 상층과 중층 간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음
- 상층과 중층 모두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여 소득 증가 추세에 비해 아파트 비중 급격히 증가 어려움

###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남한상품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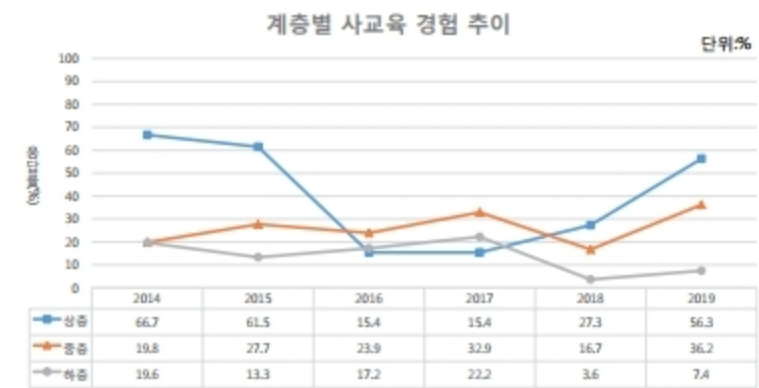
- 남한상품 경험은 계층 구분 지표로서의 기능 점차 약화
- 5.24조치 및 대북 경제제재 국면의 장기화로 남북교역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거래비용의 증가로 상층과 중층의 남한상품 사용 경험 비율이 크게 감소
- 2019년에는 전년대비 모든 계층에서 남한상품 사용경험 응답률 증가.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과 응답자의 고소득 비중의 증가

###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내구재 보유

	상층	중층	하층
TV	94.1	91.4	78.6
냉장고	58.8	32.9	10.7
전기밥솥	88.2	72.9	46.4
세탁기	29.4	20.0	7.1
CD플레이어	88.2	85.7	64.3
집전화	58.8	67.1	28.6
손전화	88.2	64.3	35.7
컴퓨터	58.8	44.3	21.4
자전거	64.7	52.9	42.9
오토바이	41.2	28.6	0.0
가축	29.4	34.3	32.1
뒷밭	29.4	41.4	35.7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 국제재산지수(IWI: International Wealth Index)에서 저가 자산(50달러 이하)에 라디오, 의자 등을, 고가 자산(250달러 이상)에 세탁기, 컴퓨터, 오토바이, 에어컨 등을 분류
- TV의 경우 계층과 상관없이 보유 응답률이 매우 높아 계층 구분할 수 있는 자산 지표로서 성격이 약함.
- 자전거 역시 계층간 보유율이 큰 차이가 없어 계층간 변별력이 낮음
- 고가 자산으로 분류되는 냉장고, 세탁기, 손전화, 컴퓨터, 오토바이 등은 계층간 격차가 뚜렷
- 내구재 보유에서 상층과 중층간의 큰 차이가 없지만, 하층과의 구별은 뚜렷
- 시장 분배체계에서 주변부에 위치하는 하층의 자산력(또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 가축과 뒷밭의 생산물은 농축산물로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층과 하층의 가축과 뒷밭 보유율 높더라도 경제적 지위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음

###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사교육 경험



- 전년대비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 경험 응답률을 증가
- 특히 상층과 중층의 상승폭이 매우 큰데, 이는 전년 대비 고소득층 응답자의 증가로 자녀 사교육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요약)

### 6. 시사점과 전망

- 경제제재, 식량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위기의 시그널은 발견되지 않음
- 2018년 곡물, 밀가루, 식료품 수입 증가와 시장 곡물가격 안정세 유지\*로 식생활 큰 타격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올해 조사에서는 동물성단백질 섭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지만, 올해 북한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내년 조사에서는 고기 섭취율 다소 감소 전망
- FAO(세계농업기구)는 최근 보고서 "Early Warning Early Action Report on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Oct./Dec. 2019)에서 가뭄과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생산 저조로 2019년 1천1백만 명(전체 인구의 40%)이 식량불안에 처할 수 있다고 예고해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 시급
- 김정은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의 결과가 주민 생활 변화에 나타나, 국산(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2015년 3.6%→2019년 18.9%)
- 가구(家口) 보유 자산(살림집 내구재)의 경우 저소득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과 달리 저가 자산보다는 고가 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
- 국가의 전기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자가발전체계(주로 태양광)의 확대로 전기제품 보유 및 사용률이 매우 높고, 개인이동 수단이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빠르게 전환
- 경제변화로 문화변동, 북한 부유층의 신(新)결혼 풍속도 등장: 혼수품 '5장6기\*\* → '손.오.공.아(손전화기, 오토바이, (대학) 교부 뒷바라지, 아파트)로 변화 중

\*KREI, 북한농업동향 21권2호,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 참고

\*\*5장 6기: 5장=이불장, 양복장, 장식장, 책장, 전장 6기=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녹음기

정은미 (통일연구원)

### 1. 의식주 실태와 변화

#### 가. 식생활 실태

- 1) 2015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하루 세끼 이상의 식사를 했다는 평균 응답률이 87.9%로 식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반대로 같은 시기 결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 한국은행 자료('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18년 농림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량 가격 안정과 식료품 수입 증가로 식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3) 주식으로 '거의 입쌀'을 먹었다는 응답률이 전년 대비 2019년 조사에서는 크게 증가(45.3%→69.0%)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쌀 시장가격의 안정과 소득 증가 등으로 식생활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섭취량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주일 한두 번" 고기 섭취 응답률 46.6%, "거의 매일" 섭취 응답률 15.5%로 합하여 62.1%로 상당한 변화를 보임
- 5) 전반적인 식생활 평가를 보면, "가족 모두 충분한 양과 질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이 지난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26.4%→41.4%), 반면 식생활이 취약("가끔 부족" & "자주 부족")했던 응답자는 10명 중 1명 정도로 비중이 작은 편임

#### 나. 의생활

- 1) 전년 대비 시장(장마당)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는데(90.8%→88.8%), 이는 유통 부문의 다변화로 시장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의 비중이 6.9%, 국영상점(직매점 포함)의 비중은 3.4%로 나타남
- 2) 지난 3년 동안 북한산 비중은 증가세(9.5%→15.9%→18.9%)가 뚜렷하지만, 중국산 비중은 감소세(86.5%→82.9%→73.0%)를 보여 대조적 결과를 나타냄
- 3) 김정은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으로 소비품의 국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다. 주거생활

- 1) 전년 대비 아파트의 비중은 12.6%에서 28.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중은 감소함

### 6. 시사점

- 소득 격차로 계층화 양상 뚜렷, 빈부격차, 도-농 간 불평등, 부패의 증가는 향후 북한 발전의 주요 장애 요소가 될 것
- 김정은 정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 특히 정보화 정책(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교육혁신, 경제현대화·정보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정보화 수준은 제한적이고 부문적임
- 2015년 이후 국산 단말기 양산체제가 갖춰진 후 휴대전화 보유율은 빠르게 증가, 그 외에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음
- 특히, 세대 간 정보 격차가 매우 크고, 정보 네트워크의 개방 수준이 매우 낮음
- 휴대전화 용도 차이 뚜렷, 20대의 경우 일상적 소통과 오락용 비중 높은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장사 또는 사업일' 용도 비중이 대부분 차지
- 컴퓨터 이용 경험 세대 차이 매우 큼 (20대 44.9%, 30대 26.5%, 40대 24.5%, 50대 4.1%, 60대 이상 0.0%)
- 정보화가 계층 간, 도-농 간, 공공-민간 간 매우 불평등하고 분절적으로 진행
-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 의한 효과가 주민 생활에 즉각적으로 나타남(남한 물건 사용 경험 2018년 41.4%→2019년 59.5%)

- 2) 북한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도는 높으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여전히 연립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음
- 3) 살림집을 장만한 방법으로 “내 돈 주고 구매”한 응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39.3%→58.6%), 사적 거래에 의한 주택 마련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활성화 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4) 살림집을 “직접 건축”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16.7%→5.2%), 이는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건축자재 수입이 감소한 무역환경의 변화와도 관계있음

## 2. 가구 내구재 보유 현황과 비교

### 가.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

- 1) 살림집 내구재 항목은 유니세프에서 2018년 발표한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의 항목과 일치함
- 2) 보유율이 높은 것은 TV(88.8%), CD플레이어(81.0%), 전기밥솥(69.0%), 휴대전화(61.2%), 집전화(56.9%), 자전거(52.6%) 등 순으로 나타남
- 3) 가구 내 자가발전체계(태양광+축전지)가 구축되면서 국가의 전력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기제품 보유율이 높은 편이지만,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상수도 인프라 낙후로 냉장고와 세탁기의 보유율은 낮은 편임

### 나. 살림집 내구재 현황과 관련 국제조사와의 비교

- 1)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한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 결과와 IPUS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CD플레이어, 휴대전화의 보유 응답률은 두 조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2) 하지만 자전거 보유 응답률은 MICS에서 더 높게, 오토바이 보유 응답률은 IPUS에서 더 높게 나타남. 개인 이동 수단이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전환하고 있음
- 3) 가축과 텃밭의 보유 응답률은 MICS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는 IPUS에서 더 높게 나타남

##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 1) 휴대전화의 보유 응답률은 62.9%로 MICS에서 조사된 66.4%와 근접한 수준임. 휴대전화 사용 용도는 ‘장사 또는 사업일’ 응답이 절반 이상(5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대별 뚜렷한 차이를 보임. 20대의 경우는 일상적 소통과 오락용 비중 높지만, 40대 이상부터는 ‘장사 또는 사업일’ 용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
- 2) 김정은 정권에서 현대화, 정보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컴퓨터 이용 경험(응답률 44.0%)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 이용 경험률이 높고, 50대 이상의 경우는 매우 낮아 세대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연령별 컴퓨터 경험 응답률: 20대 44.9%, 30대 26.5%, 40대 24.5%, 50대 4.1%, 60대 이상 0.0%)
- 3) 단속과 휴대에 용이한 노트북 자가 보유 증가로 컴퓨터 이용 장소가 공공기관(2.0)보다는 본인 집의 비중(84.3%)이 압도적으로 높음

- 4) 정보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일상적 정보접근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국가망(광명)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한 전국의 전자 도서관 및 과학 기술 보급실이 인터넷에 연결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 경우 인터넷 실제 경험(6.9%)은 거의 부재함
- 5) 인터넷 이용 장소 대부분은 공공기관으로 정보화가 평양 및 대도시, 정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특정 산업 부문 등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 1) 월 지출내역 중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43.5%)을 차지하고 있어 저개발국가의 가구 소비 지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의류비, 문화비, 기타비용(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어 소비생활이 다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 2) 남한 물건 사용 경험 응답률이 지난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41.4%→59.5%),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활발해지면서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와 소비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임
- 3) 남한 상품 중 의류의 비중(67.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식료품, 잡화(신발, 화장품, 액세서리 등), 전자제품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남
- 4) 자녀의 개인강습(사교육) 경험률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 32.7%로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수학, 물리, 화학 등과 같은 교과목의 개인강습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음악, 컴퓨터, 무용, 체육 순으로 나타남
- 5) 일상의 고민에서는 “돈 버는 것”, 즉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11.6%p 감소함
- 6) 반면 단속(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에 대한 보안원, 보위부의 단속)에 대한 고민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밀수 활동이 증가한 가운데 단속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 7) 뇌물이 일상화되어 의식적인 부담감이 높은 편은 아닌 듯 보이며, 조직 생활에 대한 응답률이 전년 대비 증가함

##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 가. 계층의 구성과 특징

- 1) 탈북 직전 기준으로 주관적 계층으로 상층 14.8%, 중층 60.9%, 하층 24.3%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상층과 중층의 비중은 높아짐 (2018년 상층 12.6%, 중층 55.2%, 하층 32.2%)
- 2) 비공식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구간(월 소득 백만 원 초과)에서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월비 공식 소득 100만 원 초과 비중은 상층 35.3%, 중층 24.3%, 하층 14.3%로 나타남
- 3) 교육수준과 직업은 소득 및 계층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있음.

### 나. 계층별 의식주 생활 비교

- 1) 계층 간 식생활의 양과 질 모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층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 모두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다고 응답했으나, 하층은 10명 중 4명이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함
- 2) 하층의 경우 연립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아파트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상층과 중층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수요보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여 소득 증가 추세에 비해 아파트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3) TV의 경우 계층과 상관없이 보유 응답률이 매우 높아 계층 변별력이 약함. 개인 이동 수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전거 역시 계층 간 보유율에 큰 차이가 없어 계층 변별력이 낮음.
- 4) 국제재산지수(IWI: International Wealth Index)에서 고가 자산(250달러 이상)으로 분류되는 냉장고, 세탁기, 손전화, 컴퓨터, 오토바이 등에서는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시장 분배체제에서 주변부에 위치하는 하층의 자산력(또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5) 가축과 텃밭의 생산물은 농축산물로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공산품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층과 하층의 보유 비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지위 상승효과는 크지 않음.

## 6. 시사점과 전망

- 1) 경제제재, 식량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위기의 시그널은 발견되지 않음 2018년 곡물, 밀가루, 식료품 수입 증가와 시장 곡물가격 안정세 유지<sup>1)</sup>로 식생활에 큰 타격 없는 것으로 분석됨
- 2) 올해 조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지만, 올해 북한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내년 조사에서는 고기 섭취율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3) FAO(세계농업기구)는 최근 보고서 "Early Warning Early Action Report on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Oct./Dec. 2019)에서 가뭄과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생산 저조로 2019년 1천1백만명(전체 인구의 40%)이 식량불안에 처할 수 있다고 예고해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4) 김정은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의 결과가 주민 생활에 나타남. 예를 들어, 국산(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2015년 3.6%→2019년 18.9%). 또한 2018년 남북관계 개선 효과가 주민 생활에 즉각적으로 나타남(남한 물건 사용 경험 2018년 41.4%→2019년 59.5%).
- 5) 가구(家口) 보유 자산(살림집 내구재)의 경우 저소득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과 달리 저가 자산보다는 고가 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임. 국가의 전기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자가발전체제(주로 태양광)의 확대로 전기제품 보유 및 사용률이 매우 높고, 개인 이동 수단이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6) 경제변화로 문화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북한 부유층의 결혼 풍속도가 변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혼수품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5장 6기'<sup>2)</sup>에서 '손.오.공.아(손전화기, 오토바이, (대학) 공부 뒷바라지,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음

- 7) 소득 격차로 계층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빈부격차, 도-농간 불평등, 부패의 증가가 향후 북한 발전의 주요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8) 김정은 정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 특히 정보화 정책(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교육혁신, 경제 현대화-정보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정보화 수준은 제한적이고 부문적임
- 9) 2015년 이후 국산 단말기 양산체제가 갖춰진 후 휴대전화 보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에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태임. 특히, 세대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고, 정보 네트워크의 개방 수준이 매우 낮음
- 10) 정보화가 계층, 도-농, 공공-민간에서 매우 불평등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1) KREI, 북한농업동향 21권2호, KDI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 참고.

2) 5장 6기는 5장으로 이불장, 양복장, 장식장, 책장, 찬장과 6기로 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녹음기를 가리킴.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사회변동:

## 시장화와 경제적 자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강 채 연

## CONTENTS

### I. 계층분화와 시장화

- 1. 주민계층구조에 대한 인식(상중하)
- 2. 주요 도시 및 도별 계층분화
- 3. 직업에 따른 계층분화

### II. 시장화와 사회경제성

- 1. 시기별 생활수준의 변화(상중하)
- 2.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 3. 일상생활에서의 고민

### III. 시장의 연속성과 경제적 자유

- 1. 고수입원천과 제약요소
- 2. 경제적 자유와 제반조건

### IV. 경제개혁과 경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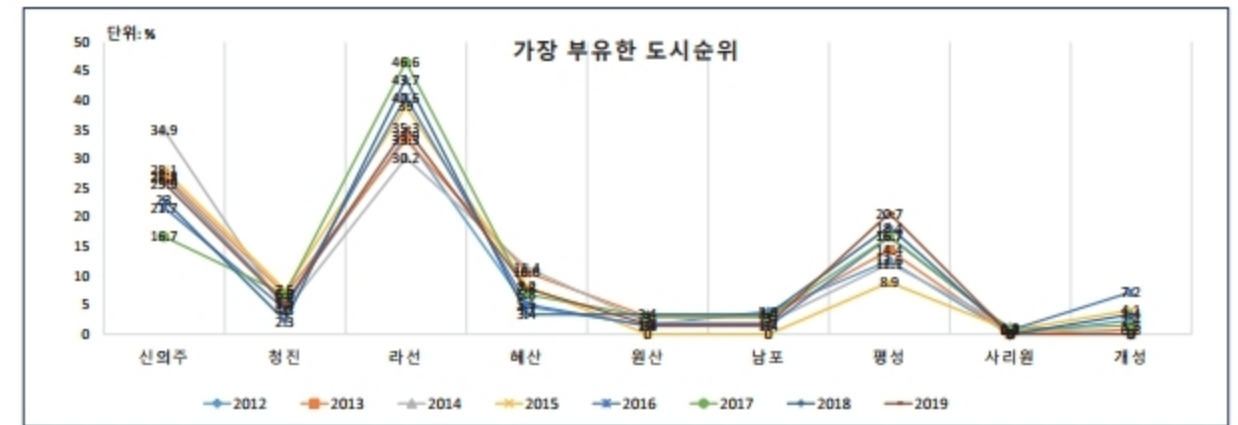
- 1.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
- 2.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

### V. 결론

# I. 계층분화와 시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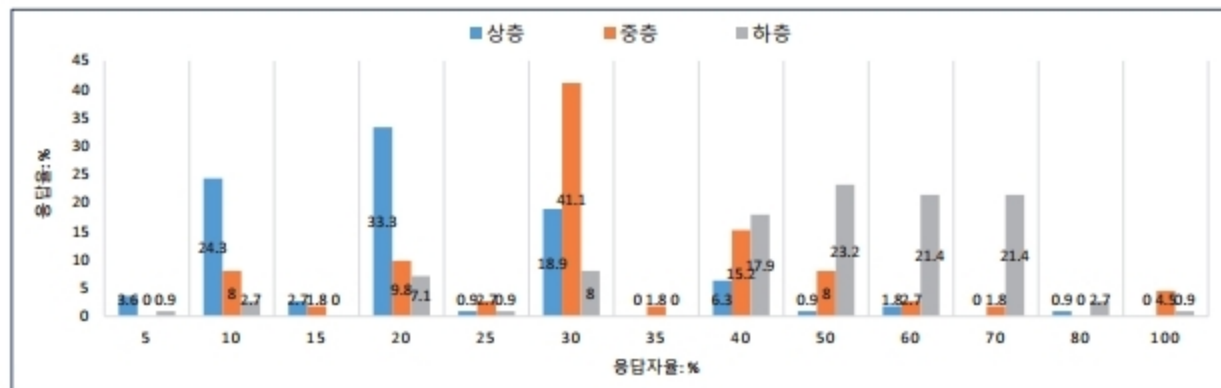
## 2. 주요 도시 및 도별 계층분화

### 2-1. 도시별 계층분화



2019년 현재 가장 부유한 도시순위는 나선(35.3%)-신의주(25.9%)-평성(20.7%)순임.  
 나선시는 2017년(46.6%)에서 11.3%로 하락, 신의주는 2014년(34.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16.7%)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음.  
 평성시도 2012년(12.6%)에서 2015년(8.9%)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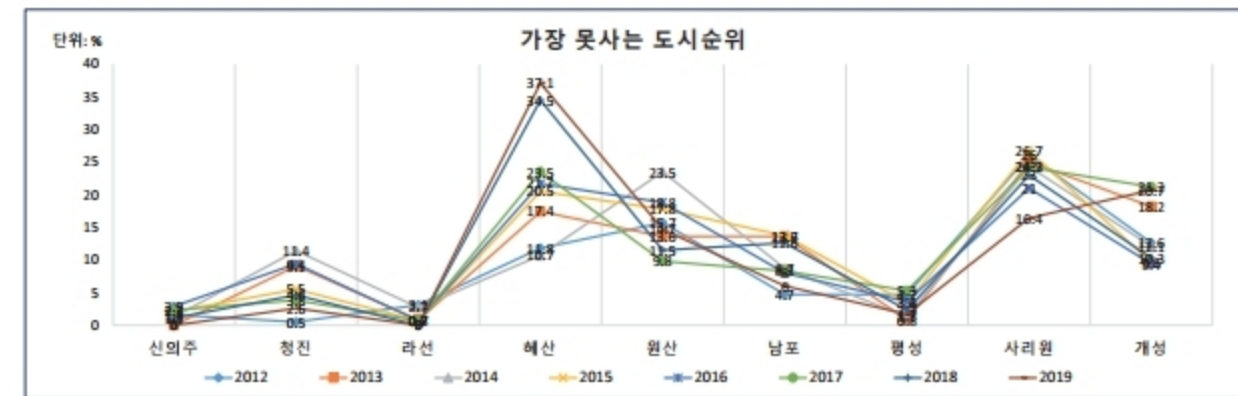
## 1. 주민계층구조에 대한 인식(상/중/하)



현재 약 20%의 응답자들이 상층을 33.3%로 가장 높게 보고 있음.  
 30%의 응답자들은 중층을 41.1%로 보고 있음.  
 대체로 많은 응답자들이 상층이나 중층에 비해 하층을 보다 높게 보고 있음.

## 2. 주요 도시 및 도별 계층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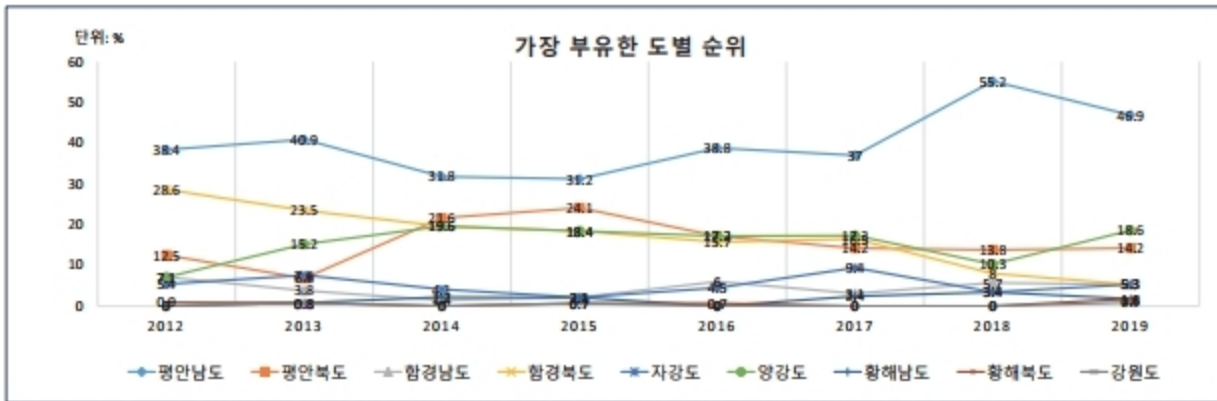
### 2-1. 도시별 계층분화



가장 못사는 도시순으로는 혜산시(37.1%)-개성(20.7%)-사리원(16.4%)-원산(14.7%)순임  
 주목할 것은 혜산시가 2012년 이후 하위도시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임. 개성시는 전년도 대비 10.4%이상 증가함.  
 사리원시는 오히려 열악한 도시에서 전년대비 6.4% 감소하고, 원산시도 소폭(3.4%) 하락함.

## 2. 주요 도시 및 도별 계층분화

### 2-2. 도별 계층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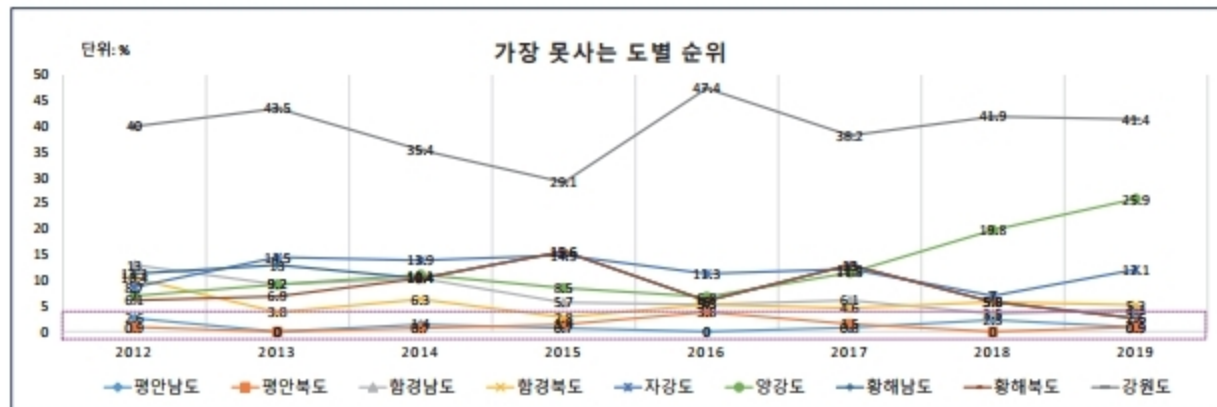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 도별 계층분화에서 큰 차이가 있음.

2019년 현재, 가장 부유한 도별 순위는 평안남도(46.9%)·양강도(18.6%)·평안북도(14.2%)순임.

평안남도도 전년대비 8.3%로 떨어진 상태이고, 함경북도는 2012년(28.6%)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 5.3%임

## 2. 주요 도시 및 도별 계층분화

### 2-2. 도별 계층분화



가장 못사는 도별순위로는 강원도가 1위(41.4%)로 가장 높고, 양강도가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있는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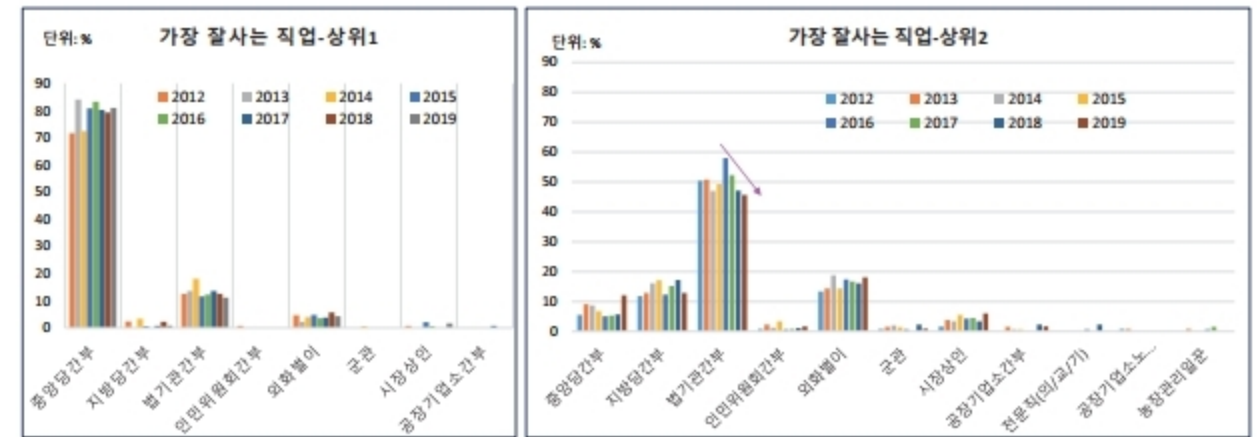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강원도는 2016년도에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건설 시작)

상대적으로 자강도는 전해에 비해 5.1%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남.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평안남도가 압도적이었으나, 이 결과에서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약간의 차이로 서로 엇갈리고 있음.

## 3. 직업에 따른 계층분화

### 3-1. 가장 잘사는 직업 상위(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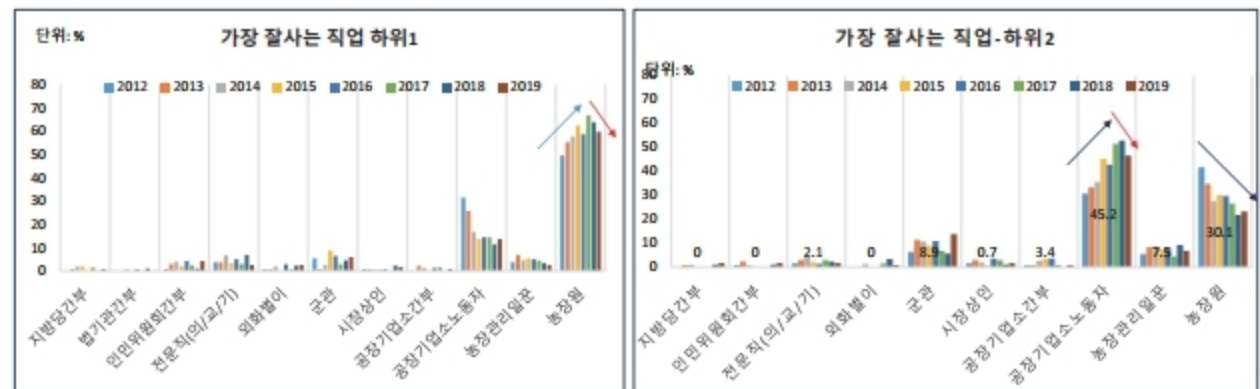


현재까지 가장 잘사는 직업 상위 1순위는 중앙당간부·법기관 간부 순임, 2순위는 법기관간부·외화벌이업자·지방당간부 순임.

중앙당간부는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데 비해, 법기관 간부는 2016년 이래로 지속 하락하고 있음.

## 3. 직업에 따른 계층분화

### 3-2. 가장 잘사는 직업 하위 (1순위/2순위)



가장 잘사는 직업 하위 1위로는 농장원으로 2017년(66.7%)를 기점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임.

하위 2위에서는 2012년 이래 공장기업소노동자가 지속 상승한데 비해, 농장원은 줄어드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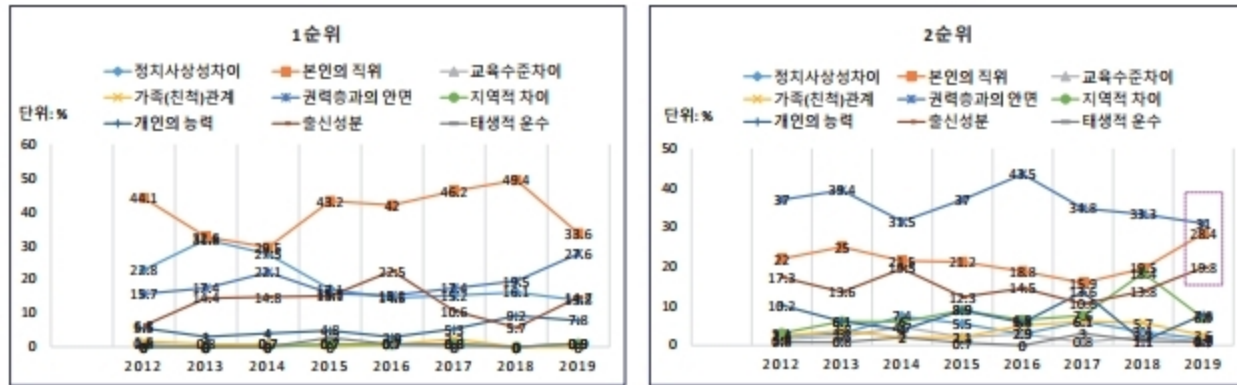
농장원 41.7%(2012)->23.3%(2019)로 55.8% 줄어들어.

노동자 30.7%(2012)->51.5%(2016), 52.9%(2017)로 증가하다가 46.6%(2019)로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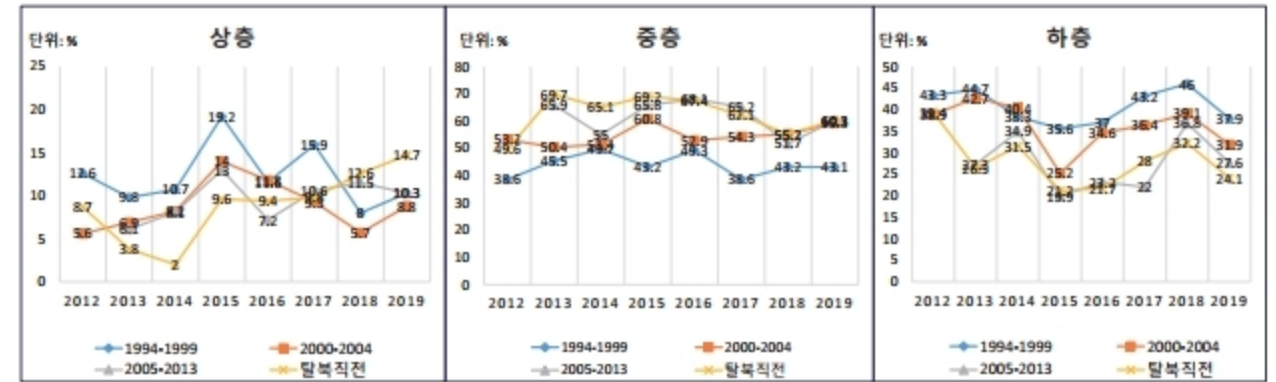
### 3. 직업에 따른 계층분화

#### 3-3.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 계층분화 이유의 1순위는 2014년 이전까지 본인의 직위-정치사상성-권력층과의 안면-출신성분 순이었으나, 2015-16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 주목됨  
 2016년 출신성분 압도, 2018년 하락, 다시 올해 급등+ 권력층과의 안면이 다시 증가하는 반면, 정치사상성은 떨어지고 있음.  
 - 계층분화의 2순위는 권력층과의 안면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편임.

### 1. 시기별 생활수준의 변화(상-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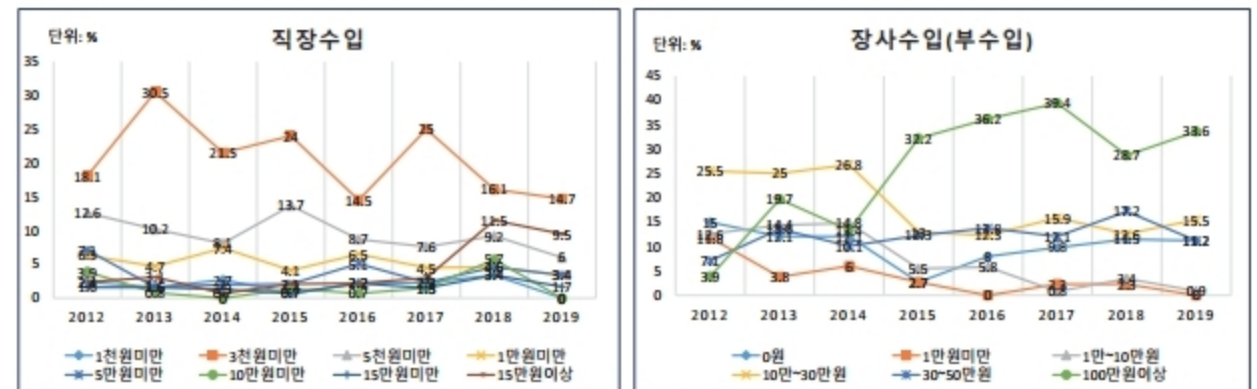


- 소수이지만, 2017년 이전까지는 1990년대 상층비율이 더 높았고, 그 이후는 탈북 직전의 상층비율이 더 높음(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 중층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7년부터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하층비율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II. 시장화와 사회경제성

### 2.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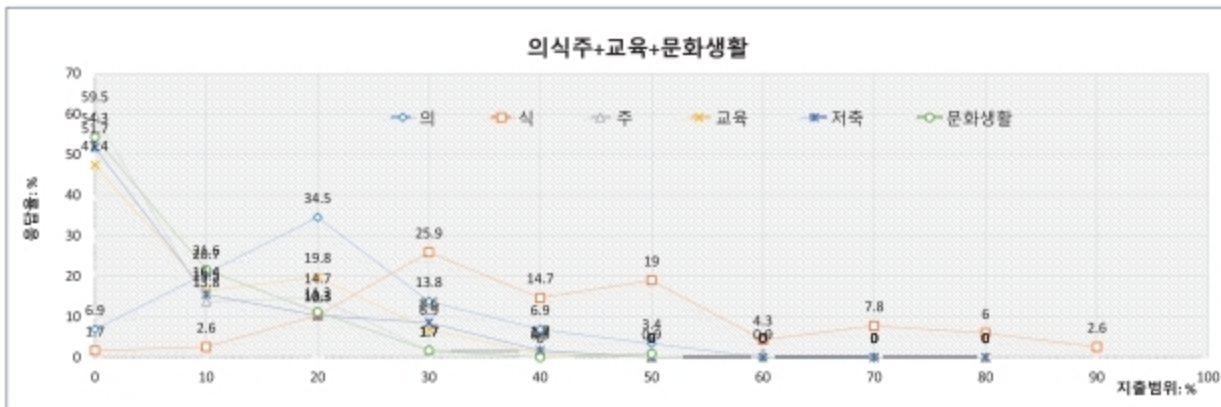
#### 2-1. 직장 및 장사 수입비교



직장수입으로는 3천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2013년 30.5%에서 2018년에 이어 연속 하락.  
 대신 100만원(한화 약 350만원)이상 장사수입이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 상승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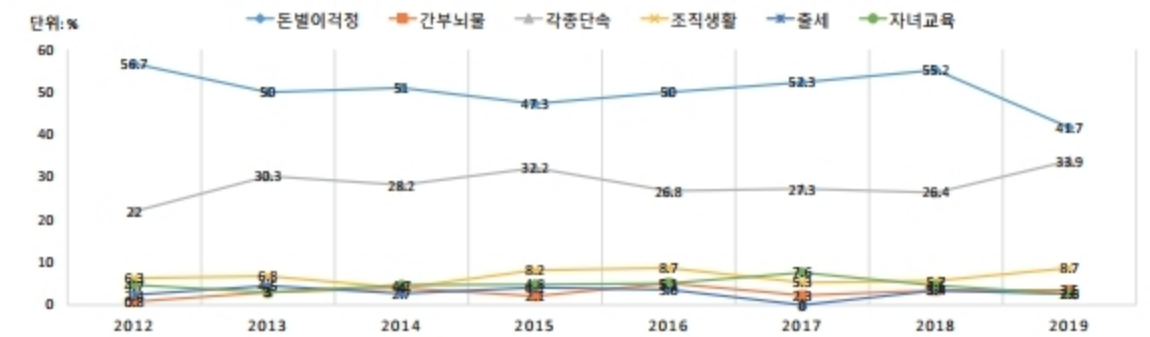
## 2.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 2-2. 월평균지출 정도



주민의 약 50%이상은 주택, 문화생활, 저축, 교육 순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민의 약 10%가 문화생활에 20%이상 지출하고 있고, 대부분은 문화생활 지출비용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민의 20%는 의류에 34.5% 지출할 경우, 교육에도 14.7%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민의 30%는 식생활에 25.9% 지출할 경우, 의류(13.8%)·교육(6.9%)·저축(8.6%)순으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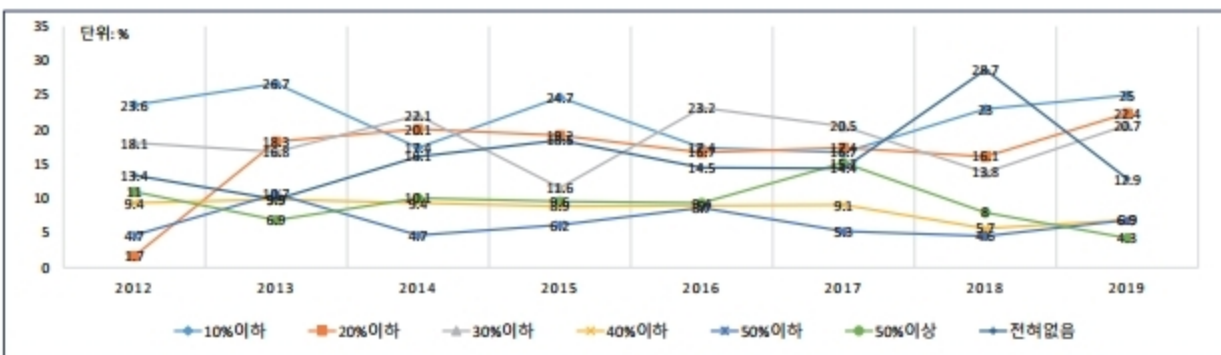
## 3. 일상생활에서의 고민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은 돈벌이걱정-각종단속-조직생활-자녀교육 순임, 상대적으로 돈벌이나 단속에 비해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 약 40~50%이상 낮다는 것이 특징.  
 돈벌이 걱정은 2018년에 비해 13.5% 크게 감소하고, 각종 단속에 대한 걱정이 7.5%로 증가함. 이는 2018년에 비해 시장이 비교적 활기를 되찾으면서 대신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2.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 2-2. 수입 중 뇌물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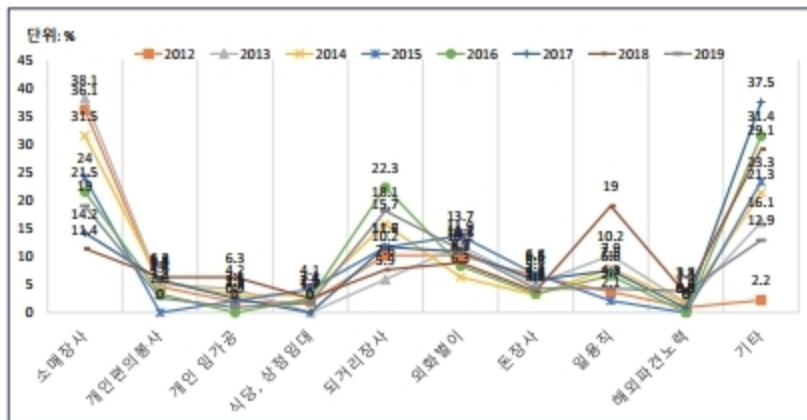


현재 수입 중의 약 10~30%는 뇌물비중으로 전년 대비 20~30% 범위가 4%이상 증가한데 비해 <전혀 없음> 비중이 15.8%로 크게 감소함.

# Ⅲ. 시장의 연속성과 경제적 자유

### I. 고수입원천과 제약요소

#### I-1. 고수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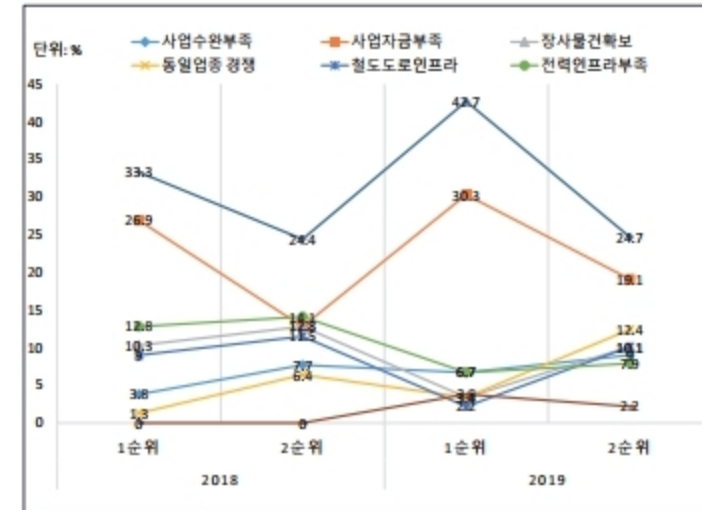


- 소매장사(시장 매대장사, 달리기, 행방 등)  
 - 개인판매봉사(이동 미용사, 전자제품수리공, 짐수리공)  
 - 개인 임가공(의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 수공업)

- 2019년 설문에서 고수입원은 소매장사(19%)·도매장사(18.1%)·외화벌이(11.2%)순입  
 - 2018년 일용직(19%)·소매장사(11.4%)·퇴거리장사(7.6%)인 것에 비해 일용직이 14.7% 크게 감소하였음.  
 - 소매장사는 2013년 이후 큰 폭(19.1%)으로 연속 하락하고 있고, 퇴거리장사도 2016년 22.3%를 기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음.  
 - 고수입원이 없는 비율은 2017년(37.5%)에 비해 2019년(12.9%)에 들어 14.6% 감소함.

### I. 고수입원천과 제약요소

#### I-3. 고수입원 애로사항



- 고수입원을 확보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1순위/2순위 모두 법기관 단속 뇌물로 2018년에 비해 9.4% 증가함.  
 - 두번째로 어려움은 사업자금부족으로 1순위/2순위 모두 지적된다. 전년대비 3.4% 상승함.  
 - 2순위에서 전력 인프라 부족은 2018년(14.1%)에 비해 절반 가량 낮아졌으나, 동일업종과 수입상품에 따른 경쟁률은 전년대비 6%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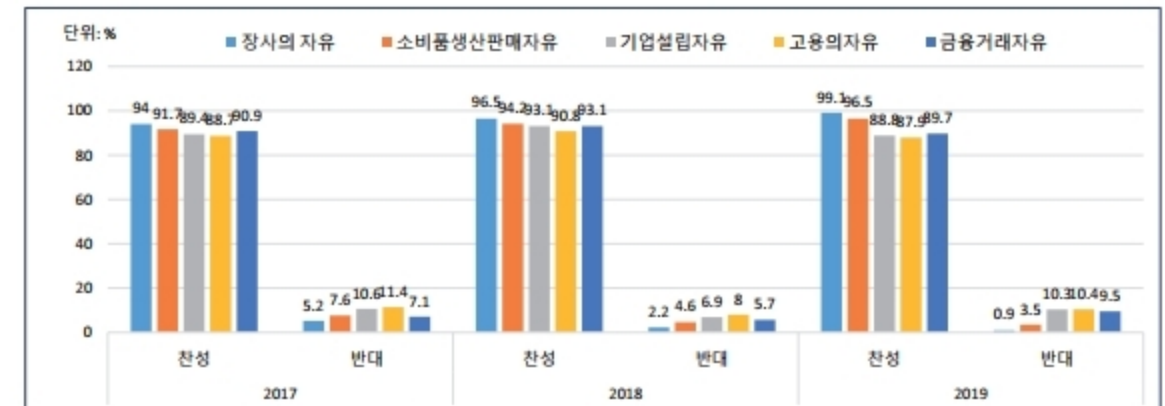
### I. 고수입원천과 제약요소

#### I-2. 고수입원 원산지



고수입원 원산지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순위로는 약 50% 이상이 중국산이고, 20~30% 이상이 북한산임, 그 뒤를 남한산이 따르고 있음(2019년 4.7%로 증가)  
 북한산은 2012년 18.7%에서 2018년 42.9%를 기록했고, 2019년에 들어 11.5% 감소함. 그러나 2013년 3월 경공업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국산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  
 역시 국내 대상별로는 도매시장·밀수·무역회사 순으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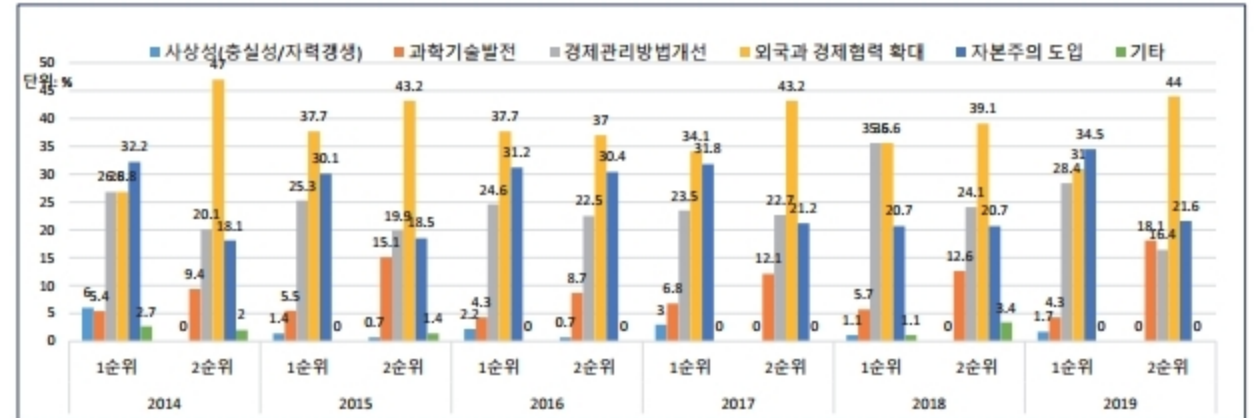
### 2. 경제적 자유와 제반조건



5대 자유에 대한 찬성은 전체적으로 80% 이상으로 약 100%에 가깝게 높음. 대체적으로 장사의 자유·소비품생산 및 판매자유·금융거래자유·기업설립자유·고용의 자유 순이지만, 2018년에 비해 기업설립과 고용, 금융거래, 등을 반대하는 비율도 증가함. 특히 <금융거래의 자유>를 반대하는 비율은 3.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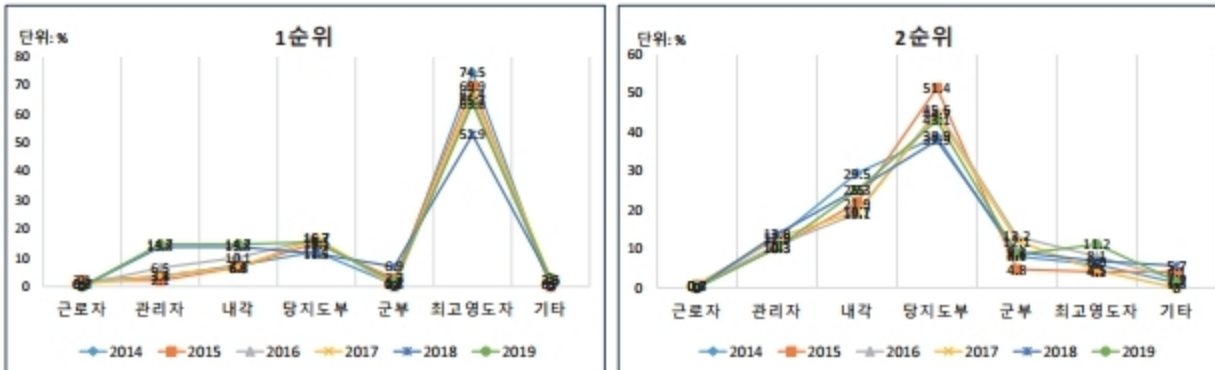
# IV. 경제개혁과 경제발전

## 2.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



1순위/2순위 대부분 <외국과의 협력>을 압도적으로 중시하고 있음. 다만 2014년과 2019년에서 1순위는 <자본주의 도입> 임. 올해 2순위에서 <외국과의 협력>은 2014년 이후 최고치(44%)임.  
 <경제관리개선방법>은 2018년 35.3%로 최고율을 보였지만, 2019년 6.8% 하락함. 전체적으로 경제관리개선은 외국과의 협력, 자본주의 도입에 우선하지 않음.

## I.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근로자: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 관리자: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 내각: 총리, 상, 국가계획위원장, 등

북한 경제가 가장 어려운 순위 1순위는 <최고영도자>이고, 2순위는 당지도부-내각관료-관리자 순임.  
 1순위에서 <최고영도자>는 전년대비 10.9%로 증가한 데 비해, <관리자>는 9.8%로 하락하였음. <군부>도 전년대비(6.9%) 1.7%로 하락함.  
 2순위에서도 <당지도부>는 5.2% 증가한데 비해, <관리자>와 <내각>은 각각 3.5%, 0.3%로 소폭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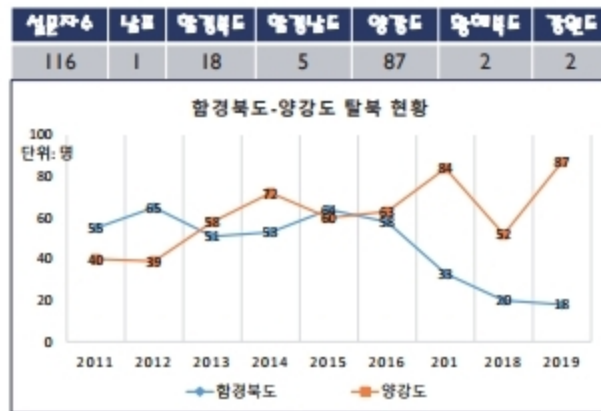
# V. 결론

# 시장화와 경제적 자유(요약)

강채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1. 북한사회변동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설문자들의 지역별 분포에 따른 불균형성임.

따라서 표본의 신뢰성과 그에 따른 함의에는 약간의 의문을 줄 수 있으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혜산시는 전국의 도매시장들을 공약한다는 점이 정보교환의 가능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음).



## 2. 북한에서 시장화는 주민들의 계층분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1990년대에 비해 상층과 하층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중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는 점.

## 3. 혜산, 개성은 하위도시로 연속 하락하는 반면, 사리원과 원산시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도별 순위에서 강원도와 양강도가 1, 2순위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데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백두산-삼지연 건설 등 개발정책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 2012년 이후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직업이 하위 직업으로는 비교적 잘사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농장원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와 같은 경제정책들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5. 시장화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육이나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출은 약 50% 이상이 꺼려함.

## 6. 북한 경제개혁의 우선순위는 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는 외국기업과의 협력확대, 자본주의 도입이 급선무로 보임.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행정경제일꾼들보다는 최고지도자나 당지도부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1. 계층분화와 시장화

가. 북한주민의 일반적인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은 30%를 전후로 중층과 상층으로 구분됨. 현재 약 20%의 응답자들이 상층을 33.3%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30%의 응답자들은 중층을 41.1%로 보고 있음. 대체로 많은 응답자들이 상층이나 중층에 비해 하층을 보다 높게 보고 있음

나. 2019년 현재로 가장 부유한 도시순위는 나선(35.3%)-신의주(25.9%)-평성(20.7%)순이고, 가장 못사는 도시순위는 혜산시(37.1%)-개성(20.7%)-사리원(16.4%)-원산(14.7%)순임

1) 나선시는 2017년(46.6%)에서 11.3%로 하락, 신의주는 2014년(34.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16.7%)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음. 평성시도 2012년(12.6%)에서 2015년(8.9%)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임

2) 주목할 것은 혜산시가 2012년 이후 하위도시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임. 개성시는 전년도 대비 10.4%이상 증가함. 사리원시는 오히려 열악한 도시에서 전년대비 6.4% 감소하고, 원산시도 소폭(3.4%) 하락함

다. 2019년 현재로 가장 부유한 도별 순위는 평안남도(46.9%)-양강도(18.6%)-평안북도(14.2%)순이고, 가장 못사는 도별 순위로는 강원도가 1위(41.4%)로 가장 높고, 양강도가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

1) 평안남도는 전년대비 8.3%로 떨어진 상태이고, 함경북도는 2012년(28.6%)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 5.3%임. 상대적으로 자강도는 전해에 비해 5.1%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남

2)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평안남도가 압도적이었으나, 이 결과에서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약간의 차이로 서로 엇갈리고 있음

3) 가장 못사는 도별순위는 양강도가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에는 40%선을 넘어섬. 이는 2015년 착공된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건설에 대한 피로감으로 분석됨

라. 현재까지 가장 잘사는 직업 상위 1순위는 중앙당간부-법기관 간부 순임이고, 하위 1순위는 농장원으로 2017년(66.7%)를 기점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임. 상위 2순위는 법기관간부-외화벌이업자-지방당간부 순이고, 하위 2위에서는 2012년 이래 공장기업소노동자가 지속 상승한데 비해, 농장원은 줄어드는 양상

1) 평안남도는 전년대비 8.3%로 떨어진 상태이고, 함경북도는 2012년(28.6%)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져 현재 5.3%임. 상대적으로 자강도는 전해에 비해 5.1%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남

- 2)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평안남도가 압도적이었으나, 이 결과에서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약간의 차이로 서로 엇갈리고 있음
- 3) 가장 못사는 도별순위는 양강도가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에는 40%선을 넘어섬. 이는 2015년 착공된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건설에 대한 피로감으로 분석됨

**마.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로는 2014년 이전까지 본인의 직위-정치사상성-권력층과의 안면-출신 성분이 1순위였으나 2015-16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음**

## 2. 시장화의 사회경제성

**가. 1990년대 이후 중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2017년부터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990년대에 상층비율이 높았던 반면, 그 이후로는 2017년에 들어서면서 상층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하층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나. 직장수입과 장사수입의 비율은 333.3%로 상당히 높고 2014년 이후 100만원(한화 약350만원)수입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1) 직장수입으로는 3천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2013년 30.5%에서 2018년에 이어 연속 하락하고 있음

**다. 북한주민의 약 50%이상은 주택, 문화생활, 저축, 교육 순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임**

- 1) 주민의 약 10%가 문화생활에 20%이상 지출하고 있고, 대부분은 문화생활 지출비용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 주민의 20%는 의류에 34.5% 지출할 경우, 교육에도 14.7%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3) 주민의 30%는 식생활에 25.9% 지출할 경우, 의류(13.8%)-교육(6.9%)-저축(8.6%)순으로 지출

**라. 현재 수입 중의 약 10~30%는 뇌물비중으로 전년대비 20~30% 범위가 4%이상 증가한데 비해 <전혀 없음> 비중이 15.8%로 크게 감소함**

**마.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은 돈벌이걱정-각종단속-조직생활-자녀교육 순임,상대적으로 돈벌이나 단속에 비해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 약 40~50%이상 낮다는 것이 특징**

- 1) 돈벌이 걱정은 2018년에 비해 13.5% 크게 감소하고, 각종 단속에 대한 걱정이 7.5%로 증가함
- 2) 이는 2018년에 비해 시장이 비교적 활기를 되찾으면서 대신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3. 시장의 연속성과 경제적 자유

**가. 북한에서 고수입원은 무역회사나 외화벌이가 아닌 시장에 있다는 것이 특징임**

- 1) 2019년 설문에서 고수입원은 소매장사(19%)-도매장사(18.1%)-외화벌이(11.2%)순임. 2018년 일용직(19%)-

소매장사(11.4%)-되거리장사(7.6%)인 것에 비해 일용직이 14.7% 크게 감소하였음

- 2) 소매장사는 2013년 이후 큰 폭(19.1%)으로 연속 하락하고 있고, 되거리장사도 2016년 22.3%를 기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음. 특별한 고수입원이 없는 비율도 2017년(37.5%)에 비해 2019년(12.9%)에 들어 14.6% 감소함

**나. 고수입원 원산지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를 북한이 따르고 있음**

- 1) 순위로는 약 50%이상이 중국산이고, 20~30%이상이 북한산임. 그 뒤를 남한산이 따르고 있음(2019년 4.7%로 증가)
- 2) 북한산은 2012년 18.7%에서 2018년 42.9%를 기록했고, 2019년에 들어 11.5% 감소함. 그러나 2013년 3월 경공업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국산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
- 3) 국내 대상별로는 도매시장-밀수-무역회사 순으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음.

**다. 고수입원을 확보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1순위/2순위 모두 법기관 단속 뇌물로 2018년에 비해 9.4% 증가함. 두번째로 어려움은 사업자금부족으로 1순위/2순위 모두 지적됨(전년대비 3.4% 상승). 2순위에서 전력인프라 부족은 2018년(14.1%)에 비해 절반가량 낮아졌으나, 동일업종과 수입상품에 따른 경쟁률은 전년대비 6%로 증가함**

**라. 5대 자유(장사의 자유, 소비품생산 및 판매의 자유, 기업설립의 자유, 고용의 자유, 금융거래의 자유)에 대한 찬성은 전체적으로 80%이상으로 약 100%에 가깝게 높음. 대체적으로 장사의 자유-소비품생산 및 판매자유-금융거래자유-기업설립자유-고용의 자유 순이지만, 2018년에 비해 기업설립과 고용, 금융거래, 등을 반대하는 비율도 증가함. 특히 <금융거래의 자유>를 반대하는 비율은 3.7% 증가함**

## 4. 경제개혁과 경제발전

**가. 북한 경제가 가장 어려운 순위 1순위는 <최고영도자>이고, 2순위는 당지도부-내각관료-관리자 순임**

- 1) 1순위에서 <최고영도자>는 전년대비 10.9%로 증가한 데 비해, <관리자>는 9.8%로 하락하였음. <군부>도 전년대비(6.9%) 1.7%로 하락함
- 2) 2순위에서도 <당지도부>는 5.2% 증가한데 비해, <관리자>와 <내각>은 각각 3.5%, 0.3%로 소폭 하락하였음

**나.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1순위와 2순위의 대부분은 <외국과의 협력>을 압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다만 2014년과 2019년에서 1순위는 <자본주의 도입> 임**

- 1) 올해 2순위에서 <외국과의 협력>은 2014년 이후 최고치(44%)임
- 2) <경제 관리 개선방법>은 2018년 35.3%로 최고율을 보였지만, 2019년 6.8% 하락함. 전체적으로 경제 관리 개선은 외국과의 협력, 자본주의 도입에 우선하지 않음

## 5. 결론

- 가. 북한에서 시장화는 주민들의 계층분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1990년대에 비해 상층과 하층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중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화로 인한 새로운 계층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
- 나. 혜산, 개성이 하위도시로 연속 하락하는데 반해, 사리원시와 원산시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장 못사는 도별 순위로 강원도 1위에 이어 양강도가 뒤따르고 있음. 경제개발구지대들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건설, 백두산·삼지연건설 등)
- 다. 2012년 이후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는 반면, 농장원들의 수준은 내려가는 것으로 보임. 이는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포전 담당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
- 라. 시장화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육이나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지출에 있어서는 50%이상이 꺼려함
- 마. 북한 경제개혁의 우선순위는 경제 관리 개선조치보다는 외국기업들과의 협력확대, 자본주의 시장 도입이 급선무임. 또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행정경제일꾼들보다는 최고지도자 및 당지도부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바. 북한사회변동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설문자들의 지역별 분포에 따른 불균형성임(양 강도 출신 탈북자는 83명으로, 전체 설문자의 54.3%임)  
따라서 표본의 신뢰성과 그에 따른 함의에는 약간의 의문을 줄 수 있으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혜산시는 전국의 도매시장들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교환의 가능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음)

##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 북한 보건의료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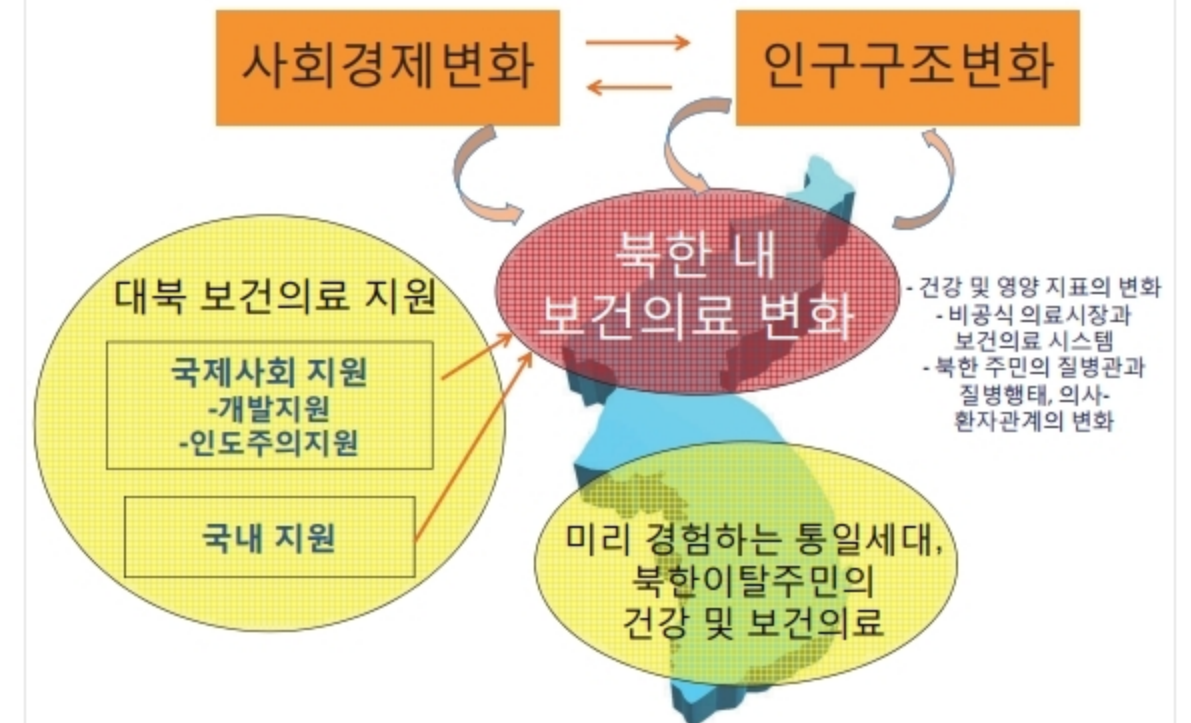


# 북한 보건의료: 북한 내 비공식 의료 시장과 북한 주민의 의료 경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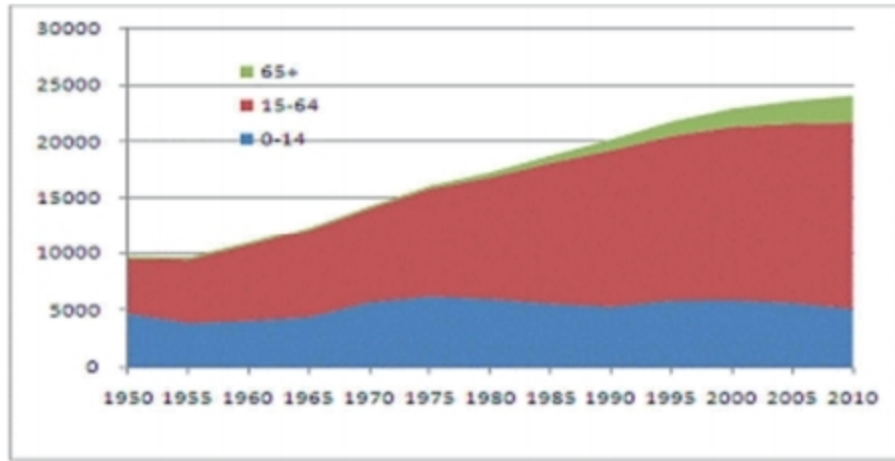


## 북한 보건의료 이해의 세 축





### 북한인구의 연령별구성의 변화추이



가임기 여성의 감소: 2000년 53.1% => 2008년 52.5%  
 합계출산율: 2.2명(1993년)→2.01명(2008년)→1.89명(2014년)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1990년 4.67% => 2011년 9.7% => 2014년 10.2%

#### What causes the most deaths?

2005 ranking	2016 ranking	% change 2005-2016
1 Cerebrovascular disease	1 Cerebrovascular disease	36.9%
2 Ischemic heart disease	2 Ischemic heart disease	38.4%
3 COPD	3 COPD	31.9%
4 Lung cancer	4 Lung cancer	21.0%
5 Road injuries	5 Stomach cancer	25.5%
6 Stomach cancer	6 Road injuries	8.0%
7 Lower respiratory infect	7 Liver cancer	27.5%
8 Liver cancer	8 Alzheimer disease	58.4%
9 Neonatal preterm birth	9 Lower respiratory infect	-7.6%
10 Congenital defects	10 Hypertensive heart disease	39.0%
11 Alzheimer disease	11 Congenital defects	-17.1%
12 Hypertensive heart disease	12 Neonatal preterm birth	-22.6%

**북한의 주 사망 원인**  
 심뇌혈관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위암, 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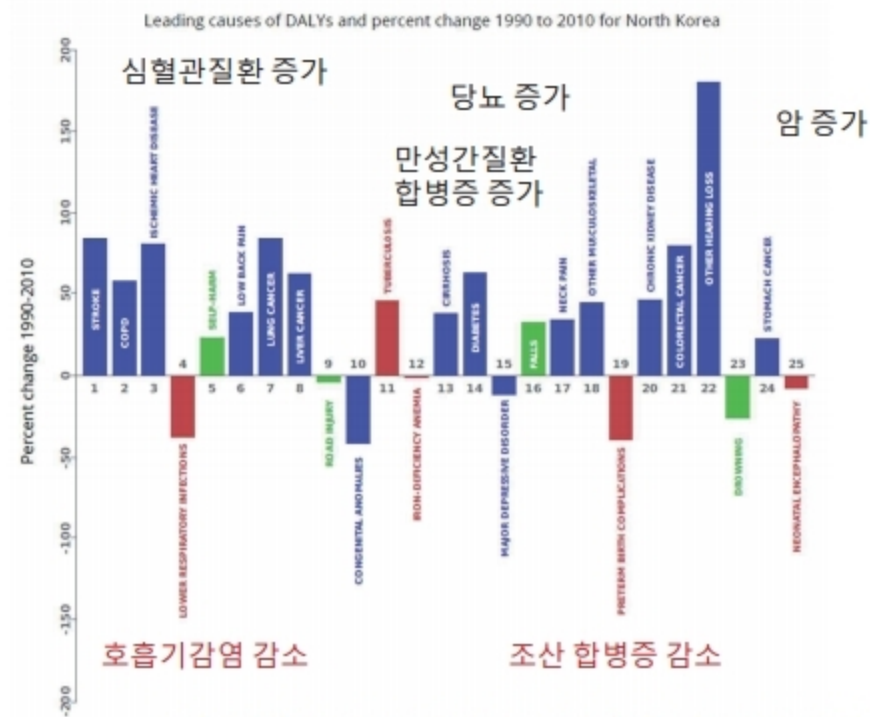
#### What risk factors drive the most death and disability combined?

2005 ranking	2016 ranking	% change 2005-2016
1 Tobacco	1 Tobacco	15.8%
2 Malnutrition	2 Air pollution	10.1%
3 Air pollution	3 Dietary risks	16.9%
4 Dietary risks	4 High blood pressure	26.7%
5 High blood pressure	5 Malnutrition	-31.0%
6 High fasting plasma glucose	6 High fasting plasma glucose	29.3%
7 Occupational risks	7 Occupational risks	16.7%
8 Alcohol & drug use	8 Alcohol & drug use	16.0%
9 High total cholesterol	9 High total cholesterol	20.8%
10 Impaired kidney function	10 Impaired kidney function	25.2%

**북한 질병부담 원인**  
 흡연, 대기오염, 영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http://www.healthdata.org/north-korea>

### 북한 질병 부담의 변화: 1990 -> 2010



[http://www.healthdata.org/sites/default/files/files/country\\_profiles/GBD/thme\\_gbd\\_country\\_report\\_north\\_korea.pdf](http://www.healthdata.org/sites/default/files/files/country_profiles/GBD/thme_gbd_country_report_north_korea.pdf)

## 북한 내 보건의료 변화

### 북한 내 비공식 보건의료 시장 확대

대북 보건의료 지원

- 국제사회 지원 - 개발지원 - 인도주의지원
- 국내 지원

북한 내 보건의료 변화

- 건강 및 영양 지표의 변화
- 비공식 의료시장과 보건의료 시스템
- 북한 주민 질병관과 질병행태, 의사-환자관계 변화

미리 경험하는 통일세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

From Jeongseong to "Three-Minute Care": Healthcare Transitions in North Korea and the Cultur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Doctors in South Korea\*

Young Su PARK, Hae Won LEE, and Sang Min PARK

## Post-socialist transition?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약화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북한 : 3.3명
  - 남한 : 2.0명
  - 중국 : 1.0명
  - OECD 평균 : 3.1명
- 상대적으로 강한 일차보건의료네트워크
  - > 국제원조에서 예방접종을 등 뛰어난 개선을 보이는 구간

하지만...

- 체제전환국의 현황
  - 공공보건의료 체계 약화
  - 의료의 비공식시장 및 시장 영역 강화

=>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가 북한에서는 어떤 양상일까?

(기존 연구)

##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 약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부족 (Increasing absence of doctors in public sector) + 의사 직업 포기 (Great demand for quit the job as a doctor)

“의사들은 병원에서 월급을 안줘, 쌀 안줘. **시장에 가서 고구마라도 하나 팔아서 돈이라도 버는게 낫지.** 거기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마지막에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병원을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을 장사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병원 안에 장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수 가게를 놔서 옥수수 가루를 내서 선생님들이 국수를 많이 팔았어요.”

“Although there was a regular governmental inspection, it was usually superficial and perfunctory.”  
“**검열도** 백 번 해봤자 조 [웃음] 다 눈가리고 아웅이지”

Getting Health Reform Right

(기존 연구)

## 정부의 보건의료재정 부족 => 의료인에 대한 지불능력 저하

Limited governmental health finance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s to physician in DPRK

한달 월급이 1달러도 안되요. 월급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자기 짬에 보수를 안 챙기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The monthly income for doctor was only about 1 dollar. Doctors in North Korea cannot live their daily lives with the monthly payment from the government”

“Since 2009 currency revaluation, I could not receive any monthly salary from government. They gave only some government bond to doctors, but everyone knew that the bond was useless.”  
“**화폐개혁 이후**부터 갑자기 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채권 발행하고부터는 (노임을) 쪽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채권으로 받았으니까. (채권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십 년 후라고 했었는데...”

Getting Health Reform Right

(기존 연구 + 2019년 조사 결과)

## 비공식 환자부담금 + 개인진료

Emergence of unofficial payment and unauthorized private dual practice

“Medical service is not free anymore in North Korea. Doctors have to rob the pocket of patients for a living.”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뇌물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Doctors had sold a medical documentation for sick leave which was needed for North Korean people to have enough time to engage their private work.”  
“주로 진단서 때는 사람들이 (진료소에) 오거든요. 진단서만 때 주고 침 맞고 이런 거는 저녁에 집에 오라고 그러다고.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안오거든요.”

“As there was no compensation in public hospital, doctors had no incentive to do their best to take care of patients in hospital. But when patients visited doctor's home and paid bribes, doctors provided good quality services.”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로임도 주지 않는데 앉아 있는 의사들이 봐주니, 아무래도 성의가 없죠. 그렇지만 (환자가 원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의사는 다르죠. 여기 같이 행위당 수가제잖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이 엄청나게 잘 해요.. 보수가 있고, 약을 팔거든요...”

지표	가격화한 (원)	달러화
진단서(3일분)	1,500-5,000	0.5-0.8
사회보장수속	60,000(8천) - 600,000(9천)	17-200
총수령	50,000 - 100,000	15-30
제왕절개수술	55,000 - 120,000	16-32
장상제산	40,000 - 50,000	13-15
초음파 촬영	1,500-3,000(당대 한 단 상당)	0.5-0.8
X-ray	1,500-3,000	0.5-0.8
스파술, 총기중립술	5,000-8,000	1.5-3.0
외과수술	550,000-120,000	1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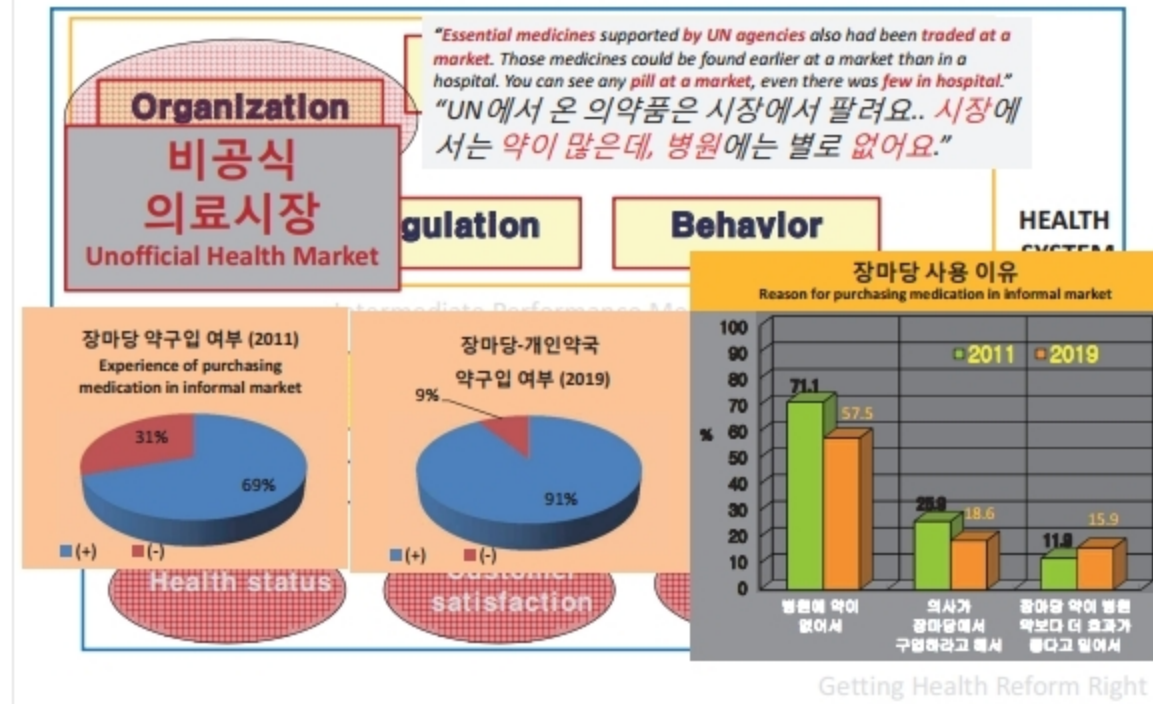
비공식 환자부담금 경험 여부 (2019)  
41% (+) 59% (-)

Getting Health Reform Right

(기존 연구 + 2019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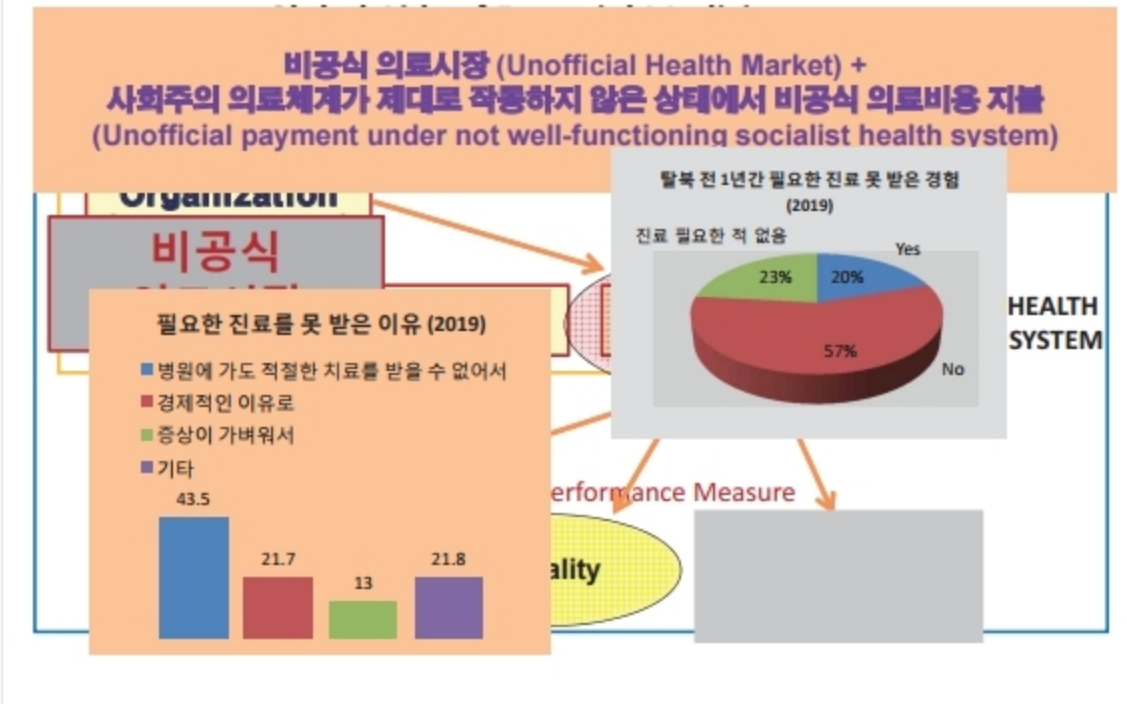
### 북한 장마당, 개인 약국과 의약품 거래

Experience of purchasing medicines at an unofficial health market in the DPRK



(기존 연구 + 2019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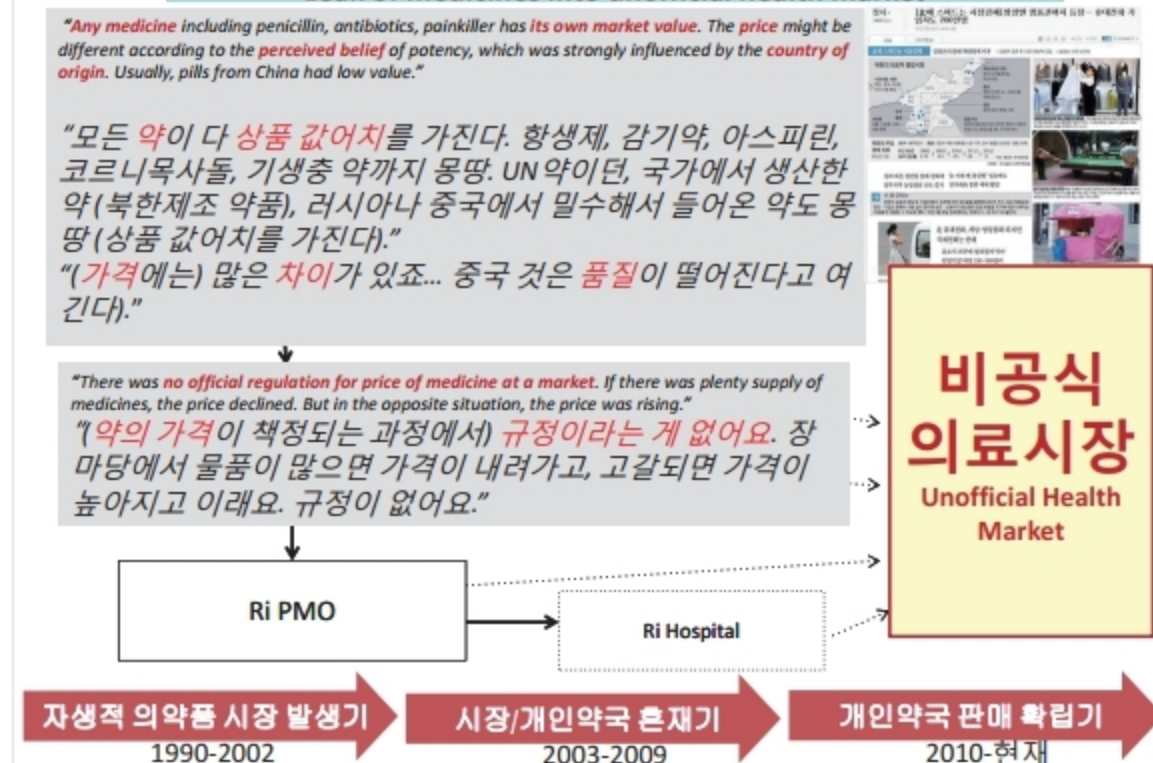
### 비공식 의료시장 => 빈부에 따른 차별적 의료접근성



(기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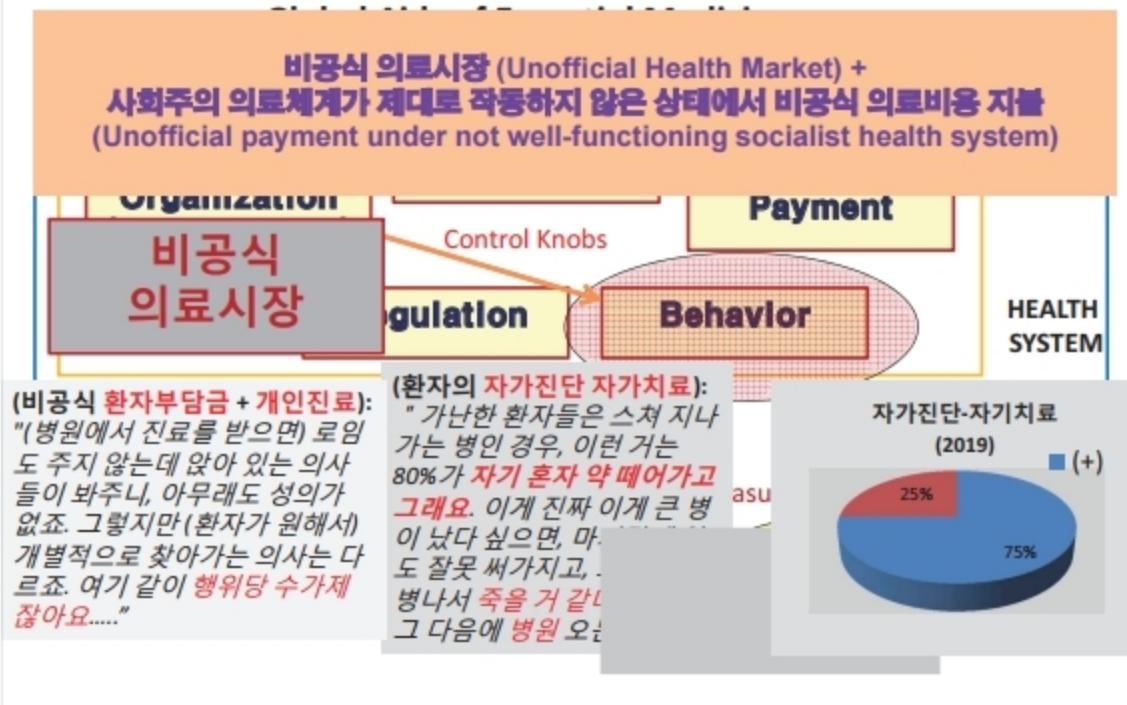
### 의약품의 비공식의료시장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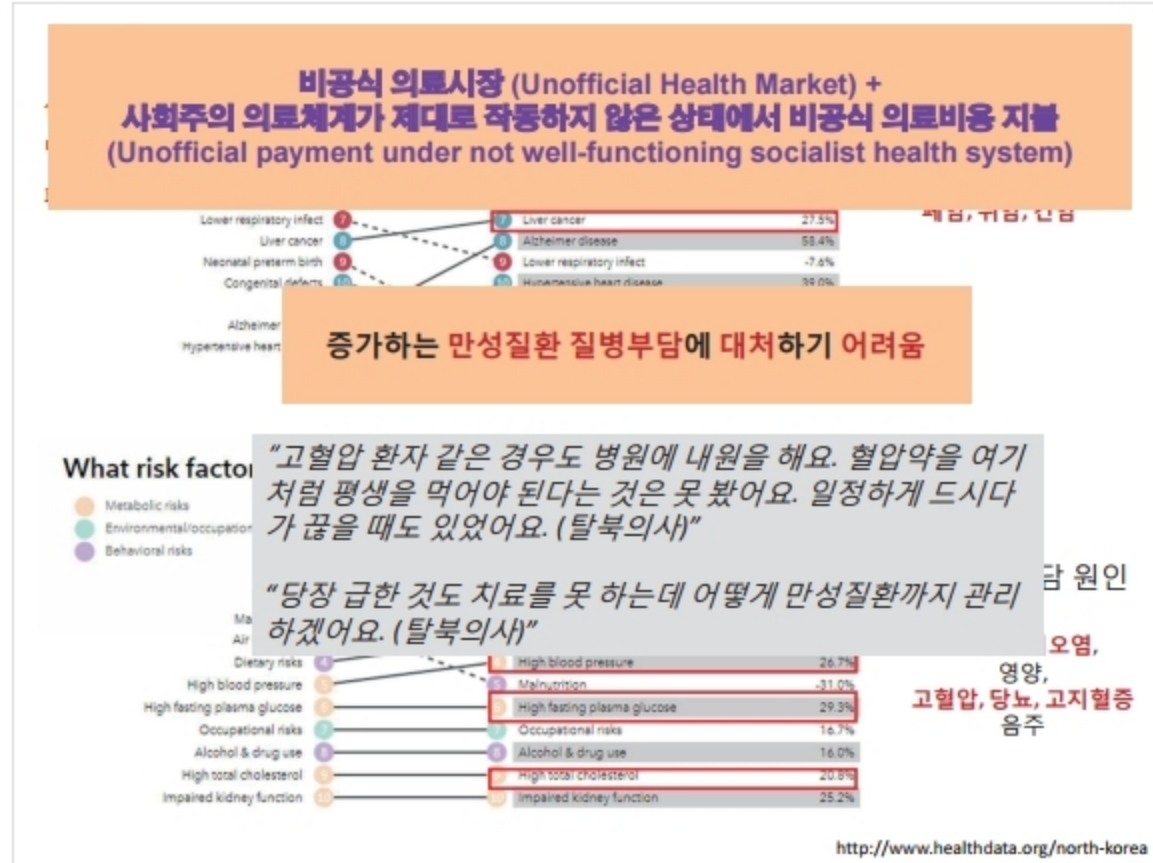
Leak of medicines into unofficial health market



(기존 연구 + 2019년 조사 결과)

### 의사-환자의 행태 변화





## 북한 보건의료: 북한 내 비공식 의료 시장과 북한 주민의 의료 경험 (요약)

박상민 (서울의대)

한 나라의 보건의료 문제는 사회경제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북한 주민의 기대여명은 남성 67.9세, 여성 73.6세로 고난의 행군 이전 수치를 거의 회복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국가의 인구유지에 필요한 2.3명에 미치지 못하는 1.89명이며, 이미 북한 내 65세 이상 인구는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암 등의 질병부담으로 이어진다. 2016년 시점에서 북한의 주 사망원인은 심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질환, 폐암, 위암, 간암으로 보고되며, 이에 대한 더 근원적인 원인은 흡연, 대기오염, 음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제시된다.

북한의 비감염성 질환 관리가 어려운 배경 중 하나는 비공식 의료시장과 비공식 환자부담금의 확산이다. 북한에서는 의약품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품적 가치가 높고, 실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약품이 공급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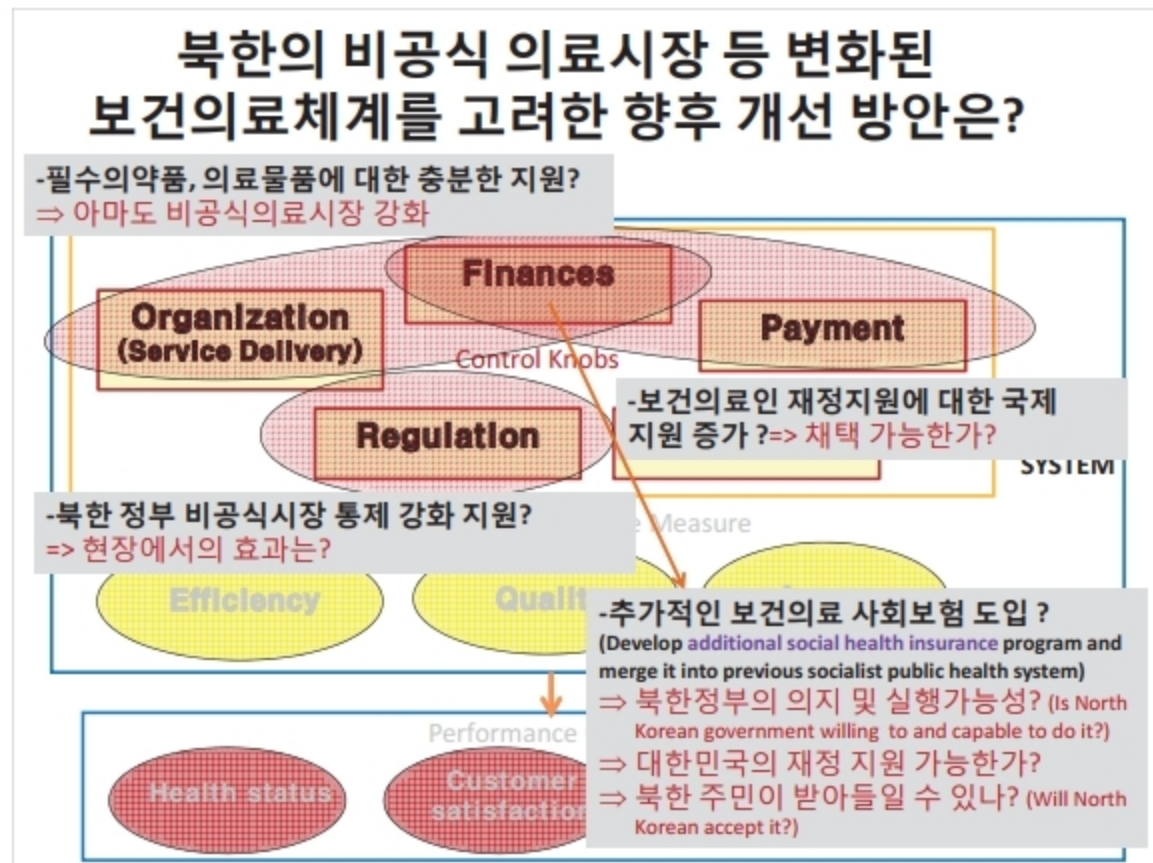
2019년에 조사한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도 약 91%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장마당이나 개인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2011년에 시행한 연구에서는 69%의 대상자에서 북한의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에 비교할 때 최근에는 북한 내 비공식 의료시장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이유를 중복으로 응답하였을 때, '병원에 약이 없어서'(71.1%), '의사가 장마당에서 구입하라고 해서'(25.9%), '장마당 약이 병원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믿어서'(11.9%)라고 조사되었다.

북한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43.5%는 병원에 가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1.7%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며, 자가진단과 자가 치료 위주의 질병관과 건강행태가 확산되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75%의 대상자에서 자가진단-자가치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와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관리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심각한 합병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의 주 사망원인 1,2위가 심뇌혈관질환인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감염성질환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려면 북한 내에서도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상이한 보건 의료 체계를 발전해 나간 역사적 배경과 상호 자원 조달 방안 및 의료 전달 체계의 차이를 고려면서, 과거 체제전환국의 보건의료 안정망 확충 사례를 통해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적용해 가야 할 것이다.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통일인식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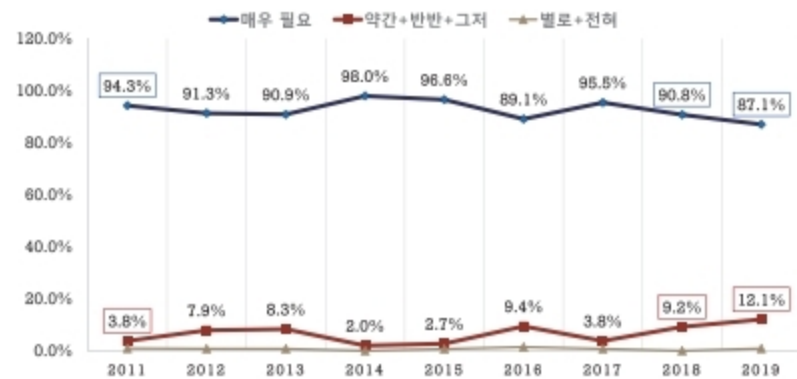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 목 차

- 1. 통일의 필요성
- 2. 통일 의지
- 3. 통일 이유
- 4. 통일 시기
- 5. 집단 이익, 개인 이익
- 6. 빈부 격차, 실업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 7.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 협력
- 8. 통일 방식
- 9. 통일 거주 지역
- 10. 통일 내용

# 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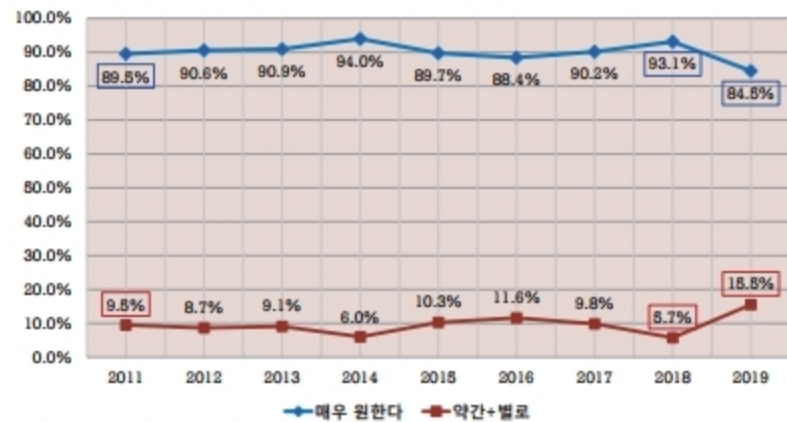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약간 필요하거나 반반/그저, 별로 필요하지 않다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음
- 다만, 그 추세가 2011년 94.3%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2019년 조사에서 87.1%로 나타남
- 반면, '약간 필요하거나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의 의견은 2011년 3.8%에서 2019년 12.1%로 상승
- 이에 대부분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 2.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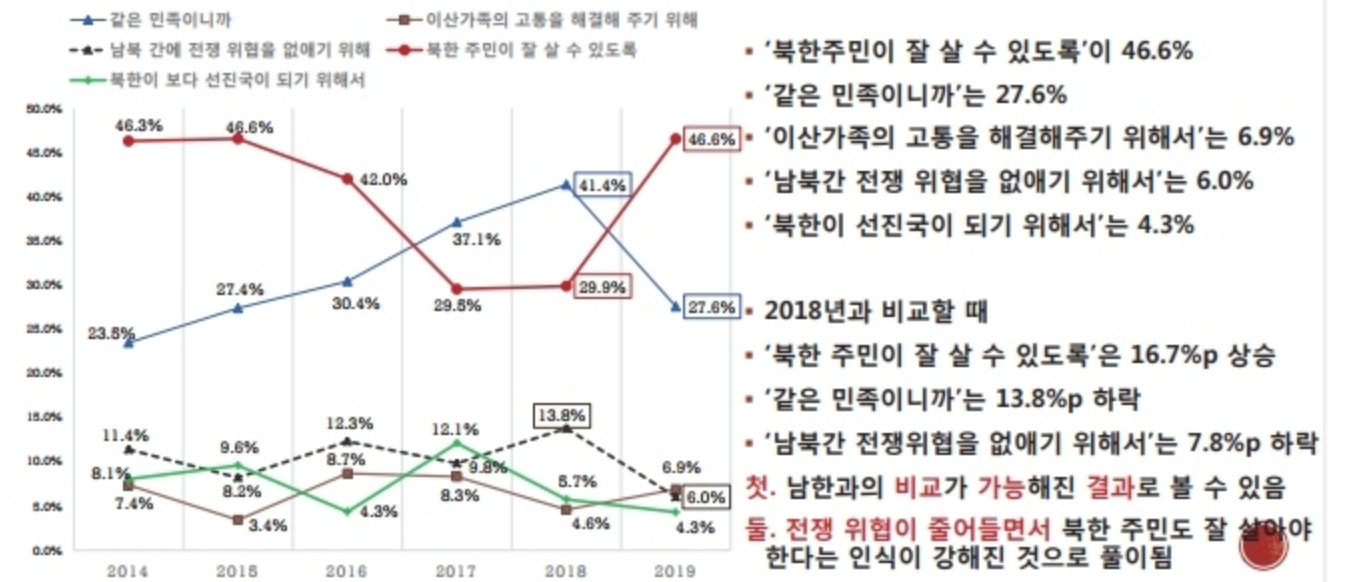
“귀하는 북한 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 역시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강한 의지를 나타냄
- 다만, 2018년 93.1%에서 2019년 84.5%로 8.6%p 낮아짐이 확인됨,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임
- '통일을 약간 원하거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18년 5.7%에서 2019년 15.5%로 9.8%p, 가장 높음
- 미비하기는 하나 김정은 시대 경제 회복과 성장이 통일 국가로서의 가치 지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음

# 3. 통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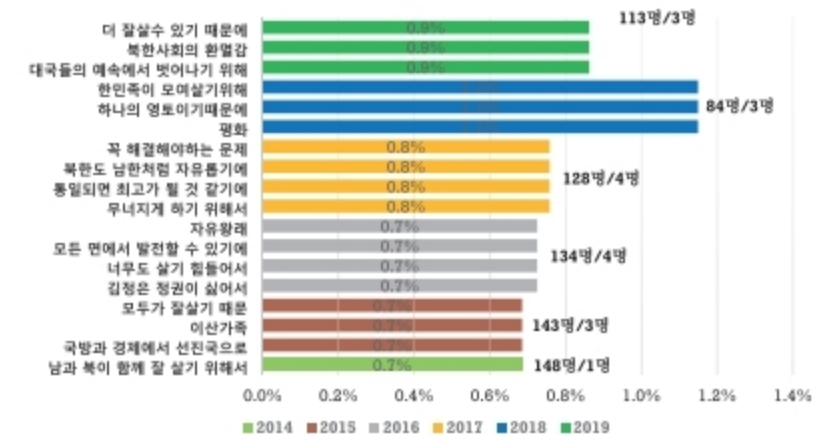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46.6%
- '같은 민족이니까'는 27.6%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6.9%
- '남북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6.0%
- '북한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4.3%
- 2018년과 비교할 때
  -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은 16.7%p 상승
  - '같은 민족이니까'는 13.8%p 하락
  -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7.8%p 하락
- 첫. 남한과의 비교가 가능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둘. 전쟁 위협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됨

# 3. 통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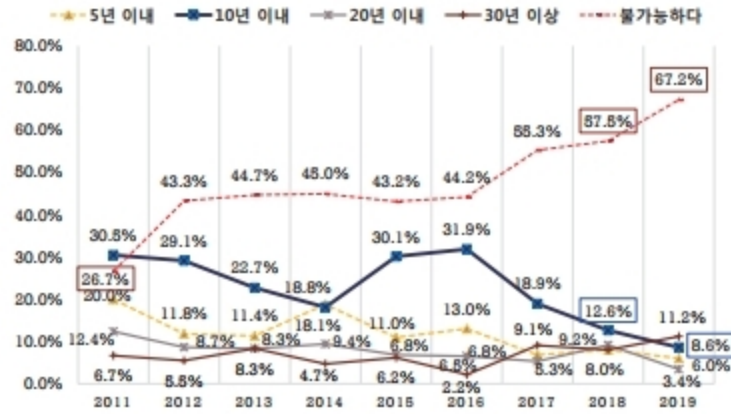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1년 부터 2019년까지 18개 항목에 대한 선택을 나타낸 것
- 2014년 1명에서 3명, 4명 정도로 꾸준히 응답자가 발생
- 각 해에 선택된 문항별 순으로 정리해 본 바, 중복 응답은 없음

### 4. 통일 시기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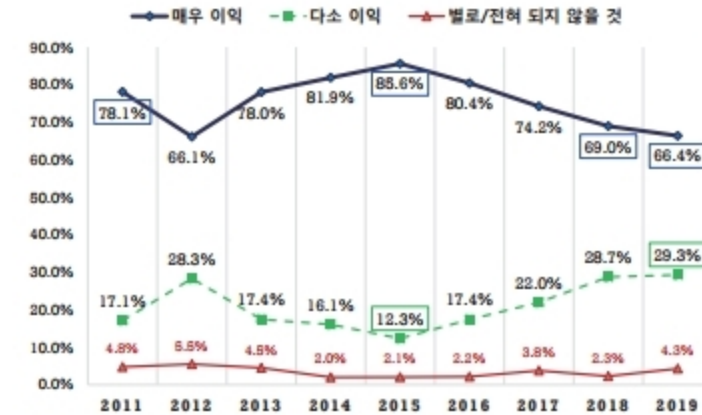


-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1년 26.7%에서 2019년 67.2%로 41.1%p 상승
- 2011년 30.5%로 조사항목 중 가장 높게 출발한 '10년 이내'는 2019년 8.6%로 2018년 비하여 4.0%p 하락
- 조사 결과는 불가능의 인식은 높아지는 것에 반하여 **가능성 인식은 지속하여 낮아지고 있음**



### 5. 통일 개인 이익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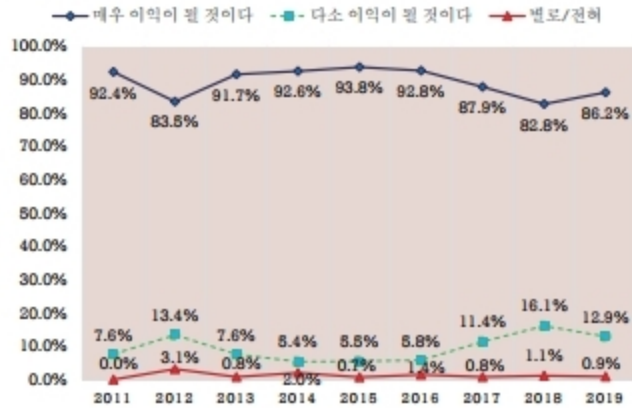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감소하여, 2018년 69.0%보다 2019년 66.4%로 2.6%p 하락
- 반면,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5년 12.3%에서 상승세, 2019년 29.3%로 2018년 대비 0.6%p 상승
- 즉 **집단 이익은 상승하는 반면 개인 이익은 감소세임**. 통일을 국가 주도의 정치적 문제로만 인식하게 된 결과 개인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5. 통일 집단 이익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이 북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82.8%에서 2019년 86.2%로 3.4%p 소폭 상승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2.9%로 3.2%p 하락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와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의 인식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2%에 미쳐 큰 의미를 갖지 못함



### 6. 빈부 격차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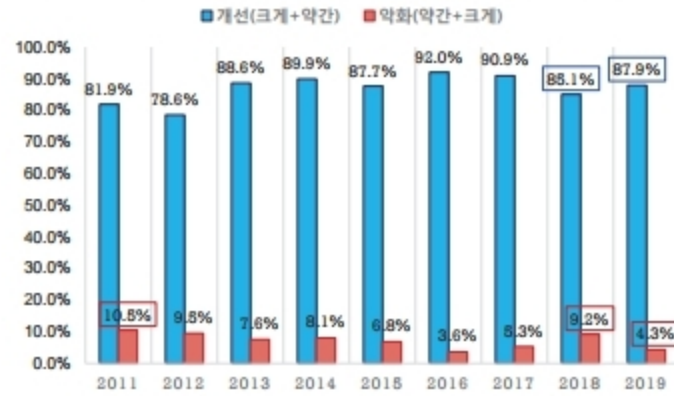
-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80.2%는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 9.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임**
- 다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2018년 86.2%보다 2019년 80.2%로 0.6%p 하락
- 반면, 2018년 개선과 악화의 간극이 79.3%에서 2019년 70.7%로 8.6%p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 6. 실업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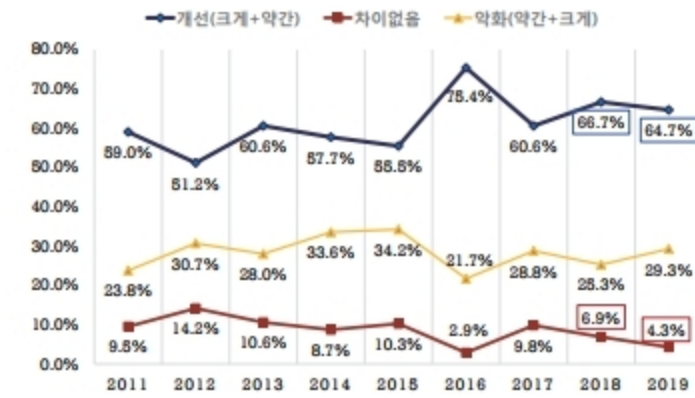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실업 문제 역시 개선 될 것이라는 인식이 악화 될 것이라는 인식에 비하여 83.6%p 높음
- 개선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85.1%에서 2019년 87.9%로 2.8%p 높음
-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9.2%에서 2019년 4.3%로 4.9%p 낮아짐
- 2019년은 전반적으로 통일이 되면, **실업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2018년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6. 이념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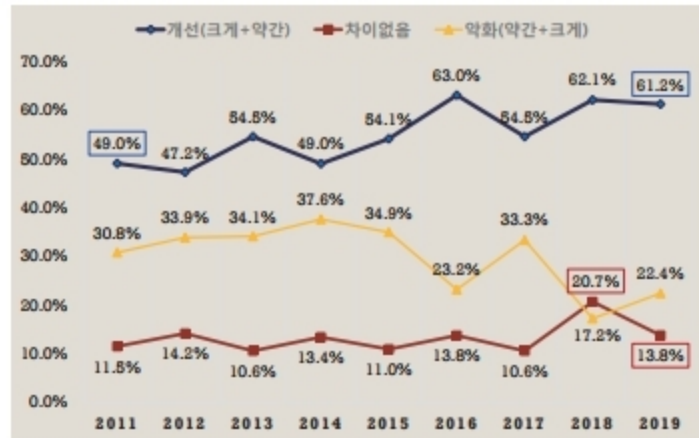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념갈등에 관하여서는 개선(크게+약간)된다는 인식이 2018년 66.7%보다 2019년 64.7%로 2.0%p 소폭 하락
- 차이 없음에 관한 인식 역시 2018년 6.9%에서 2019년 4.3%로 2.6%p 하락하고 있어 개선 쪽에 무게가 실림

## 6. 지역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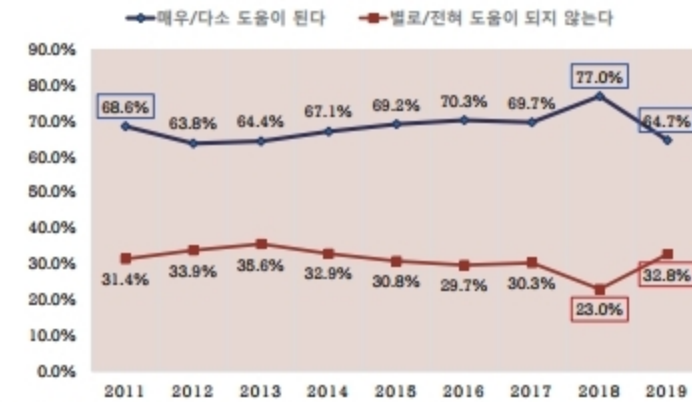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 61.2%는 빈부격차 80.2%, 실업문제 87.9%, 이념갈등 64.7%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치임
-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2018년 20.7%에서 2019년 13.8%로 6.9%p 하락함으로써 개선에 힘이 실리는 추세임

## 7.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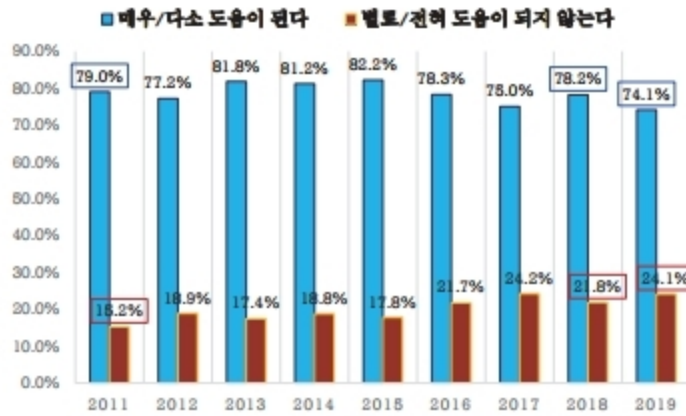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움(매우/다소)이 된다는 인식은 되지 않는다(별로/전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음**
- 그럼에도 2018년 77.0%에서 2019년 64.7%로 12.3%p 감소
-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의 인식은 2018년 23.0%에서 2019년 32.8%로 9.8%p 상승
- 2011년에서 2019년 까지 매우/다소 도움이 된다는 평균 68.3%이며,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균은 31.2%임.
- 이는 이러한 지원이 개인에게 영향을 덜 미치거나, 그 지원의 횟수가 제제 등으로 도움 받는 대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7.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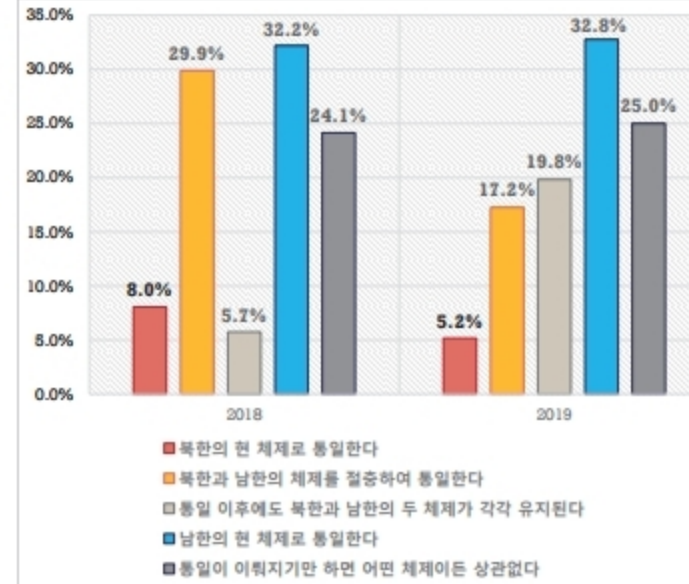


- 이 역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4.1%p 낮게 나옴
-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조사 초기 15.2%에서, 2019년 24.1%로 꾸준히 상승증임
- 2018년 4월 예술인들의 교류가 있었음에도 지속적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됨



### 8. 통일 방식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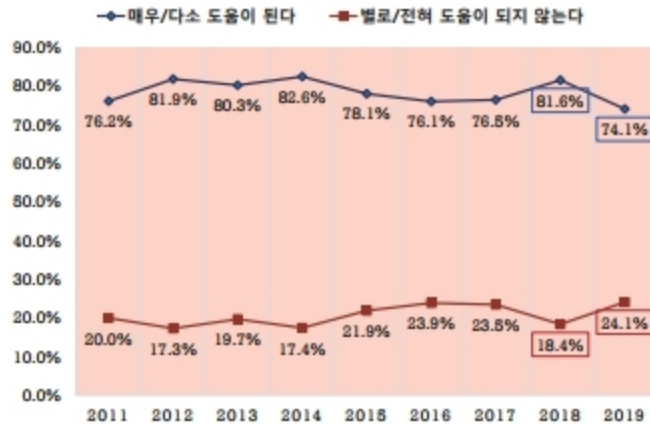


- 북한의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은 2018년에 비하여 2.8%p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인식도 2018년에 비하여 12.7%p 낮아짐
-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과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인식은 2018년과 2019년 약간의 상승(0.6%, 0.9%)을 나타낸 반면,
- 두 체제 각각 유지된다는 인식은 2018년 5.7%에서 2019년 19.8%로 14.1%p 상승하였음



### 7. 금강산 개성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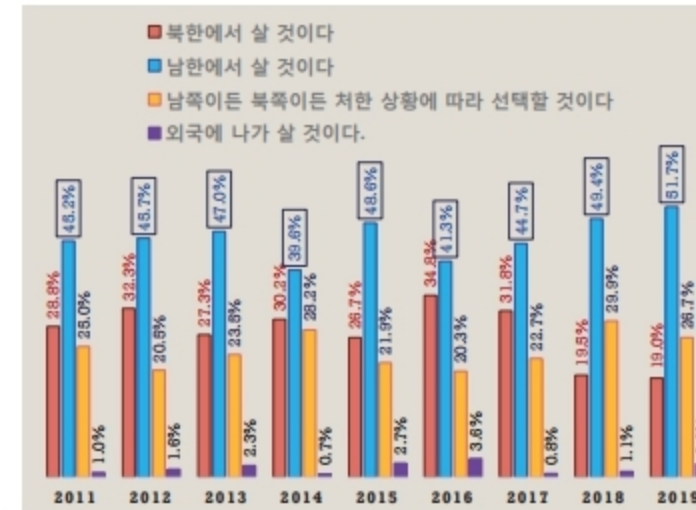


-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은 2018년 81.6%에서 2019년 74.1%로 7.5%p 감소하였음
-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의 경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5.7%p 상승세임
-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의 사항이 정치적 변수에 따른 것으로 잦은 부침을 겪은 것에서 비롯됨



### 9. 통일 거주 지역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은 2018년 49.4%에서 2019년 51.7%로 2.3%p 높음
- 반면 북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은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0.5%p 감소함
- 처한 상황에 따른다는 인식 역시 29.9%에서 26.7%로 3.2%p 감소하였음
- 다만, 외국에 나가 살 것이라는 인식은 미비하긴 하나 2019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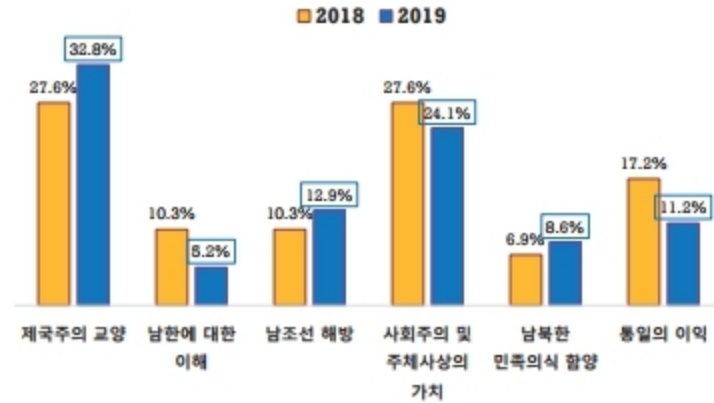


#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요약)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 10. 통일 내용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 되는 것으로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제국주의 교양이 5.2%p, 남조선 해방이 2.6%p,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이 1.7%p 높음
- 반면, 남한에 대한 이해는 5.0%p, 사회주의의 가치는 3.5%p, 통일의 이익은 6.0%p 낮음

## 소결

1. 통일의 필요성: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식함
  2. 통일 의지: 강한 의지를 나타냄
  3. 통일 이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은 압도적, 전쟁위협 인식은 낮아짐
  4. 통일 시기: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반 이상을 차지
  5. 집단 이익: 북한에 매우 이익이라는 인식이 강함, 반면 개인 인식은 2015년 이후 감소
  6. 빈부 격차, 실업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은 기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
  7.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 협력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높으나 2018년보다 하락세
  8. 통일 방식: 두 체제 각각 유지된다는 인식이 타 인식보다 상승폭이 큼
  9. 통일 거주 지역: 남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이 반 이상, 그 뒤를 처한 상황에 따라 살겠다는 인식
  10. 통일 내용: 남한에 대한 이해, 사회주의의 가치, 통일의 이익은 2018년에 비하여 낮음
- 대표 병목현상: 1. 2. 5(개인), 6(빈부). 7.
- 북한 주민이 통일을 국가 주도의 정치적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으로부터
- 통일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제한적이고 미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1. 통일의 필요성

가. 대부분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 1)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약간 필요하거나 반반/그저, 별로 필요하지 않다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음
- 2) 다만, 그 추세가 2011년 94.3%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2019년 조사에서 87.1%로 나타남
- 3) 반면, '약간 필요하거나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2011년 3.8%에서 2019년 12.1%로 상승

### 2.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

가.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는 통일의 필요성과 더불어 강한 의지를 나타냄

- 1) 다만, 2018년 93.1%에서 2019년 84.5%로 8.6%p 낮아짐이 확인됨.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임
- 2) '통일을 약간 원하거나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2018년 5.7%에서 2019년 15.5%로 9.8%p, 가장 높음
- 3) 이는 미비하기는 하나 김정은 시대 경제 회복과 성장이 통일 국가에로의 가치 지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음

### 3. 통일 이유

가.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가장 높음

- 1) 2019년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46.6%, '같은 민족이니까'는 27.6%,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6.9%,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6.0%, '북한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4.3%임
- 2) 2018년과 비교할 때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은 16.7%p 상승, '같은 민족이니까'는 13.8%p 하락,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7.8%p 하락
- 3) 이는 첫째, 여러 방면에서 남한과의 비교가 가능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둘째, 전쟁 위협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됨. 고수입원 원산지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를 북한이 따르고 있음

### 4. 통일 시기

가. 불가능의 인식은 높아지는 것에 반하여 가능성 인식은 지속해서 낮아짐

- 1)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2011년 26.7%에서 2019년 67.2%로 41.1%p 상승

2) 2011년 30.5%로 조사항목 중 가장 높게 출발한 '10년 이내'는 2019년 8.6%로 2018년 비하여 4.0%p 하락

### 5-1. 통일 집단 이익

#### 가. 대부분이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았음

- 1) 통일이 북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82.8%에서 2019년 86.2%로 3.4%p 소폭 상승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12.9%로 3.2%p 하락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와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의 인식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2%에 미쳐 큰 의미가 없음

### 5-2. 통일 개인 이익

#### 가. 집단 이익은 상승하는 반면 개인 이익은 감소세임

- 1) 2015년 이후 감소하여, 2018년 69.0%보다 2019년 66.4%로 2.6%p 하락
- 2) 반면,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5년 12.3%에서 상승세, 2019년 29.3%로 2018년 대비 0.6%p 상승
- 3) 통일을 국가 주도의 정치적 문제로만 인식하게 된 결과 개인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음

### 6-1. 빈부 격차

#### 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월등히 높은 편임

- 1)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80.2%는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 9.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임
- 2) 다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2018년 86.2%보다 2019년 80.2%로 0.6%p 하락
- 3) 반면, 2018년 개선과 악화의 간극이 79.3%에서 2019년 70.7%로 8.6%p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 6-2. 실업 문제

#### 가.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보다 높은 편임

- 1) 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에 비하여 83.6%p 높음
- 2)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85.1%에서 2019년 87.9%로 2.8%p 높음
- 3)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2018년 9.2%에서 2019년 4.3%로 4.9%p 낮아짐
- 4) 2019년은 전반적으로 통일이 되면, 실업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2018년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6-3. 지역 갈등

#### 가. 지역 갈등에 관한 인식이 앞선 빈부 격차, 실업 문제, 이념 갈등에 비하여 낮음

- 1)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 61.2%는 빈부 격차 80.2%, 실업 문제 87.9%, 이념 갈등 64.7%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치임
- 2)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2018년 20.7%에서 2019년 13.8%로 6.9%p 하락함으로써 개선에 힘이 실리는 추세임

### 6-4. 이념 갈등

#### 가.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은 차이 없음이라는 인식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1) 다만, 이념갈등에 관하여서는 개선(크게+약간)된다는 인식이 2018년 66.7%보다 2019년 64.7%로 2.0%p 소폭 하락
- 2) 차이 없음에 관한 인식 역시 2018년 6.9%에서 2019년 4.3%로 2.6%p 하락하고 있어 개선 쪽에 무게가 실림

### 7-1.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 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음

- 1) 그럼에도 2018년 77.0%에서 2019년 64.7%로 12.3%p 감소
- 2)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의 인식은 2018년 23.0%에서 2019년 32.8%로 9.8%p 상승
- 3) 2011년에서 2019년까지 매우/다소 도움이 된다는 평균 68.3%이며,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균은 31.2%임
- 4) 이는 이러한 지원이 개인에게 영향을 덜 미치거나, 그 지원의 횟수가 제재 등으로 도움 받는 대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7-2.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 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음

- 1) 다만,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4.1%p 낮게 나옴
- 2)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조사 초기 15.2%에서, 2019년 24.1%로 꾸준히 상승 중임
- 3) 2018년 예술인들의 교류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됨

### 7-3.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 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은 2018년 81.6%에서 2019년 74.1%로 7.5%p 감소하였음
- 2)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전혀)의 경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5.7%p 상승세임
- 3)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의 사항이 정치적 변수에 따른 것으로 잦은 부침을 겪은 것에서 비롯됨

### 8. 통일 방식

#### 가.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이 높음

- 1) 북한의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은 2018년에 비하여 2.8%p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인식도 2018년에 비하여

- 12.7%p 낮아짐
- 2)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인식과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인식은 2018년과 2019년 약간의 상승(0.6%, 0.9%)을 나타냈지만,
- 3) 두 체제 각각 유지된다는 인식은 2018년 5.7%에서 2019년 19.8%로 14.1%p 상승하였음

## 9. 통일 거주 지역

### 가. 남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이 현저히 높음

- 1) 남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은 2018년 49.4%에서 2019년 51.7%로 2.3%p 높음
- 2) 반면, 북한에서 살겠다는 인식은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0.5%p 감소함
- 3) 처한 상황에 따른다는 인식 역시 29.9%에서 26.7%로 3.2%p 감소하였음
- 4) 다만, 외국에 나가 살 것이라는 인식은 미비하긴 하나 2019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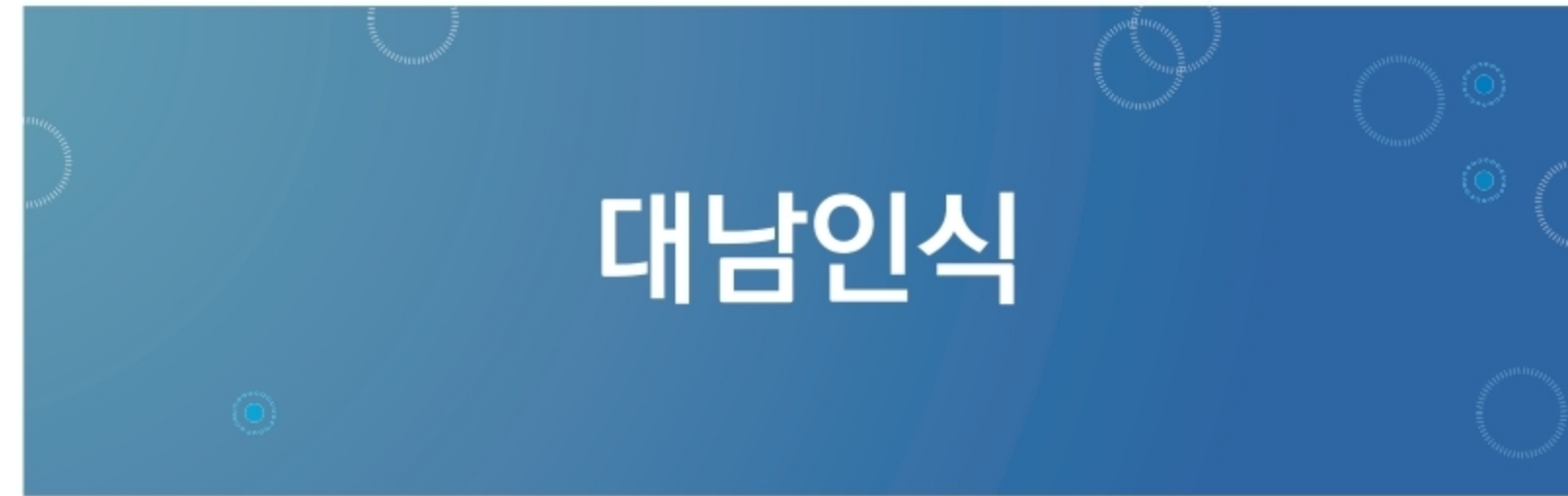
## 10. 통일 내용

### 가. 제국주의 교양과 남조선 해방,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이 높음

- 1)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 되는 것으로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제국주의 교양이 5.2%p, 남조선 해방이 2.6%p,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이 1.7%p 높음
- 2) 반면, 남한에 대한 이해는 5.0%p, 사회주의 가치는 3.5%p, 통일의 이익은 6.0%p 낮음

##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문인철  
(서울연구원)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 목 차

### I. 대남인식

- 1. 대남인식
- 2. 대남인지도

### II. 남한문화 인식

- 1. 남한문화 경험 정도
- 2. 남한문화 친숙도
- 3. 남한문화 유통경로
- 4.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 5. 남북한 이질성에 대한 인식

### III.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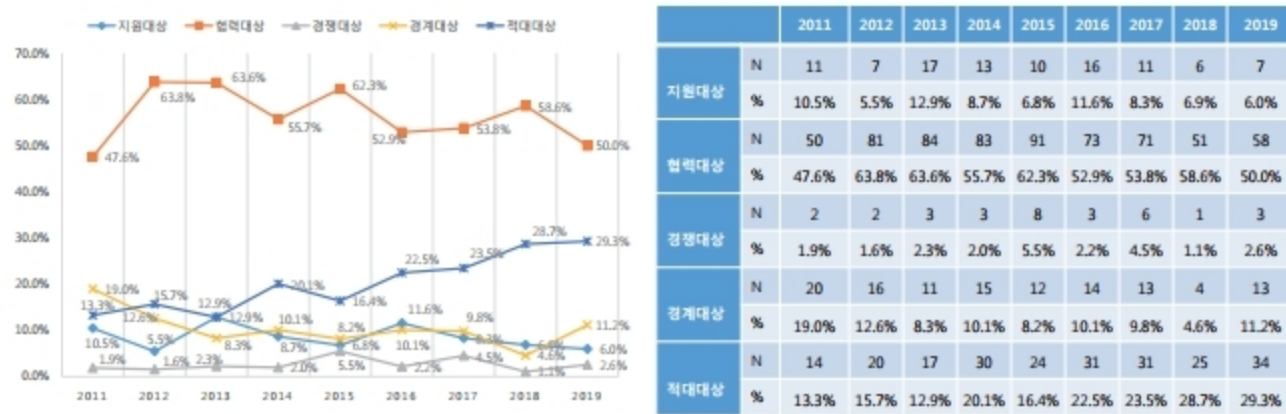
- 1. 대남인식
- 2. 대남인지도

###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 1. 남한문화 경험 정도
- 2. 남한문화 친숙도
- 3. 남한문화 유통경로
- 4.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 5. 남북한 이질성에 대한 인식

I. 대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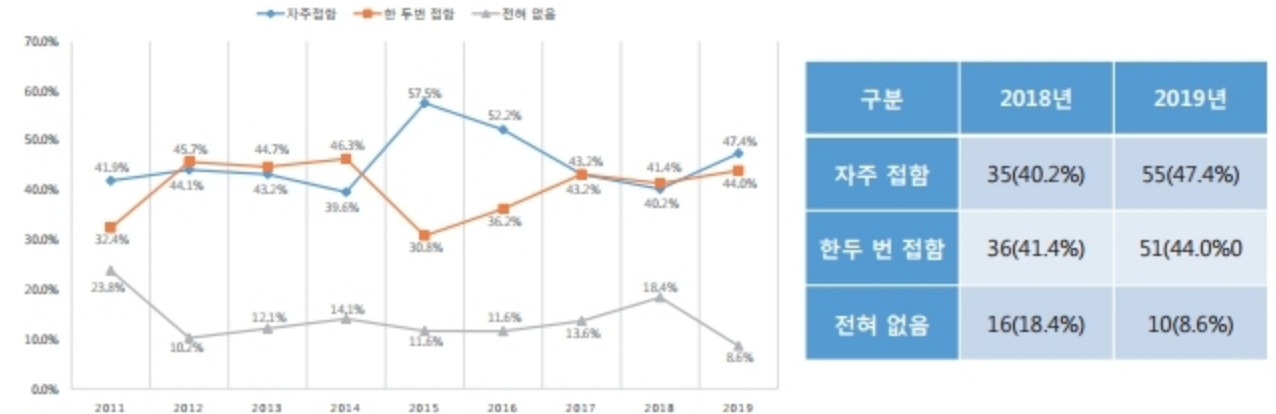
1. 대남인식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했는가?)



-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58.6%에서 50.0%로 감소
- 201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임
-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률은 28.7%에서 29.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4.6%에서 11.2%로 급증함

II. 남한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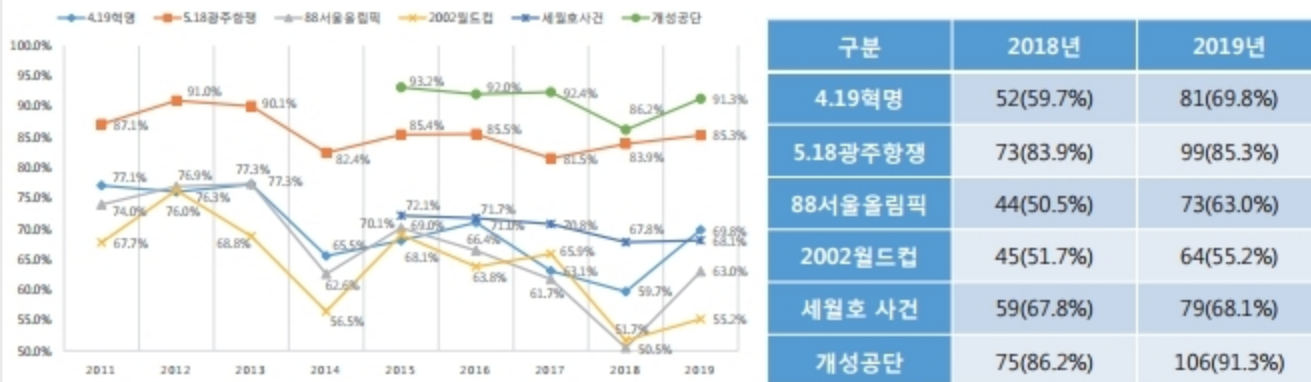
1. 남한문화 경험 정도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 남한문화를 '자주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40.2%에서 2019년 47.4%로 7.2%p 상승했음
- '한두 번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4%에서 44.0%로 2.6%p 소폭 상승했음
- 특기할 점은 2012년 이래로 10%대를 유지하던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1%대로 떨어졌음(18.4% → 8.6%)

I. 대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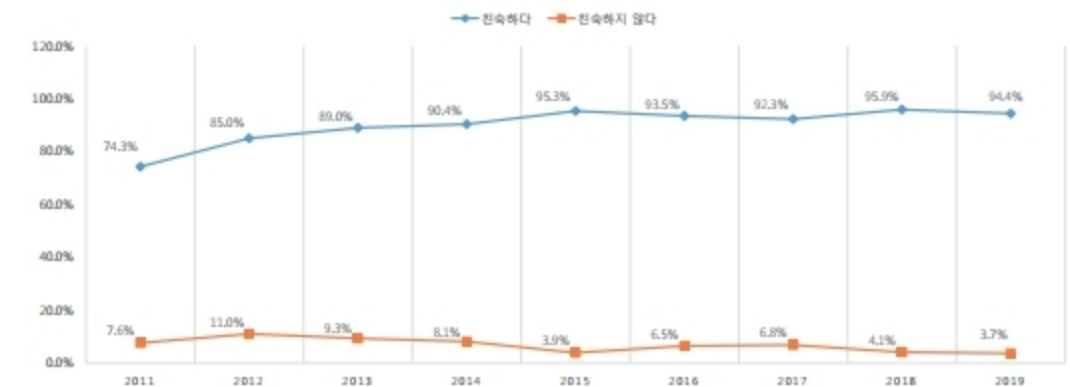
2. 대남인지도  
(북한에 있을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 5.18광주항쟁(83.9% → 85.3%), 개성공단(86.2% → 91.3%), 세월호사건(67.8% → 68.1%), 2002월드컵(51.7% → 55.2%), 88서울올림픽(50.5% → 63.0%), 4.19혁명(59.7% → 69.8%) 등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대부분 상승하였음
- 2019년도 조사는 2018년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옴

II. 남한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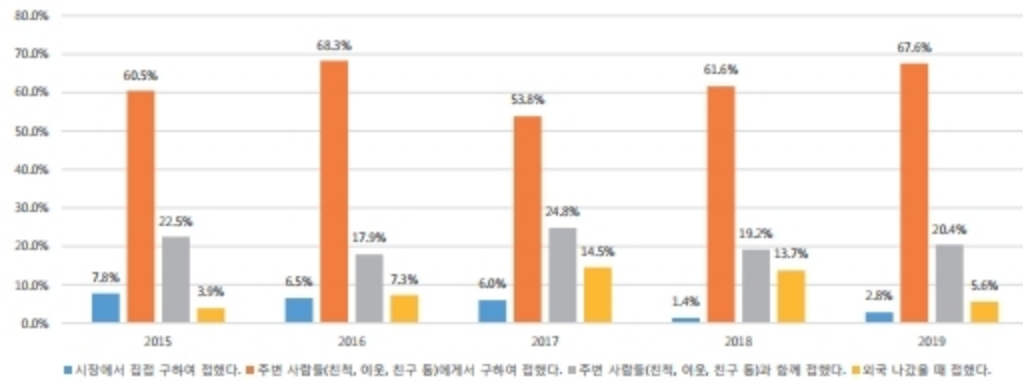
2. 남한문화 친숙도  
(남한문화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 남한문화 친숙도에 대한 응답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95.9% → 94.4%)

II. 남한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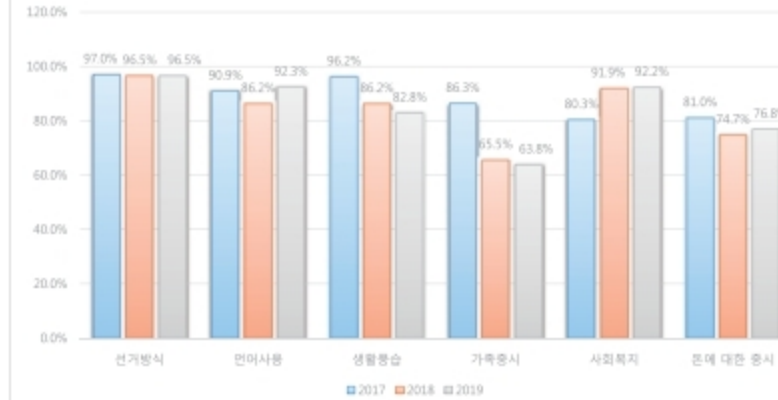
3. 남한문화 유통경로  
(남한문화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했는가?)



- 남한문화 유통경로 비중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음
- 여전히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67.6%)하고
-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20.4%)
-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이 세 번째(5.6%)
-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이 네 번째(2.8%)임

II. 남한문화 인식

5.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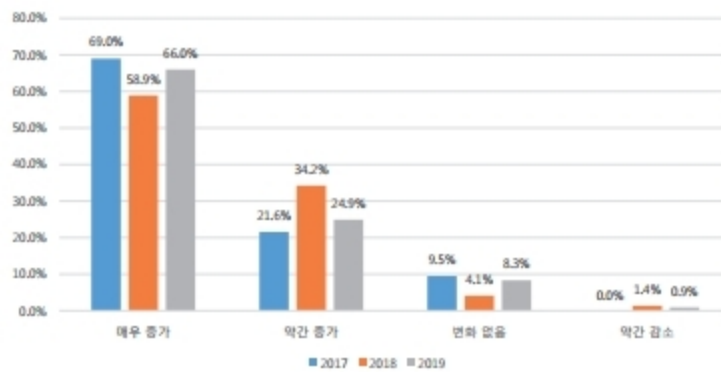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선거방식	84(96.5%)	112(96.5%)
언어사용	75(86.2%)	107(92.3%)
생활풍습	75(86.2%)	96(82.8%)
가족중시	57(65.5%)	74(63.8%)
사회복지	80(91.9%)	107(92.2%)
돈에 대한 중시	65(74.7%)	89(76.8%)

- 변화는 있으나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응답률도 2018년도와 비교해 주목할 만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6.5%→96.5%)'을 이질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언어사용(86.2%→92.3%)', '사회복지(91.9%→92.2%)'를 선택했음(이들 세 항목은 90% 이상의 응답률을 보임)
- '생활풍습(86.2%→82.8%)'을 네 번째로, '돈에 대한 중시(74.7%→76.8%)'를 다섯 번째로 선택했음
- '가족중시(65.5%→63.8%)'가 가장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선택했음

II. 남한문화 인식

4.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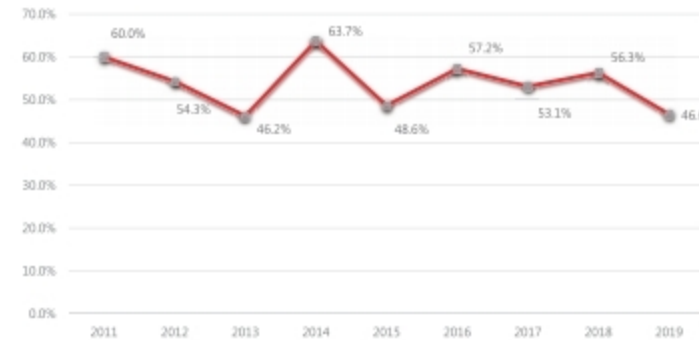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매우 증가	43(58.9%)	73(67.6%)
약간 증가	25(34.2%)	24(22.2%)
약간 감소	1(1.4%)	1(0.9%)
변화 없음	3(4.1%)	9(8.3%)

- 변화는 있지만, 남한문화 호감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률 58.9%에서 66.0%로 소폭 상승했음
-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34.2%에서 24.9%로 소폭 감소했음
- '변화 없다'는 응답률은 4.1%에서 8.3%로 증가했음

III.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했는가?)



연도	인식률 (%)
2015년	71(48.6%)
2016년	79(57.2%)
2017년	70(53.1%)
2018년	49(56.3%)
2019년	54(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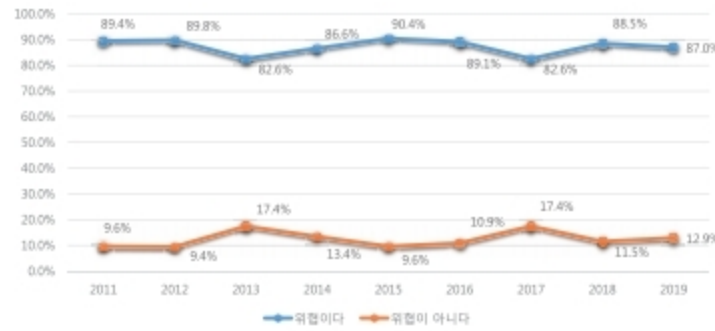
-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인식은 56.3%에서 46.6%로 9.7%p 감소했음
- 이는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응답률은 낮아진 반면, '적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특이함
- 북한이 강조하는 핵무기 보유로 인해 남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음
- 아니면 신뢰하긴 어렵지만,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일 수도 있음



III.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2. 대남 북핵위협 인식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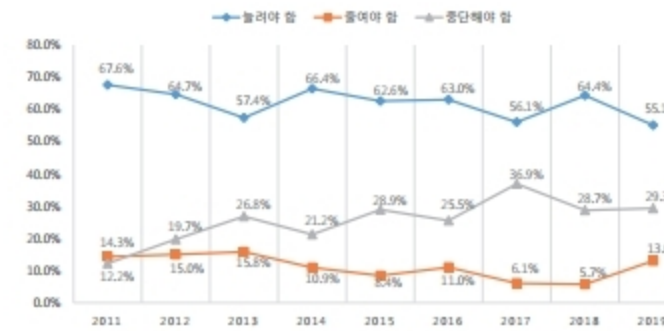
구분	위협	위협 아님
2016년	123(89.1%)	15(10.9%)
2017년	109(82.6%)	23(17.4%)
2018년	77(88.5%)	10(11.5%)
2019년	101(87.0%)	15(12.9%)

-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라는 응답은 2018년 88.5%에서 2019년 87.0%로 다소 감소했음
-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님
- 2011년 이래로 평균 80%대를 유지하고 있음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2. 대북지원 규모 평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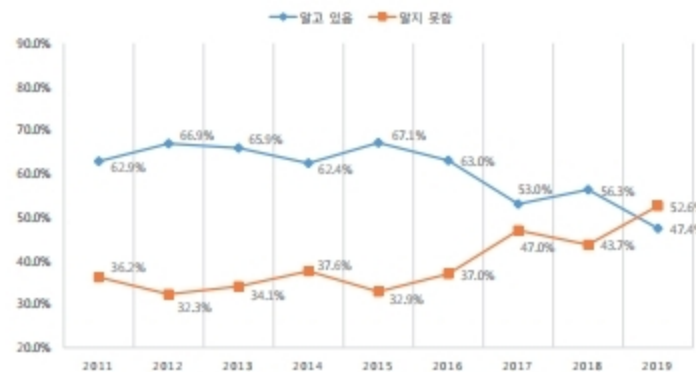
구분	늘려야 함	줄여야 함	중단
2016년	87(63.0%)	15(11.0%)	35(25.5%)
2017년	74(56.1%)	8(6.1%)	48(36.9%)
2018년	56(64.4%)	5(5.7%)	25(28.7%)
2019년	64(55.1%)	15(13.0%)	34(29.3%)

-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4.4%에서 55.1%로 소폭 감소했음
-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3.0%로 증가했음
-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28.7%→29.3%)도 30%에 육박함
-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음
- 그러나 50%이상이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1. 대북지원 인지도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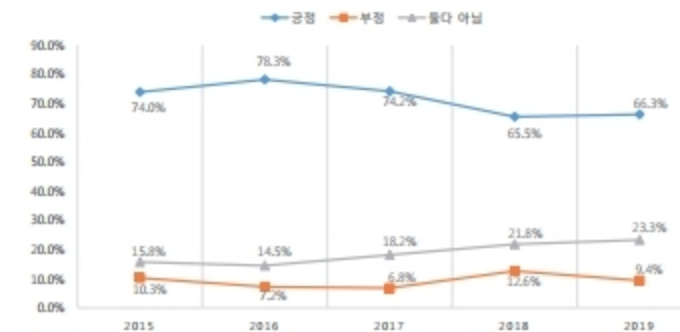
구분	알고 있음	알지 못함
2016년	87(63.0%)	51(37.0%)
2017년	70(53.0%)	62(47.0%)
2018년	49(56.3%)	38(43.7%)
2019년	55(47.4%)	61(52.6%)

-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2018년 56.3%에서 47.4%로 소폭 하락하였음
- 반면, '알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2018년 43.7%에서 52.6%로 소폭 상승하였음
- 특기할 점은 '알고 있다'와 '알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역전했다는 것임
-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3.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긍정	부정	둘다 아님
2016년	108(78.3%)	10(7.2%)	20(14.5%)
2017년	98(74.2%)	9(6.8%)	24(18.2%)
2018년	57(65.5%)	11(12.6%)	19(21.8%)
2019년	77(66.3%)	11(9.4%)	27(23.3%)

- 주목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긍정적 평가는 다소 증가하였음(65.5%→66.3%)
- 부정적 평가는 다소 감소(12.6%→9.4%)
-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평가는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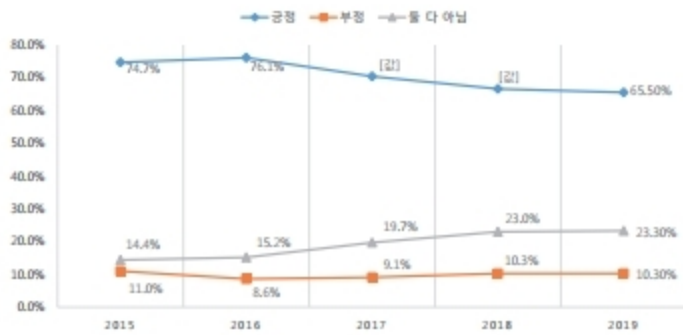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요약)

문인철(서울연구원)

##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 4. 대북경제 투자 평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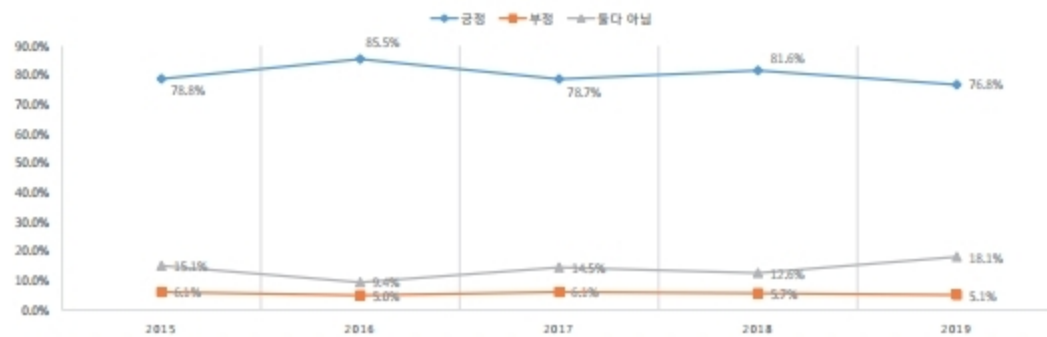
구분	긍정	부정	둘다 아님
2016년	105(76.1%)	12(8.6%)	21(15.2%)
2017년	93(70.4%)	12(9.1%)	26(19.7%)
2018년	58(66.6%)	9(10.3%)	20(23.0%)
2019년	76(65.5%)	12(10.3%)	27(23.3%)

- 2016년 이래로 점차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65.5%)은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부정적 평가가 10%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음
- 경제난과 시장화 추세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경제 투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 5.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북한주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 평가가 다소 감소(81.6%→76.8%) 했지만, 여전히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가 높은 수준임
-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례로, 그만큼 효과가 컸다는 것을 방증

##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58.6%에서 50.5%로 감소
  -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협력대상' 인식임
  -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률은 28.7%에서 29.3%로 소폭 증가했음
  -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적대대상' 인식임
  -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4.6%에서 11.2%로 급증했음
  - '경쟁대상'이라는 응답도 1.1%에서 2.6%로 증가했음
  -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

### 나.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모두 상승
  - '개성공단'은 86.2%에서 91.3%로 5.1%p 상승
  - '세월호사건'은 67.8%에서 68.1%로 0.3%p 상승
  - '2002월드컵'은 51.7%에서 55.2%로 3.5%p 상승
  - '88서울올림픽'은 50.5%에서 63.0%로 12.5%p 상승
  - '5.18광주항쟁'은 83.9%에서 85.3%로 1.4%p 상승

## 2.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이.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

### 가.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

- 남한문화를 접했다고 응답한 북한주민의 응답률은 전년도보다 상승
  - '자주 접함'에 대한 응답률은 2018년 40.2%에서 2019년 47.4%로 7.2%p 상승
  - '한 두번 접함'에 대한 응답률은 41.4%에서 44.0%로 2.6%p 상승
  - 특기할 점은 2012년 이래로 10%대를 유지하던 '전혀 없음'에 대한 응답률이 1%대로 감소(18.4% → 8.6%)

### 나.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 1)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친숙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 가) 95.9%에서 94.4%로 1.5%p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90% 이상 유지
  - 나) 2014년 이후로 남한문화가 친숙하다는 북한주민의 응답률은 90%대를 유지

### 다.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유통경로

- 1) 남한문화 유통경로는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함' >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함' > '외국 나갔을 때 접함' >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함' 순으로 그 비중이 2015년 이래로 똑같음
  - 가)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61.6%에서 67.6%로 증가
  - 나)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은 19.2%에서 20.4%로 감소
  - 다)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은 13.7%에서 5.6%로 감소
  - 라)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1.4%에서 2.8%로 증가
  - 마) '해외 노동자 송환'에 관한 대북제재로 인해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라.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 1) 남한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했다(매우+약간 증가)는 응답은 93.1%에서 90.9%로 소폭 감소
  - 가) 그러나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은 58.9%에서 66.0%로 상승
  - 나)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은 34.2%에서 24.9%로 감소
  - 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4.1%에서 8.3%로 상승
  - 라) 남한문화에 대한 호감도(매우+약간 증가)는 2017년 90.6%, 2018년 93.1%, 2019년 90.9%로 90%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마.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 1)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가) 2018년도와 비교해 주목할 만큼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나) '선거방식(96.5 -> 96.5%)'을 이질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
  - 다) 두 번째로 '언어사용(86.2% -> 92.3%)'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응답
  - 라) '사회복지(91.9% -> 92.2%)'는 세 번째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응답
  - 마) 네 번째로 '생활풍습(86.2% -> 82.8%)', 다섯 번째로 '돈에 대한 증시(74.7% -> 76.8%)'로 응답함
  - 바) '가족증시(65.5% -> 63.8%)'를 가장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선택

## 3.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 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1)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인식은 56.3%에서 46.6%로 9.7%p 감소
  - 가)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 인식 감소는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나)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응답률은 낮아졌지만,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다소 증가한 것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과는 특이한 지점임
  - 라) 북한 핵무기로 인한 대남 위협 억제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음
  - 마) 아니면, 여전히 남한을 신뢰하긴 어렵지만,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일 수도 있음

### 나. 대남 북핵위협 인식

- 1)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이다'라고 응답한 북한주민은 88.5%에서 87.0%로 1.5%p 감소
  - 가)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2011년 이후로 80%대를 유지
  - 나) 따라서 이는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님

## 4.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 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

- 1)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과 '알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역전되었음
  - 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3%에서 47.4%로 8.9% 감소
  - 나) '알지 못함'이라는 응답은 43.7%에서 52.6%로 8.9%p 상승
  - 다) 그동안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 나. 대북지원 규모 평가

- 1)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줄었으나 여전히 50% 중반을 유지
  - 가)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4.4%에서 55.1%로 9.3%p 감소
  - 나)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3.0%로 7.3%p 증가
  - 다)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에서 29.3%로 0.6%p 증가
  - 라)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 마) 50% 이상이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적지 않은 수준

### 다.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 1)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긍정적임
  - 가) 남한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긍정 평가는 65.5%에서 66.3%로 소폭 증가

나) 부정 평가는 12.6%에서 9.4%로 감소

다)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평가는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감소

#### 라. 대북경제 투자 평가

1)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은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가) 2016년 이래로 점차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북한주민은 대북경제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나) 긍정 평가는 66.6%에서 65.5%, 부정 평가는 10.3%로 전년도와 같음

다) 부정적 평가는 2015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10%대를 유지

라)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화 확대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경제 투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 마.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1)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긍정적임

가) 2018년 81.6%에서 2019년 76.8%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긍정 평가는 다소 감소

나) 그러나 70%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은 편

다)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례로, 그만큼 효과가 컸다는 것을 방증

##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 북한실태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실태 인식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목 차

### 1. 정치의식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 김정은 직무 평가
- 정부비판행위 정도
- 북한정권 유지기간 예상
- 핵무기 보유 평가

### 2. 경제의식

- 필요 월 소득 수준
- 직장 내 생산규율 평가
- 경제 악화의 원인
- 경제체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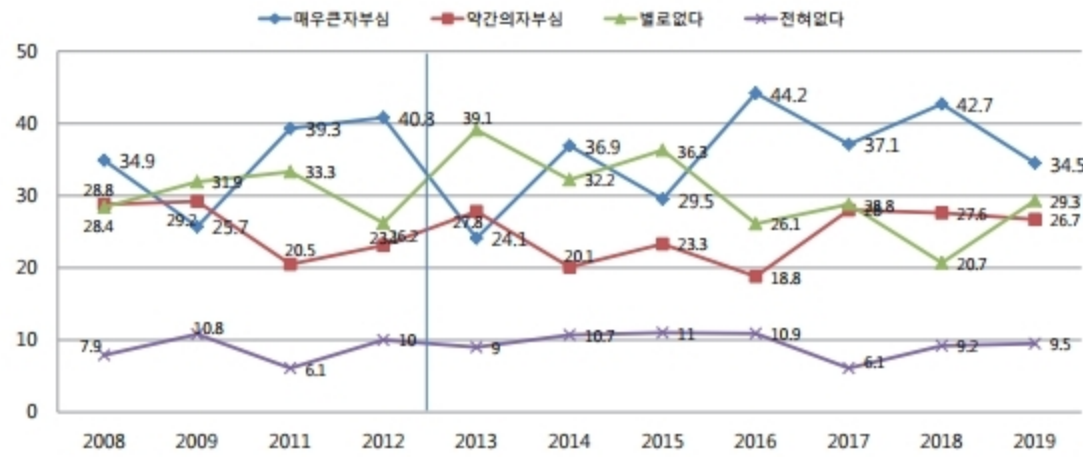
### 3. 사회통제의식

- 사회통제 유지 정도
- 생활총화 출석률
- 다른 지역 방문 정도
- 외부소식 접촉 경로
- 언론에 대한 신뢰도
-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 1. 정치의식

#### 1-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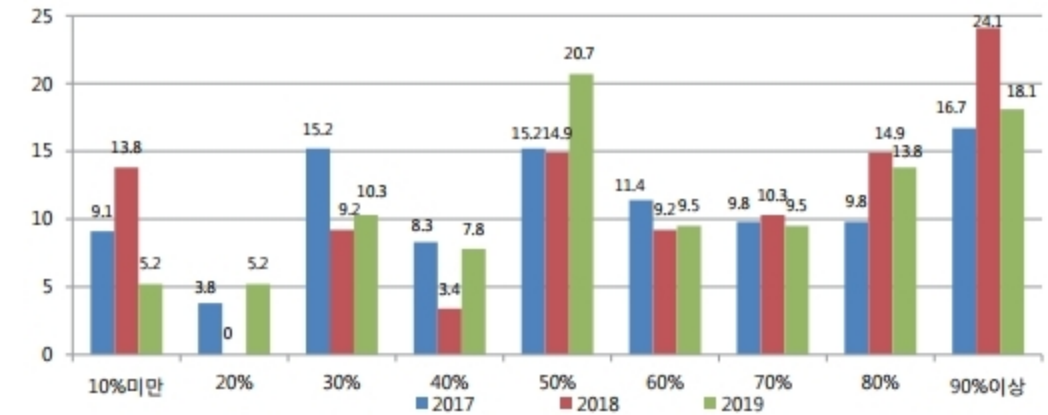


- 2019년 주체사상 자부심 '있다'와 '없다'의 비율 6:4; 지난 1년 동안 70.3%→61.2%로 9.1%p 감소
- 김정은 집권 이후 7년 동안 주체사상 자부심 평균 60.2%, 매우 큰 자부심 평균 35.6%
- 김정은 집권 초기 자부심 하락, 2015년 이후 증가추세, 강성국가? 2019년 하락 반전. **지난 1년 북미, 북중, 남북 정상회담 불구 하락 이유, 비핵화 협상과 관련성? 급격한 변화 추구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

### 1. 정치의식

#### 1-2.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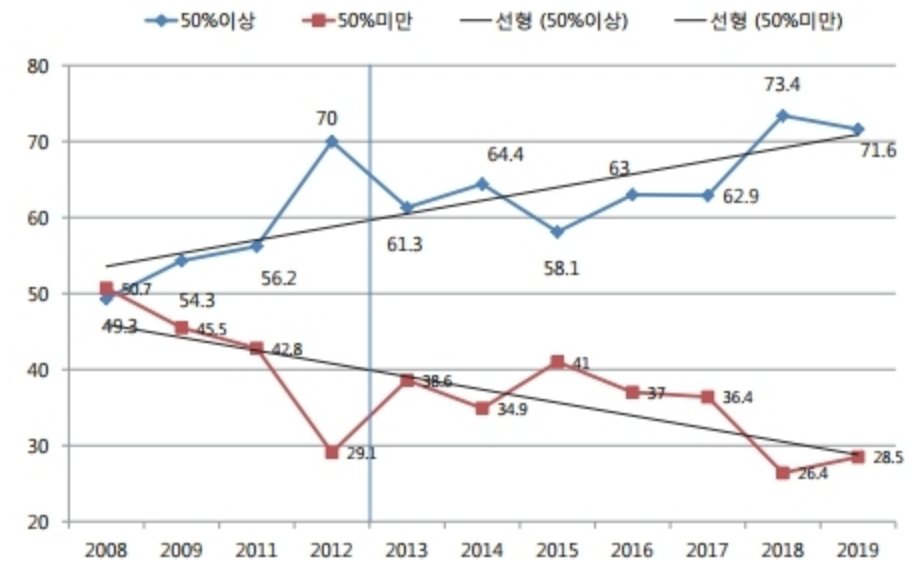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는가?)



- 50%와 90%이상에 집중
- 지난 1년 사이 50%이상에서 14.9%→20.7%로 는 반면, 90%이상에서 24.1%→18.1%, 10%미만에서 13.8%→5.2%로 동반 감소. 양극단 평가 지양, 중간평가 선호
- 젊은 이미지와 파격적인 행보에 따른 일종의 기대심리 투영

- 주체사상 자부심은 성별, 연령, 직업, 당원, 교육과 상관없음.
  - 2011~2015년에는 연령(세대)와 관련, 40대('고난의 행군' 세대)에서 가장 낮은 포물선 형태의 의식지형
- 지역, 0.05 수준 유의미: 양강도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친척유무, 0.01수준 유의미: 남한 친척 있는 사람 < 남한 친척 없는 사람
- 장사경험, 0.01수준 유의미: 장사경험 있는 사람 < 장사경험 없는 사람

#### 김정은 지지도



1. 정치의식

1-3. 김정은 직무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써 직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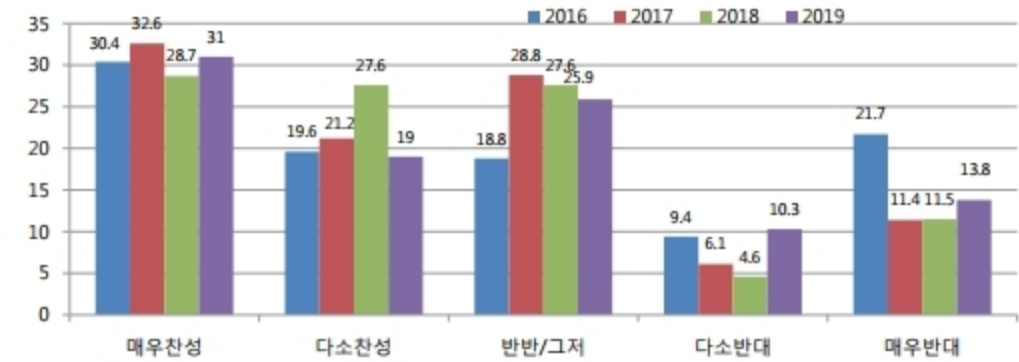


- 2019년 잘하고 있다는 평가(매우 잘+대체로 잘)는 44.8%(8.6%+36.2%)로, 못하고 있다(대체로 잘못+매우 잘못) 54.3%(29.3%+25.0%)보다 9.5%p 높다.
-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8.3%→44.8%로 3.5%p 하락, 2018년 16.4%p 급상승 후 소폭 하락
- 지역별 차이(0.01수준 유의미), 양강도<함경북도<함경남도
- 김정은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올해 꺾인 현상이 장기추세인지, 내년에 재반전될지 주목

1. 정치의식

1-5. 핵무기 보유 평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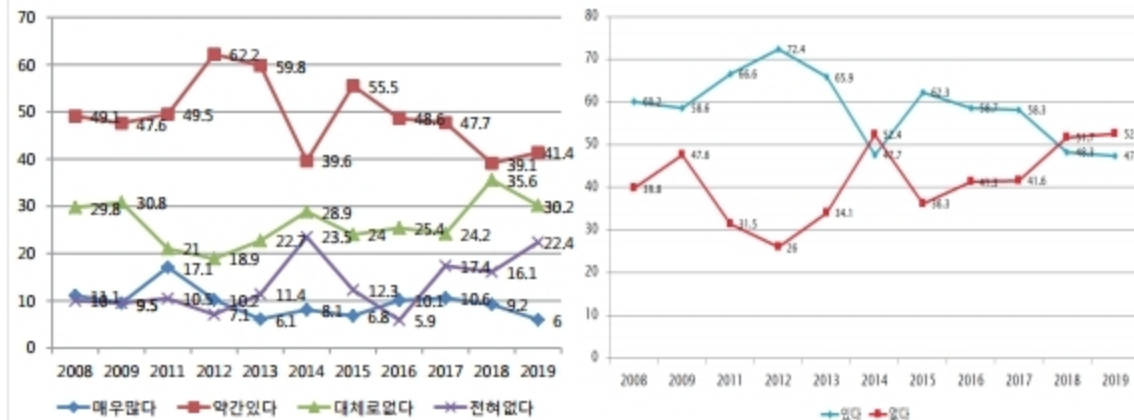


- 찬성(50.0%)이 반대(24.1%)보다 2배 많고, '매우찬성'이 다수를 차지, 핵보유에 대한 긍정평가 유지
- 지난 1년 동안 '찬성' 56.3%→50.0%로 5.6%p 감소, 지난 수년간의 상승 추세 **반전**
- 김정은 집권이후 핵실험 강행,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등으로 핵무기 보유 논리 설득력 확보, 그러나 작년 비핵화 협상 등으로 핵보유 정당성 논리 다소 약화 가능성

1. 정치의식

1-4.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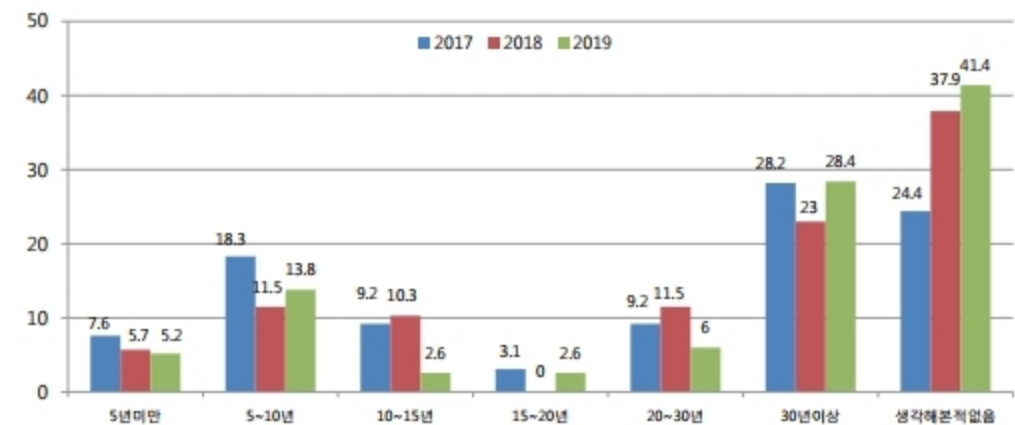


- 비판행위가 '없다'(52.6%)는 인식이 '있다'(47.4%)보다 5.2%p 높다
- 비판행위가 '있다'는 인식은 2015년 이후 62.3%→58.7%→58.3%→48.3%→47.4%로 지속 감소
- 비판행위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지난 10년간 10%미만으로 매우 적어 소극적 비판행위에 머물고 있고,
- 지난 2년간 비판행위가 '있다'보다 '없다'가 많아져, 정치사회가 안정되는 추세

1. 정치의식

1-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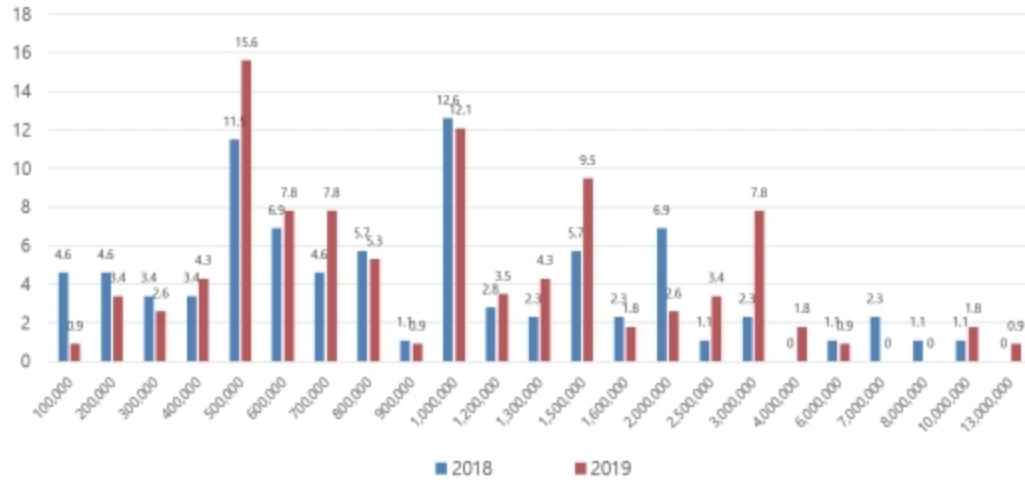


- '생각해본 적 없다' 41.4%로 가장 많고, '30년이상'이 28.4%로 70%가 북한정권 지속 가능성 장기 예측
- 정권 예상 유지기간은 '5년 미만', '5~10년' 등 단기전망은 낮아지는 반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장기전망 상승
- 김정은 집권초기 불안정감 해소 및 시장화 진전으로 북한주민 스스로 방법 모색으로 정권에 거는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

## 2. 경제의식

### 2-1. 필요 월 소득 수준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월 소득 500,000원 기대 응답자는 2018년 11.5%→ 2019년 15.6%로 상승.
- 월 소득 150만원, 300만원 기대 응답자 증가, 기대소득의 양극화

## 2. 경제의식

### 2-3. 경제 악화의 원인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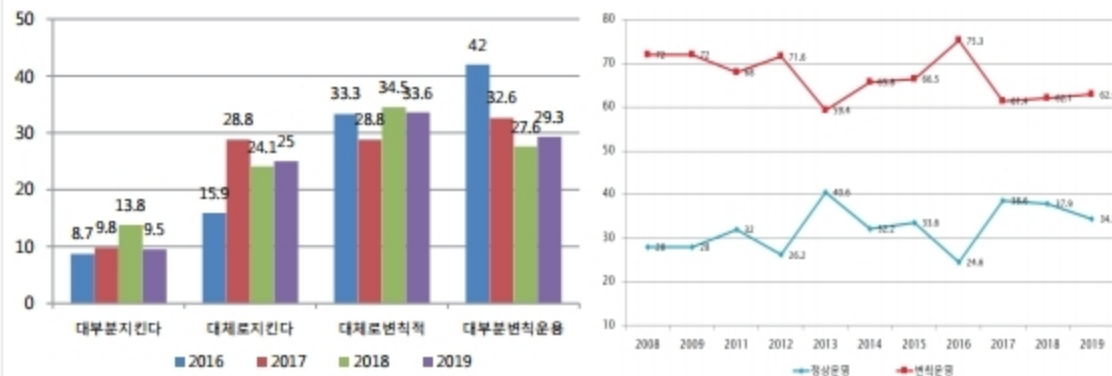


- 군사비 지출이 31.0%로 가장 많고, 개혁개방 부재 21.6%, 지도자 책임 13.8% 등의 순서.
- 2018년과 비교하면, 군사비지출 34.5%→31.0%로 줄고, 지도자 책임은 9.2%→13.8%로 증가
- 2017과 2018년 사이에 큰 변화, 군사비 지출 급상승, 지도자 책임 급감, 개혁개방 부재가 2순위로 부상
- 미국의 경제제재 항목 7.8% 낮음. 북한의 당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침체원인을 체제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의식 낮음.

## 2. 경제의식

### 2-2.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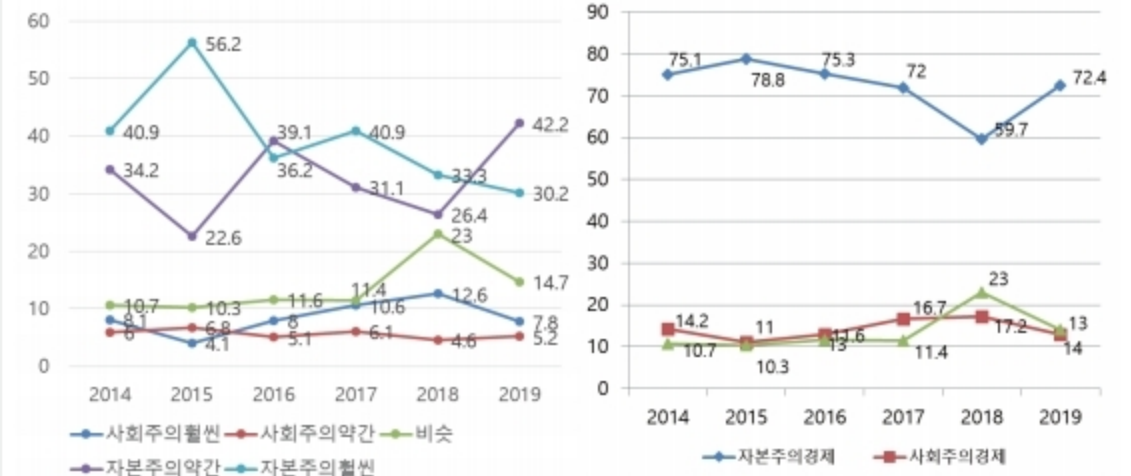


- '정상운영'은 34.5%, '변칙운영' 62.9%로 변칙운영이 2배 많음
- 작년과 비교하면 62.1%→62.9%로 비슷,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수준 유지
-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활동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 2. 경제의식

### 2-4. 경제체제 선호도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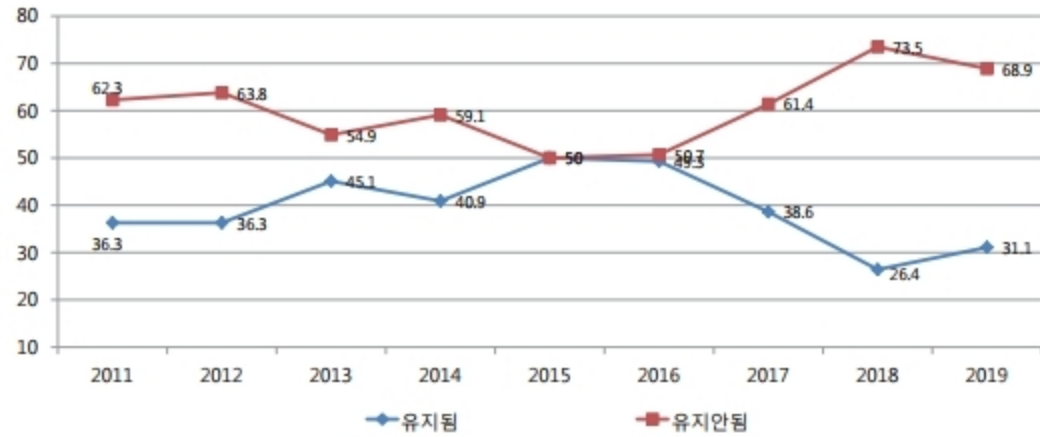
- 2019년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72.4%로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한다 1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작년과 비교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응답 59.7%→72.4%로 12.7%p 상승
- 자본주의 경제체제 지지가 하락하던 추세에서 2019년 급반등, 시장화의 진전으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 3. 사회통제의식

#### 3-1. 사회통제 유지 정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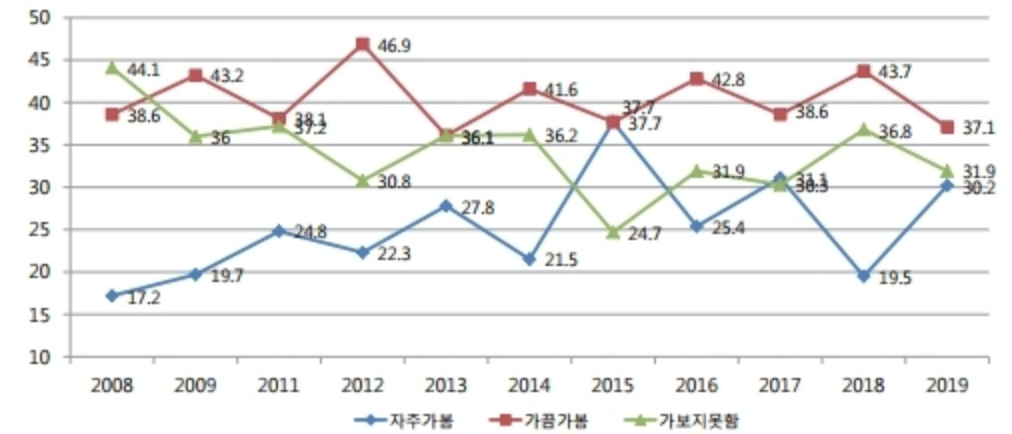


-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 31.1%, 유지되지 않고 있다 68.9%로 '유지안됨'이 2배 이상 많음
- 작년과 비교하여 '유지됨' 26.4%→31.1%로 4.7%p 상승, 사회통제 조금 강화
- 2015-2016년에 사회통제 강화되었다가 이완되는 흐름
- 7차 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동원 강화되었다가 당대회 이후 이완 분위기

### 3. 사회통제의식

#### 3-3. 다른 지역 방문 정도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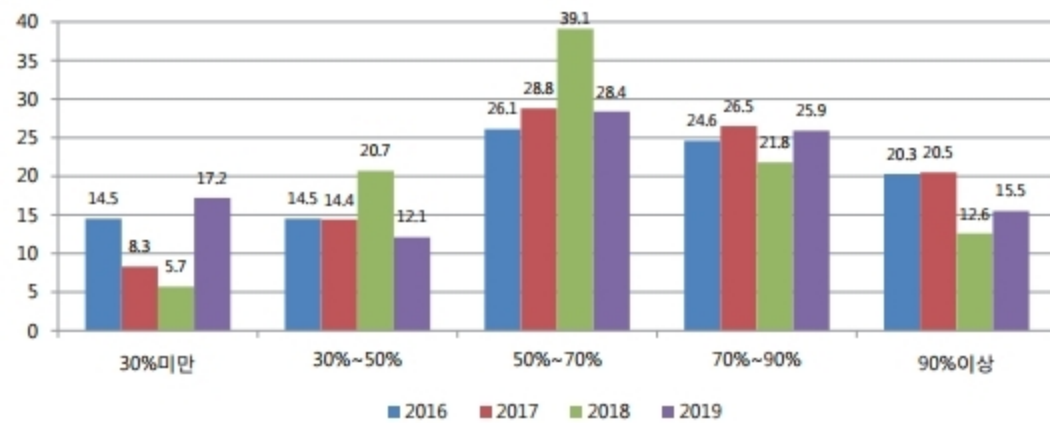


-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은 2018년 19.5%에서 2019년 30.2%로 급상승
- 가끔 가보았다는 응답과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하락
- 주민 이동에 통제가 완화된 것으로 보임. 주민이동 허용에 관한 보도

### 3. 사회통제의식

#### 3-2. 생활총화 출석률

(북한 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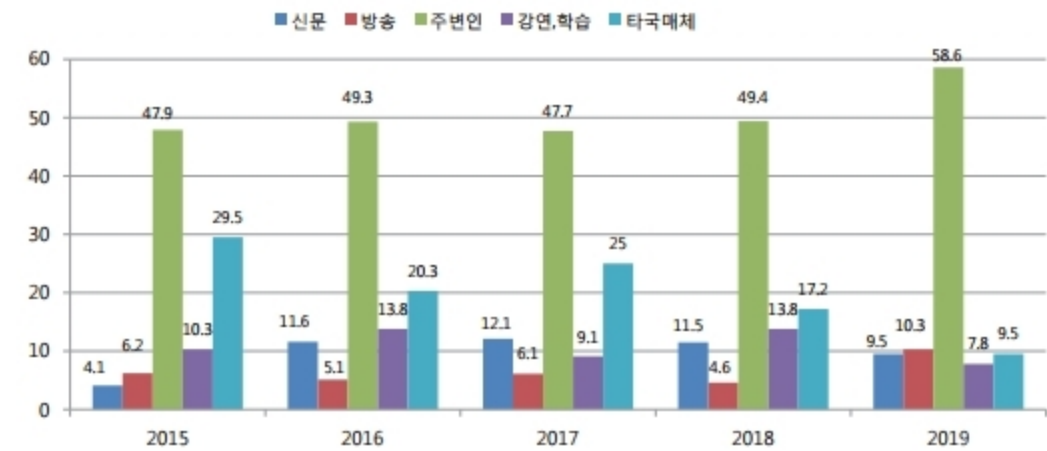


- 출석률은 50% 이상이 전체 70% 정도 차지
- 작년과 비교하면 50~70%는 39.1%→28.4%로 10.7%p 감소, 대신 70~90% 21.8%→25.9%, 90%이상 12.6%→15.5%로 증가
- 반면 30%미만에서 5.7%→17.2%로 급상승, 생활총화 참석의 양극화

### 3. 사회통제의식

#### 3-4. 외부소식 접촉 경로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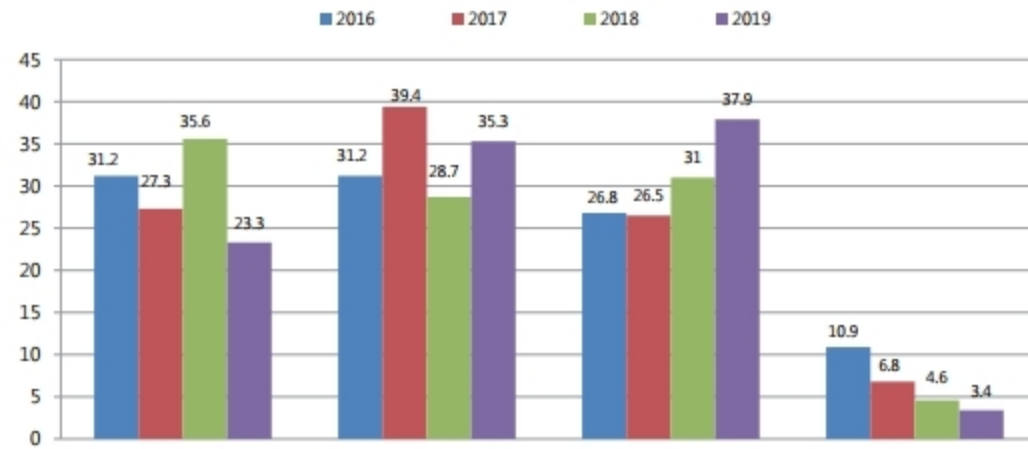


-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 58.6%도 압도적, 지난 1년간 49.4%→58.6% 9.2%p 큰 폭 증가
- 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임
- 방송을 통한 접촉 증가, 2018년 외국과의 정상회담 적극 홍보 결과
- 다만, 타국 매체를 통한 접근은 2015년 이래 지속 감소, 29.5%→9.5% (20%p)

### 3. 사회통제의식

#### 3-5. 언론에 대한 신뢰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는가?)



-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58.6%)이 아니라고 믿는 경향(37.9%)보다 우세
- 그러나 '대부분 사실'은 감소, '일부 사실' 증가로 신문, 방송 보도내용 신뢰 약화
- 지난 3년 동안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의식 증가 추세, 25.6%→31.0%→37.9%
- 신문, 방송 보도내용 불신 경향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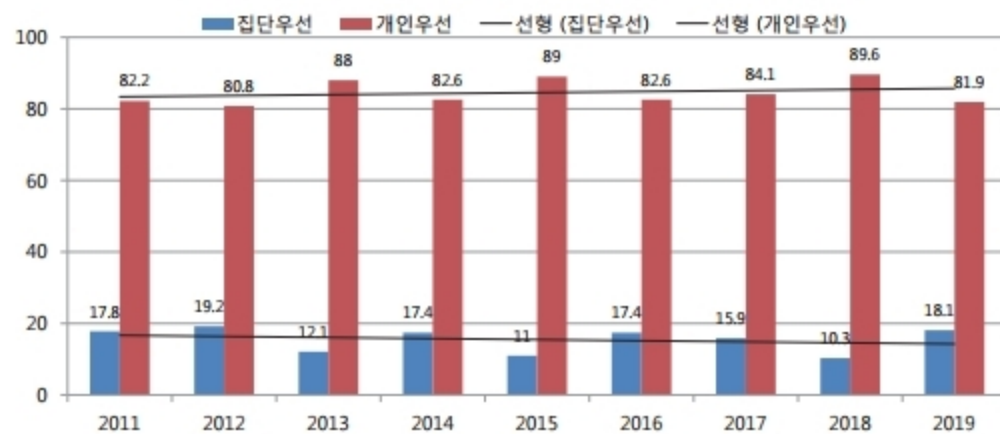
### 소결론

- 2019년 조사결과, 북한주민의 의식지형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된 추세와는 약간 다른 흐름 형성
- 첫째, 정치의식은 안정되어 가던 정치의식이 꺾이거나 주춤하는 현상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지지도, 김정은 직무, 핵무기 보유 평가 낮아졌고, 정부비판행위 정체.  
정치적 피로감 혹은 김정은의 파격행보(비핵화, 정상회담)로 정치적 불안감 때문?
- 둘째, 경제의식에서는 경제 다소 활성화에 따라 개혁개방 기대심리 고조와 기대소득의 양극화 진행  
북한당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원인 인식 7.8%로 낮음
- 셋째, 사회통제 강화, 그러나 주민유동성 증대, 정보접촉면 증대, 대내보도 불신, 인적 접촉 정보 신뢰 증대
- 북한주민의식 지형은 세대, 교육, 당원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직무평가, 개인/집단 선호도 등에서 지역변수가 유의미하게 발견되었고, 남한친척유무, 장사경험유무도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
- 향후 1년 동안 북한주민 의식지형 어떻게 달라질까?
- 올해 의식흐름의 전환적 계기가 김정은 집권 7년차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라면 올해 추세 지속
- 지난해 있었던 중대한 한반도 변화(비핵화, 정상회담) 때문이라면 과거 패턴으로 복귀할 가능성

### 3. 사회통제의식

#### 3-6. 집단과 개인의 우선 순위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가?)



- 개인우선이 훨씬 높은 순위 차지, 81.9%, 집단우선은 18.1% (개인우선:집단우선 8:2)
- 지난 1년 동안 개인우선 89.6%→81.9%로 감소, 집단우선 10.3%→18.1%로 증가
- 사회의 통제를 받고 생활총화 등 조직행사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 지속
- 지역별 차이(0.01수준 유의미), 양강도 > 함경북도 > 함경남도 순으로 개인 더 중시

# 북한 실태 인식 (요약)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정치의식

가. 정치의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안정되어 가던 정치의식이 꺾이거나 주춤하는 현상

- 1) 주체사상 자부심 52.7%(2015)→63.0%(2016)→65.1%(2017)→70.3%(2018)→61.2%(2019)
- 2) 김정은 지지도 58.1%(2015)→63.0%(2016)→62.9%(2017)→73.4%(2018)→71.6%(2019)
- 3) 김정은 직무평가 48.3%(2018)→44.8%(2019)
- 4) 핵무기 보유 평가 찬성 56.3%→50.0% 등으로 낮아지고,
- 5) 정부비판행위 정체(48.3%→47.4%)

나. 김정은 집권 7년 차에서 보이는 정치적 피로감 혹은 김정은의 파격 행보(비핵화, 정상회담)로 미래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 때문?

다. 성별, 연령, 직업, 교육, 당원여부 등 여러 변수와 주민의식은 상관관계가 없었고, 지역, 친척 유무, 장사 경험 등에 따른 차이 발견

- 1) 2011~2015년에는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이 주체사상 자부심과 김정은 지지도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는데, 2016년 이후 다른 흐름이 형성, 세대별 차이 약화
- 2)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직무평가에서 양강도가 가장 낮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순으로 높음
- 3) 남한에 친척이 있는 사람,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직무평가 낮음

## 2. 경제 의식

가. 경제 의식에서는 경제가 다소 활기를 띠면서 기대소득의 양극화 진행.

나. 필요 월 생활비 수준, 다수 응답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왔으나 150만 원, 300만 원을 고액 생활비 필요 증가

다.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으로 개혁개방 미흡, 지도자 책임 등 내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자본주의 경제 선호도 증가

라. 북한 당국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원인 인식 7.8%로 낮음

마. 작년 4월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국가전략 전환 이후 경제발전과 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3. 사회통제 의식

가.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강화, 그러나 주민 유동성과 정보접촉면이 증대하고 대내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 증가, 인적 접촉 정보 신뢰 증대

- 1) 사회통제 인식 26.4%→31.1%로 상승, 생활총화 출석률도 소폭 상승, 집단인식도 7.8%p 상승
- 2) 그러나 지역 간 이동이 많아졌고 친척이나 이웃, 친구 등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주민 유동성은 더 증대

나. 시장 거래 진전에 따라 주민 이동과 인적 접촉이 증대하여 인적 접촉 정보를 신뢰하고 공식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경향

## 4. 소결론

가. 2019년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의 의식 지형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된 추세와는 약간 다른 흐름 형성

나. 북한주민의식 지형은 세대, 교육, 당원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직무평가, 개인/집단 선호도 등에서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발견되었고, 남한 친척 유무, 장사경험 유무도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

다. 올해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지형이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달라질까?

- 1) 올해 의식 흐름의 전환적 계기가 김정은 집권 7년차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라면 올해 추세 지속
- 2) 지난해 있었던 중대한 한반도 변화(비핵화, 정상회담)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 때문이라면 과거 패턴으로 복귀할 가능성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 주변국 관계인식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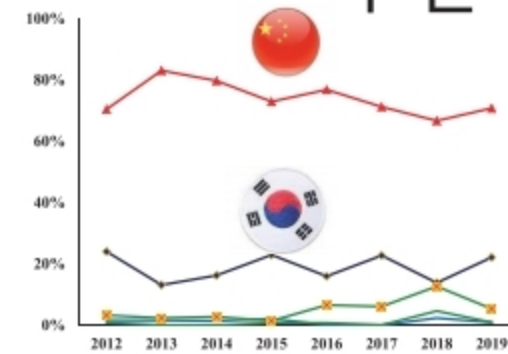




#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 주변국 친밀감



중국과 가장 높은 친밀도(70.8%) ↓  
 한국과의 친밀도(22.1%)는 2순위 ↑  
 미국-일본과의 친밀도는 감소  
 2018년 유화 → 대남 인식 개선  
 \*對한국/對중국 동시 인식 개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1.4%	2.1%	0.0%	0.0%	2.3%	0.9%
일본	0.0%	0.7%	0.7%	0.0%	4.6%	0.9%
한국	16.2%	22.9%	15.9%	22.7%	13.8%	22.1%
중국	79.7%	72.9%	76.8%	71.2%	66.7%	70.8%
러시아	2.7%	1.4%	6.5%	6.1%	12.6%	5.3%

## 주변국 친밀감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1	1	1	1	1	1	1
한국	2	2	2	2	2	2	2
러시아	3	3	3	3	3	3	3
미국	4	4	4	4	공동 4위	5	공동 4위
일본	5	5	5	5		4	

중국>한국>러시아 순서는 유지됨.

- 중국: 10년 동안 친밀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한국: 10년 동안 친밀감 2순위. 전년 대비 급상승(8.3%)
- 러시아: 친러 인식의 급감(7.3%)

##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국	501	67.1%	249	65.9%
한국	115	15.4%	78	20.6%
러시아	42	5.6%	5	1.3%
미국	8	1.1%	4	1.1%
일본	4	0.5%	4	1.1%
결측	77		38	
소계	747		378	

북한 주민에게는 친밀한 국가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결론!

40대 이상 연령대가 한국에 더 우호감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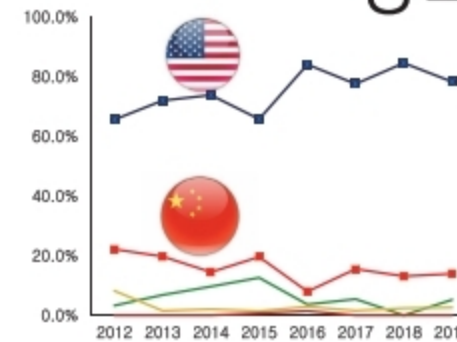
## 주변국 친밀감-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8	1.7%	4	0.6%
일본	7	1.5%	1	0.1%
한국	81	17.6%	112	16.7%
중국	299	65.0%	458	68.2%
러시아	22	4.8%	25	3.7%
결측	43		72	
소계	460		672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

북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중국에 더 호감을 가짐  
(통계적 유의미성)

## 평화위협국



미국이 가장 위협적이라 인식(78.3%) ↓

중국 위협이 2순위(13.09%) ↓

러시아-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음

남북관계가 북한 주민의 한국발 위협에 영향 없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73.8%	65.7%	84.1%	77.5%	84.5%	78.3%
일본	9.7%	12.6%	3.6%	5.4%	0.0%	5.2%
한국	2.1%	1.4%	2.9%	1.6%	2.4%	2.6%
중국	14.5%	19.6%	8.0%	15.5%	13.1%	13.9%
러시아	0.0%	0.7%	1.4%	0.0%	0.0%	0.0%

## 평화 위협국-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294	63.9%	459	68.3%
일본	27	5.9%	36	5.4%
한국	8	1.7%	20	3.0%
중국	85	18.5%	75	11.2%
러시아	1	0.2%	2	0.3%
결측	45		80	
소계	460		672	

북한 남성들이 중국발 위협을 여성보다 높게 평가함 (통계적 유의미)

북한 여성들이 미국발 위협을 남성보다 높게 평가함 (통계적 유의미)

##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국?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빈도	68	60	52	35	39
	백분율	48.6%	43.8%	39.4%	40.2%	33.6%
미국	빈도	24	17	19	18	30
	백분율	17.1%	12.4%	14.4%	20.7%	25.9%
러시아	빈도	8	16	11	6	6
	백분율	5.7%	11.7%	8.3%	7.0%	5.2%
우리힘	빈도	40	44	50	27	36
	백분율	28.6%	32.1%	37.9%	31.0%	31.0%
소계		140	137	132	87	116

북한의 자신감이 소폭 하락 vs. 미국의 능력 인지?

## 평화 위협국-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502	67.2%	248	65.6%
일본	41	5.5%	21	5.6%
한국	16	2.1%	11	2.9%
중국	102	13.7%	56	14.8%
러시아	3	0.4%	0	0.0%
결측	83		42	
소계	747		378	

북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연령대별 차이가 없음.

## 발전을 위한 협조 필요국?

		2016	2017	2018	2019
미국	빈도	6	8	4	16
	백분율	4.3%	6.1%	4.3%	13.8%
일본	빈도	1	2	0	1
	백분율	0.7%	1.5%	0.0%	0.9%
한국	빈도	60	74	44	50
	백분율	43.5%	56.1%	50.6%	43.1%
중국	빈도	65	45	38	45
	백분율	47.1%	34.1%	43.7%	38.8%
러시아	빈도	6	3	1	3
	백분율	4.3%	2.3%	1.1%	2.6%
소계		138	132	87	116

미국의 필요성 급증 vs. 한국/중국의 필요성 감소

## 소결

- 중국과의 친밀감이 약간 낮아지나, 여전히 강함. 2017년 위기로 인하여 한국과의 친밀감이 약화됨.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이 소폭 상승. 일본, 미국에 대한 거리감이 매우 강함.
-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 유발자로 인식함. 한국발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 평가, 심지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해에도 한국발 위협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음.
-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조 유지. 미국이 통일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됨. 2017년 위기를 반영한 일시적 현상인지 추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북한 주민의 마음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음.

## 2019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요약)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1. 주변국 친밀감

- 2019년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은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함. 큰 추세에서는 중국과의 친밀감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2018년 조사에 비하여 증가함 (76.8% --> 71.2% --> 66.7% --> 70.8%).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에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2018.3.25, 2018.5.7, 2018.6.19)과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인하여 對中 친밀감이 증가했다고 추정됨
- 한국과의 친밀감이 2순위임. 전년보다 대폭 증가함 (22.7% --> 13.8% --> 22.1%).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이 2017년 한반도 위기의 영향을 상쇄했다고 추정됨.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증가함
- 북한 주민의 對中 친밀감과 對러시아 친밀감 사이에 있는 부의 상관관계가 다시금 확인됨. 2019년 對中 친밀감 증가 vs. 對러시아 친밀감 감소
-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주민의 對美 친밀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추정됨. 북한에 거주 당시 對美 친밀감을 가졌다고 회상한 북한 주민이 사실상 전무함
-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 북한 여성이 남성보다 對中 친밀감을 더 가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에서 연령대 차이가 거의 없음. 40대 이상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더 가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2. 평화 위협

-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유발자로 인식함. 전년에 비하여 위협인식이 완화됨 (77.5% --> 84.5% --> 78.3%).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으로 인하여 2017년 한반도 위기국면에서 미국발 위협 인식이 약화되었다고 추정됨
- 중국발 위협이 2순위임. 전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함 (15.2% --> 13.1% --> 13.9%). 북한 주민의 안보불안감에서 미국발 위협감과 중국발 위협감이 상호 교차하는 현상이 약하지만 다시 확인됨
- 한국발 위협을 매우 낮게 평가함. 2018년에 비하여 한국발 위협인식이 소폭 증가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조차 가지지 못함
- 일본발 위협인식이 증가함. 미국발 위협인식과 일본발 위협인식 간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다시 확인됨
-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성별 차이가 약하게 존재함. 북한 남성이 중국발 위협을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함. 북한 여성이 미국발 위협을 남성보다 더 높게 평가함.
-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연령대 차이가 없음



### 3. 북한의 자신감

-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조 유지됨. 북한 정권의 자신감이 주민들에게 투영된 듯. 핵 무장의 영향이라고 추정됨. 미국으로부터 협조 필요성이 증가함(20.7% --> 25.9%). 반면, 중국으로부터 협조 필요성은 하향 추세임
-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의 필요성이 감소함. 북한 주민의 마음이 미국으로 이동 중인지,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의 영향인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 한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고착됨. 즉,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 2019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자력갱생의 명암 (明暗)

## 남한적응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북한주민의식과 사회변동 조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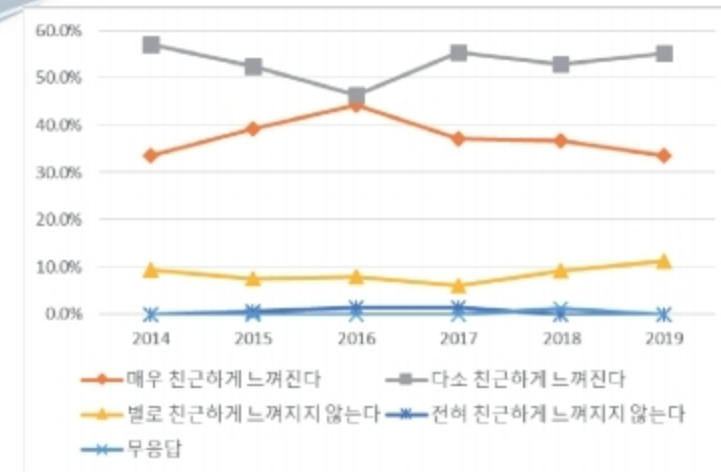
2019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자력갱생의 명암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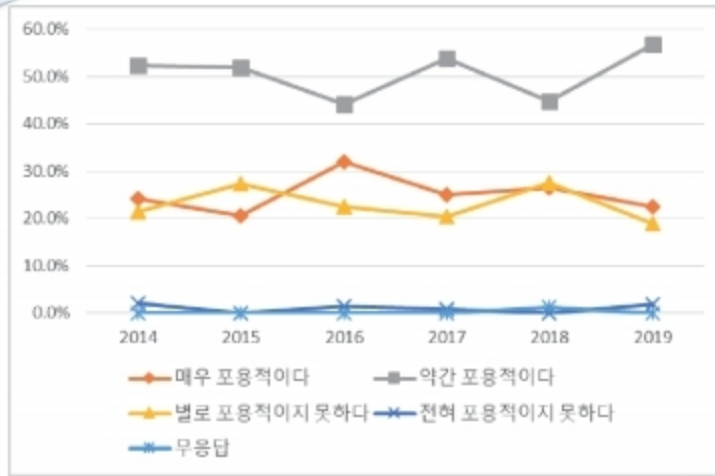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최근 5년간 조사 중 최저 (88.8%)로 나타남.
- 부정적 반응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 (11.2%)
- 2017년을 기점으로 긍정반응은 감소, 부정반응은 증가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주민의 포용성



-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2018년에 비해 증가(71.2% →79.3%)
- 부정적 반응은 2018년에 비해 감소 (27.6%→20.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19)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48.7	46.2	2.6	2.6	100
다소 친근	9.4	68.8	21.9	0	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7.7	30.8	53.8	7.7	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	0	0	0	0
응답수(빈도)	26	66	22	2	11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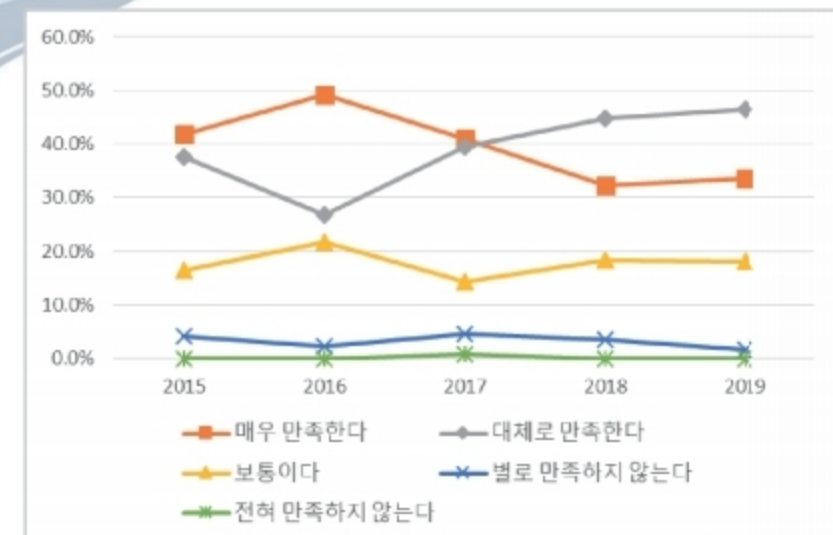
###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18)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50.0	40.6	9.4	0	100
다소 친근	13.0	52.2	34.8	0	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12.5	25.0	62.5	0	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	0	0	0	0
응답수(빈도)	23	39	24	0	8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생활 만족도



- 남한 생활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 (77% →80.2%), 불만족은 50% 감소
-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근 3년간 80%선으로 유지되고 있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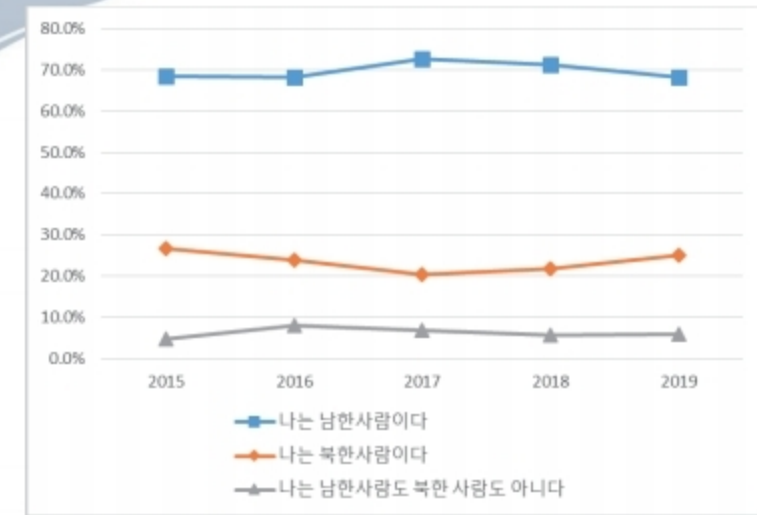
###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안함	응답 수
매우 후회	5.1	1.9	9.5	0	5
약간 후회	2.6	11.1	42.9	100	18
별로 후회안함	10.3	35.2	28.6	0	29
전혀 후회안함	82.1	51.9	19.0	0	64
계	100	100	100	100	116

-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자 23명 중 2명만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응답을 함.
-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반드시 "남한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음. 후회의 요인을 분석할 필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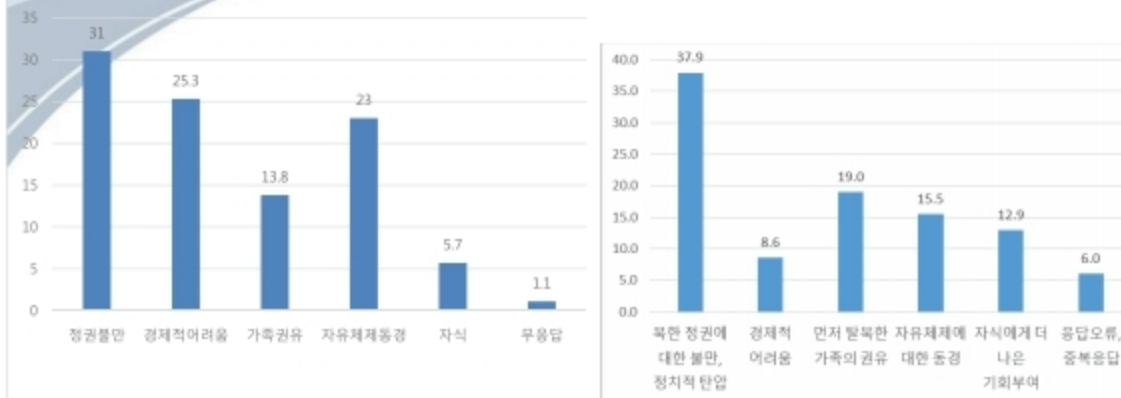
### 국민정체성



- 2017년 이래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감소세, 북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증가세를 꾸준히 보임 (2019년 각각 68.1%과 25.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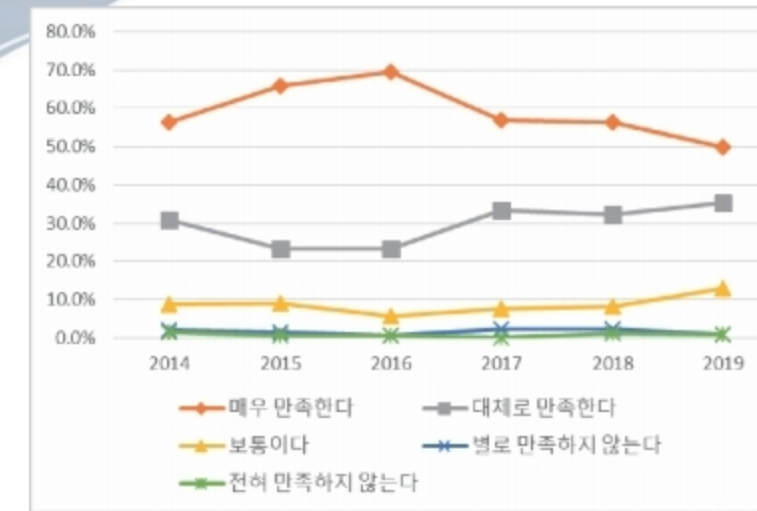
### 탈북결심 이유 (2018-)



- 정권불만>기탈북 가족권유>자유체제 동경>자식의 미래>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나타남
- 2018년과 비교해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크게 감소하고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라는 응답이 증가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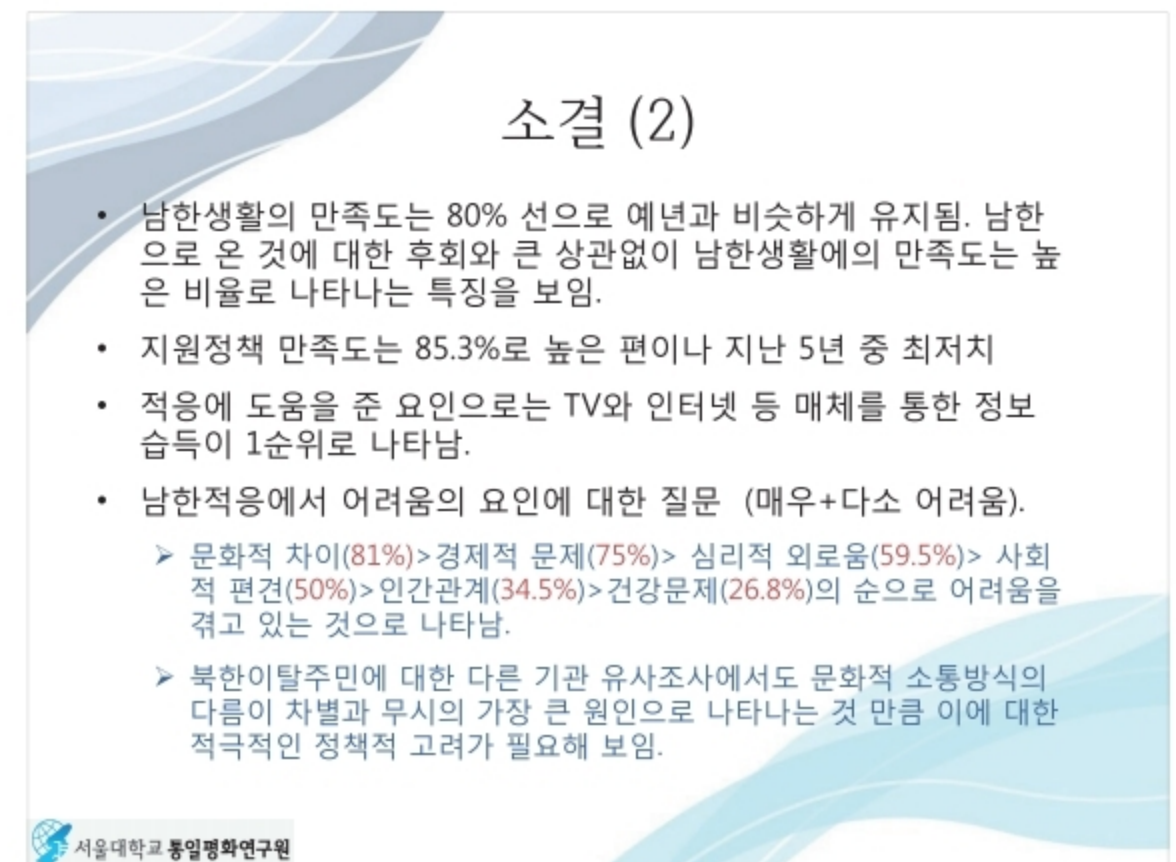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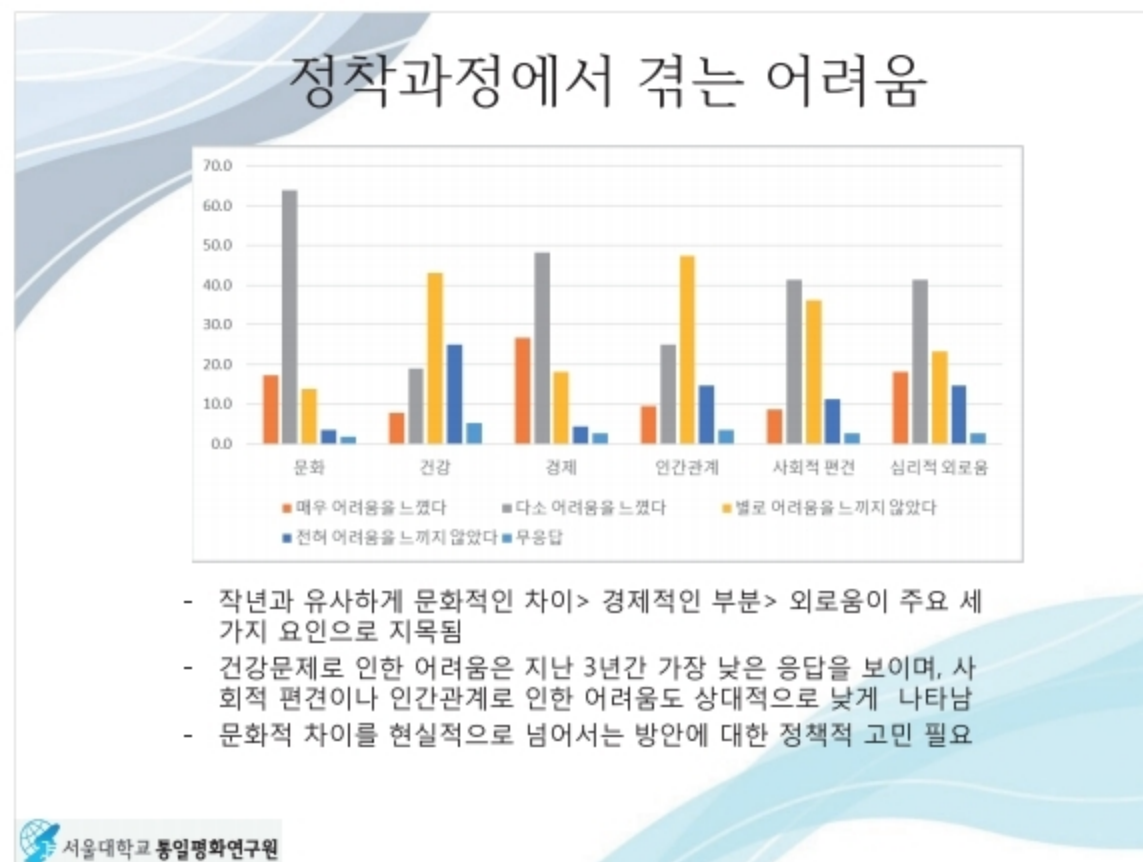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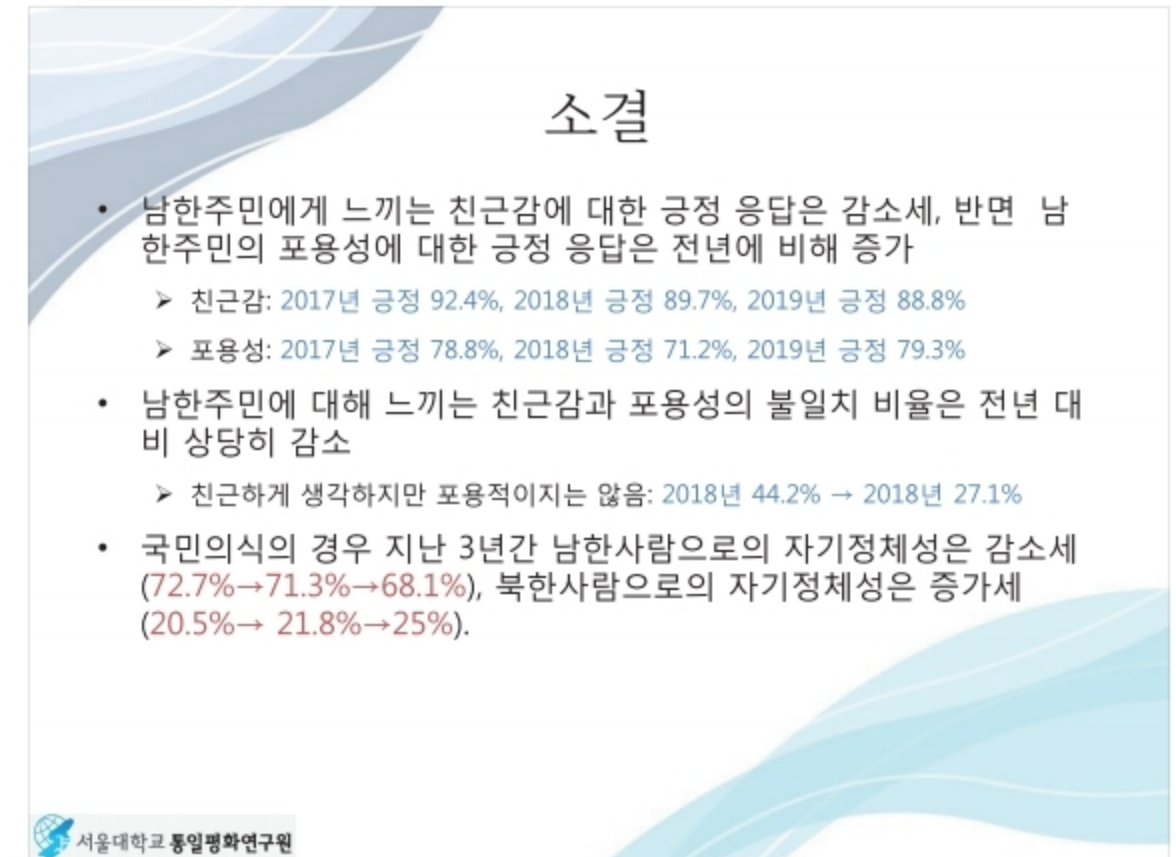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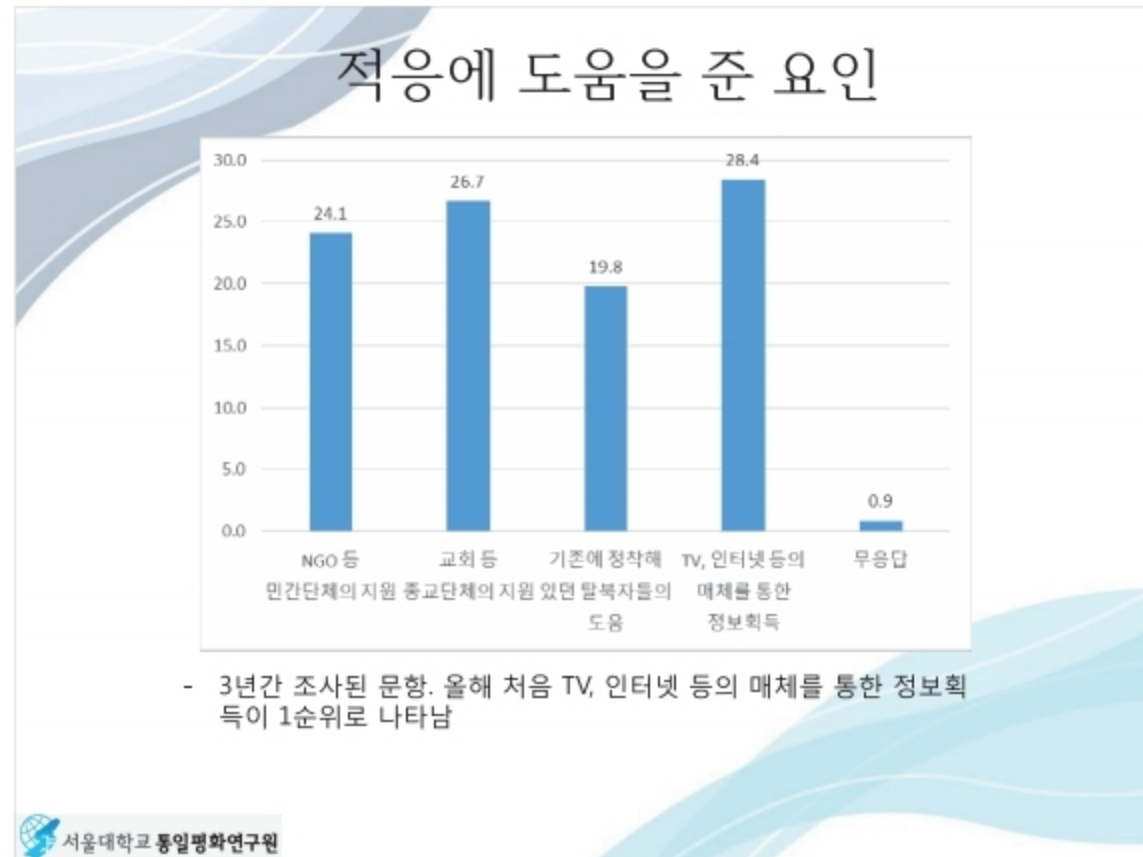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지원정책 만족도



-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 (92.8%>90.1%>88.5%>85.3%)
- 보통이라는 응답이 증가하며 불만족도는 1.8%로 낮게 유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이탈주민 남한적응 실태 (요약)

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남한적응실태

가.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은 최근 3년간 다음과 같이 나타남

- 1) 친근감: 2017년 긍정 92.4%→2018년 긍정 89.7%→2019년 긍정 88.8%
- 2) 포용성: 2017년 긍정 78.8%→2018년 긍정 71.2%→2019년 긍정 79.3%

-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교차분석

- 3) 친근감은 추상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두 가지 지표를 교차 분석하여 친근감에서는 긍정을 보이거나 포용성에서는 부정을 보이는 응답(매우/다소 친근함-전혀/별로 포용적이지 않다)에 주목
- 4) 감정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친근하게 여겼으나 실제 생활을 통해 경험한 포용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조합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의 지표로 이해
- 5) 해당 수치는 2017년 26.7%에서 2018년 44.2%로 증가하였음. 2019년은 27.1%로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수치가 낮아짐

나. 남한생활의 만족도는 80.2% (매우 만족 33.6%, 대체로 만족 46.6%), 보통 18.1% 별로 만족하지 않음 1.7%로 나타남. 전년(77%)에 비해 만족도 증가, 불만족도 감소(3.4%→1.7%). 강한긍정과 약한 긍정을 합하면 만족도는 최근 3년간 80% 내외로 유지되는 추세. (참고: 2018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한생활 만족도는 만족 72.5%, 보통 23.7%, 불만족 3.8%로 나타남)

다.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2년 연속 후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 후회한다는 응답이 20% 선을 유지

- 1)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정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전체 116명 중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23명 중 남한 생활에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는 2명. 나머지는 보통 혹은 만족(매우/다소)한다는 응답.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것과 남한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라. 탈북 결심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이 31%→37.9%, 경제적 어려움이 25.3%→8.6%, 자유체제에의 동경이 23%→15.5%의 증감을 보임.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는 13.8%에서 19%로, 자식의 미래에 대한 고려는 5.7%에서 12.9%로 크게 증가함. (참고: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의 이유는 1) 북한 체제의 감시, 통제가 싫어서 25.3%, 2) 식량이 부족해서 22.5%, 3)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2.5%의 순)

- 1) 일반적으로 탈북의 이유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비해 정치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전년 대비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는 크게 낮아짐
- 2) 탈북 직전 북한에서의 생활 수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를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8년 12.6%에서 2019년 14.7%로, 중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5.2%에서 60.3%로 증가한 반면, 하층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2.2%에서 24.1%로 감소. 이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2019년 응답자들의 탈북직전 생활수준이 전년도 응답자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던 것과 위의 결과를 관련지어 볼 수 있음
- 3)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 역시 올해 응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탈북 직전 생활수준과 연관 지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탈북결심의 이유를 남한 내 친척유무와 교차 분석한 결과, 남한 내 친척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라는 응답이 2배 높게 나타나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남한 내 친척이나 가족이 이미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송금 등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기 탈북 가족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지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마. 국민의식의 경우 남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2018년 71.3%에서 2019년 68.1%로 감소한 반면, 북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21.8%에서 25%로 증가함. 최근 3년간 남한사람으로의 정체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북한사람으로의 정체성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는 85.3%로 최근 5년 중에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증가하면서 불만족도는 1.8%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사. 정부이외에 남한사회 정착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으로 2018년에는 종교단체가 1순위였으나 (33.3%) 올해는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28.4%)이 근소한 차이로 1순위로 지목됨 (종교단체는 26.7%)

- 1) 실제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중,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적 부분과 실제로 검색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경험적 부분이 모두 언급됨
- 2)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인터넷의 익숙한 활용으로 꼽는 것을 다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인터넷 활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

아. 남한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은 2017년에 추가되어 3년째 조사에 포함됨. 3년 동안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와 2순위로 일관되게 지목됨. 전년도에 비해 심리적 외로움이 사회적 편견을 앞섰고, 건강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3년 연속 가장 낮게 나타남

- 1)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차별, 무시당한 경험이 없음은 79.8%, 있음은 20%로 나타남.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남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화적 차이를 적응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바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를 현실에서 넘어서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지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